검소한 여행 · 알찬 서비스
혜초여행사
해외여행 · 항공권 · 여권비자수속
안국동 로타리(조계사 앞) 종로구 수송동5번지 동일B/D 3층
전화 : 代 (02)733-3900

현대불교

회장:노대행/발행인 겸 편집인:김광삼/논설고문:고은/편집국장:최정희/인쇄인:김규석/등록번호:다-3379/ⓒ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대표전화 737-8881/편집국 722-4162 FAX 737-0698/광고국 737-0692/구독신청 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2년(서기 1998년) 4월 29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172호

人蔘의 약효!
원비-디®

"할아버지 옷갈아 입으셔야죠"
"싫어. 관두고 그냥가"

자광원 장원석할아버지(80)는 방금 청보리회(회장 장병진) 회원들의 도움으로 오랜만에 겨우 목욕을 하고서도 퉁명스럽기만 하다. 그래도 장병진 회장을 비롯한 청보리회 회원들은 그런 할아버지가 밉지 않다. 할아버지가 이런 식으로나마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기쁘기만 하다. 처음 성남 자광

작은 실천 큰 기쁨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원을 찾았을 때만 해도 민망하고 쑥스러웠지만 이제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내 가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또 대부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청보리회 회원들을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자신의 손자손녀 처럼 여긴다.

고등학생과 대학생 청년불자들로 구성된 청보리회가 이곳 자광원을 찾은 지 올해로 어언 5년. 매 홀수달 셋째주 일요일 오전이면 어김없이 자광원으로 출동한다.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거동조차 불편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가려운 곳도 긁어 드리고, 목욕도 시켜 드리고, 빨래도 하고, 말 동무

「청보리회」의 원칙



도 되어 드리는 일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20여명의 회원 각자가 이제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시키지 않아도 척척 알아서 할 정도다.

매주 토, 일요일 남산 충정사에서 법회와 경전공부를 하고 있는 청보리회 회원들은 자광원에서 봉사를 시작하면서 일상에서는 쉽게 얻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한다. 처음 찾아갈 때만 해도 연민과 동정이 앞섰지만 지금은 떨어져 사는 친할아버지 할머니를 오랜만에 찾아뵙는다는 느낌이 절로 들 정도로 즐겁기만 하다. 모든 노인이 바로 전생에 우리 부모형제였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새기고부터는 더욱 그렇다.

두달에 한 번 찾아가다 보니 가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안보일 때면 '아! 돌아가셨구나' 하고 자연히 알게되기도 한다. 그럴 때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할 따름이다.

그래서 청보리회는 오는 5월부터는 한달에 한 번 셋째주 토요일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가기로 새롭게 원력을 세웠다. 〈이은자 기자〉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인터넷서 부처님 만나세요"

종단 · 사찰 · 신행단체 30여곳 홈페이지 '접속'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어디서든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

조계종 천태종 등 각 종단과 교구본사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불교알리기'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 국내 불교 관련 사이트는 조계종 총무원 등 사찰 홈페이지 8개를 비롯 신행단체, 학술, 문화·문화재 등 약 30여개. 사이버 공간 속에 부처님 세계가 열리고 있다.

지난해 4월 개설된 조계종 총무원 홈페이지는 최근 종단내 주요정보 누출방지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도입하고 불교 관련자료 자동검색 기능을 추가하며 재구성됐다. 또 게시판 기능에 '조계종에 바란다'를 신설하고, 앞으로 전국사찰 주소·전화번호와 불서자료, 국내외 불교 사이트도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사찰로는 법주사 직지사 봉도사 송광사 등 4개 조계종 교구본사가 홈페이지를 개설, 인터넷 포교에 나섰다. 불국사와 은해사는 5월말과 6월 초, 대둔사와 백양사는 연내 개설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또 천태종 삼광사와 일승종 법운사도 인터넷 포교를 시작했다.

교계최초로 독자적 서버를 갖고 불교전문 정보센터로 자리잡은 '부다피아'는 18개 교계단체의 홈페이지를 무료로 제작, 불교계 전산화를 이끌고 있다. 또 인터넷 검색엔진 '야후'에 한국불교·한국선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5월3일부터 LG정보통신 '채널아이'에 불교정보를 독점 제공한다.

이밖에 고려대장경연구소, 목아박물관 등도 독특한 볼거리들을 제공,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 '사이버도서관'도 동국대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도서정보를 전산화, 도서 검색 및 열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불교계의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바탕은 가상공간을 이용한 포교와 '불교의 세계화'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풀어야할 문제도 적지않다. 사이트를 개설한 대부분의 불교 홈페이지가 한글지원에 그치고 있어 세계 무대 겨냥은 아직 미흡하다. 이밖에 자료 공유와 홈페이지간의 연결, 자료추가(업그레이드)를 통한 정보의 '신선도 유지'도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8면으로 이어집니다 ☞



◇조계종 홈페이지 초기화면



◇부디피아 초기화면



촛불기원

불기2542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연등축제가 서울을 비롯 전국 주요 도시에서 26일 일제히 봉행됐다. 사진은 서울 조계사 앞 연등축제 회향마당에 3만개 촛불로 설치된 '함께 이겨냅시다 다시 일어섭시다' 기원문. 〈사진=고영배 기자〉

국난극복 참회대법회

수덕사서 참선철야 합시다

불자들은 사찰에서 참선 철야정진하기를 발원합니다. 그러나 막상 인연이 닿기란 쉽지않은 현실입니다.

때마침 경허 만공스님의 법기가 서려 있는 덕숭총림 수덕사에서 국난극복을 위해 참선으로 철야정진을 합니다. 한국선종의 본찰에서 정통으로 하는 참선 철야정진에 적극 동참하셔서 자혜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일 시: 5월 25일(월) 오후9시~26일 오전3시(출발 25일 오후5시 조계사 앞)
◇회 비: 3만원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02)737-8881, 722-4162
◇조흥은행: 322-04-221460(선정호)

주최: 한국불교종단협의회/주관: 조계종 수덕사
후원: 국민회의 연등회 · 자민련불자회 · 한나라당불자회
군승단 · 경승단 · 불교방송 · 불교TV · 현대불교신문사

"다시 일어섭시다"

26일 연등축제 전국 불자 '한마음'

불기2542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연등축제가 26일 서울과 전국 주요도시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오후2시부터 시작된 서울 연등축제는 동대문 운동장에서 조계사 앞길에 이르는 구간에서 10만여 불자와 시민이 동참한 가운데 성대히 봉행됐다.

연등축제는 오후2시 조계사 앞길에서 결처진 사물놀이 봉축상품전 등으로 막이 올랐다. 서울 경기지역 불자 5만여명이 동참한 연등법회는 오후 4시부터 동대문 운동장에서 시작, 탄생, 찬탄, 서원, 제등행진으로 이어졌다. 연등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가 오늘 밝히는 등은 고통의 업장을 소멸시키는 자비와 지혜의 등이며 희망의 등"이라고 강조했다.

12면으로 이어집니다 ☞

부처님오신날 특집 28면 발행

우리는 참불자인가
'일체사경' 16조건 21면
'불자조건' 설문 22면
참불자의 모습 23면
화보 - 연등축제 이모저모 12면
에밀레종 언제 울리나 9면
문화부 장관에게 듣는다 4면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출간 7면
조계산의 두 사찰 19면
고물가 고실업시대 불교의 역할 24 · 25면

세계최초, 최단시간 100만 가입자 돌파!

소리가 보인다 PCS 016



참 억울한 일입니다. 한푼이라도 아껴야할 IMF 시대에 같은 이동전화를 쓰면서도 돈을 더 낸다는 것은…

PCS 016을 쓰시면
1년에 20만원 이상 절약됩니다.(월400분 사용기준)

한국통신프리텔은 이동전화의 신기록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 1997년 6월 국내최초 이동전화 신용카드 복합서비스 실시
- 1997년 6월 업계 최다 예약가입 고객달성
- 1997년 9월 PCS 최초 지하철 공중계방식 제안 및 설치
- 1997년 10월 PCS 016 상용서비스 개시
- 1997년 10월 이동전화업계 최초 보증금제도 폐지
- 1997년 12월 PCS 최초 광분신 시스템 도입 및 상용화
- 1997년 12월 주요 일간지 선정 PCS업계 최다히트상품선정(12개)
- 1998년 4월 통합망 완성으로 완벽한 전국통화 실현
- 1998년 4월 업계 최초 양방향 문자정보 서비스 실시
- 1998년 4월 세계최초 최단기간 100만 가입자 돌파
- 1998년 5월 서울, 대구, 부산 지하철 전구간 서비스 완전 개통
- 1998년 6월 PCS를 통한 무선 데이터통신 실현
- 1998년 9월 통화량이 많아도 문제없는 지능형 기지국 실현
- 2002년 꿈의 통신 IMT-2000 상용화

부처님 오신날
PCS 016「특별할인판매」

기간 '98년 4월 26일 ~ 5월 4일
대상 스님, 종무원, 재가신도
가격 5만원부터(가입비 별도)

*PCS 016가입시 현대불교신문의 「부다피아 포교기금」으로 가입하신 고객은 통화료의 5%를 추가로 할인받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부다피아 포교기금은 배당되는 통화료 수익금을 통일포교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쓰기 때문입니다.*

신청서 접수처
우편번호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부다피아 포교기금」
☎ 02)732-1522 FAX. 02)737-0697

■ 주관 : 현대불교신문사(02-732-1522) ■ 후원 : 한국통신프리텔, 우리민족둘기불교운동본부, 소액새마을, (사)감포심장회

봉축사설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주자

브처님이 오심으로써 새로운 시간과 공간이 열리었다. 진리에 따르는 참된 생명의 모습을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는 우리 속에 부처님을 모시는 참다운 삶을 약속받았다. 그러한 복된 세계가 열린지 어언 2542년, 우리는 다시 그 새로운 시간이 열린 복된 날,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게 되었다.

불자로서 이 날을 맞는 모든 이들은 한없는 부처님의 가피에 감사드리며, 부처님께서 열어주신 진리의 세계에 몸을 던져 참된 생명을 살아갈 것을,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 이 세상에 부처님세계를 건설할 것을 서원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몸에 대한 한없는 기쁨과 동시에 나의 신행을 통해 부처님을 이 세상에 여실하게 모셔야 할 큰 사명을 다지는 것이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는 이러한 기쁨과 사명감 가운데, 이 즈음의 어려운 국내 여건에서는 불자로서의 사명감에 더욱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부처님이 오신 참된 의미를 이 세상에 펴, 부처님 오신 기쁨을 나만의 것이 아닌 모든 사람들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힘찬 움직임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일은 우리 불자들이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가장 모범적으로 앞장서고, 좌절의 아픔 속에 있는 이들에게 정신적,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어 그들을 새로운 희망으로 인도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그동안 '부처님 오신 날'은 진정으로 모든 이들이 기쁨을 함께 하는 날이 되지 못했다. 불자들끼리의 봉축, 그것도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사는 삶에 대한 진정한 기쁨이 표출되는 봉축이 아니라, 다분히 무겁고도 의례적인 봉축행사에 치우쳐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은 바로 천간 불자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단지 구두선으로 외우는 경향이 많았음을 드러냄에 다름아니다.

더욱이 국내외로 어려운 시기인 이 때 진정 부처님 오신 날이 모든 사람의 봉축을 받을 수 있는 날이 되도록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일은 불자들 몫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부처님의 가르침이 굳어진 문자로 남아있지 않고 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참다운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새롭게 해석되고 구체적인 문제에 적용되도록 해야한다. 현실의 문제에는 손을 내밀지 못하면서, 단지 현실에 지친 이들에게 정신적 안락을 주는 소극적인 모습을 탈피해야 한다. 현실의 문제를 뒤따라가며 그 뒤치닥거리를 하는 불교가 아니라, 한발 앞서 이 사회를 이끄는 불교가 되도록 모든 불자들이 깨인 눈으로 진지한 모색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모든 불자들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참다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더없는 복으로 여겨야 한다. 부처님에 대한 신앙으로 복을 받으려는 기복적인 모습을 탈피하고, 자신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자각하여 어떤 다른 종교인보다도 질높은 삶을 살아 이 세상에 밝은 빛을 던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불자들의 움직임이 단순한 개인 차원을 넘어 부처님이 청정한 승단의 모범에 따라 새로운 공동체의 이상을 실현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선 불자들부터 사찰을 중심으로 청정한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움직임을 일으키고,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바로 지금 이땅에 불국토를 건설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결쳐나가야 할 것이다.

불교계가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로 현실에 임하게 될 때 바로 우리의 현실은 불자들에게 있어서 더할 나위없는 수행의 터전이 된다. 불자들은 부처님의 이름으로 모든 실의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을 전할 것이며, 불국토 건설의 사명감으로 이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앞장서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이들이 부처님이 오심을 함께 기뻐하는 진정한 봉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참다운 신행을 통해 부처님을 이 세상에 거듭 거듭 오시게 하자. 누구보다도 소외되고 고통받고 차별받는 이들이 부처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속에 부처님이 오시도록 하자. 그리하여 부처님이 오심으로써 새롭게 열려진 시간과 공간 속에 살게 되었음을 온 천하의 사람들이 함께 경축하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도록 하자.

각 종단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어 요지

"마음밝혀 세상 감싸안자"

조계종 월주 총무원장



지금 인류는 동서와 남북을 막론하고 풍요와 부를 찬미하며 전력을 다하여 그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같은 물질편중의 가치관은 멀지않은 장래에 인류를 암담한 좌절에 봉착하게 할 것입니다. 인간은 저마다 만족할 만큼 부를 원하고 있지만 만족의 척도는 물질에 있지 않고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만법의 원인되는 마음을 밝혀 만유를 감싸안는 자비심 위에 인간의 모든 행업이 싹터 나오게 해야 합니다. 털끝만한 이념의 차이가 있어도 현실세계에 나타날 때는 하늘과 땅의 격차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심전(心田)을 계발하는 일은 과학이나 경제개발에 우선되어야 합니다. 인류의 미래는 우리 인간이 살아 숨쉬고 있는 이 땅 위에 인간이 스스로 건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겨족의 통일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난의 극복도, 우리가 자비희사 사무량심으로 고통받는 동포를 끌어안고 땀 흘리며 슬기롭게 노력해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인류가 함께 밝아 가야할 인천(人天)의 대도(大道)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자유와 청정이 온 국토에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자비 베풀면 갈등 없어요"

태고종 보성 종정



부처님께서는 고통받는 우리를 제도하시고자 오늘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고통에서 벗어나 안락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곳에는 갈등과 시비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줄 알고 서로가 서로를 생각할 줄 압니다. 또 지혜로움이 있는 곳에는 나만 생각하고 고집하는 이기심과 욕심과 아상·아집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등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 북한에서는 역시 많은 동포들이 오래전부터 굶주림에 시달려오고 있습니다. 경제적 파탄과 실직 그리고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이웃과 동포들에게 우리는 자비를 베풀고 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픔을 함께 나누는 일이며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의지를 갖도록 해주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광명을 베풀고 또한 밝히어서 오늘의 이 어려움과 위기를 하루속히 벗어나도록 합시다.

"원융정신으로 국민화합"

천태종 도용 종정



우리 사회는 불안과 고뇌로 가득차 있습니다. 이는 물론 나라의 경제가 중대한 난국에 처해 있는데 연유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외채로 인한 이 경제 공황을 극복하여 사회와 국가의 안정을 기하는 것이 초미의 긴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러러 받들어야 할 것입니다. 불법의 화합과 원융정신으로 국민이 총화단결하고 이해와 협력으로 대립과 갈등을 지양하며, 중도적 사상과 행동으로 극과 극으로 치닫지 말아야 할 것 입니다. 또한 망기이타(忘己利他)의 보살 정신과 대비구세주의(大悲救世主義)로 우리 나라가 직면한 위기를 구출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불교의 근본 사상은 자비입니다. 남에게 즐거움을 주고 남의 괴로움을 없애주는 것이 자비의 깊은 뜻입니다. 이기주의와 자기본위주의가 팽배하고 인간 심성이 메마른 오늘의 인간사회에 있어 이 자비 정신이 깊이 침투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치 저 허공 중의 큰 구름으로부터 단비가 내려 산천 초목을 소생케하듯이 대자대비의 마음이 큰 구름이 되어 감로의 비를 내려 온 중생들의 시들고 메마른 마음을 윤택케 하기를 축원하는 바 입니다.

"탐진치 살펴 眞我 찾아야"

진각종 각해 총인



석가모니부처님은 본래 그 본신(本身)은 청정한 법신부처님이시나 사바세계의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하여 저 법계 만다라 궁전으로부터 인간세계에 오셨습니다.

석가모니부처님의 강생은 인간 존엄성과 만인이 평등함을 일깨워 주심이며, 탐진치에 물든 자아를 여여히 성찰하여 진아(眞我)를 찾기 위함이십니다.

자비의 대광명이 충만한 오늘, 우리는 지혜의 나눔과 자비의 이타행정신을 실천합시다. 일체 모두는 자신의 것이 아닌 부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는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합니다. 물질적인 부(富), 아무리 큰 부(富)나 작은 부(富)라도 서로 나눔으로서만 성취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유정, 비정들이 부처님의 지혜, 자비의 가피력을 입어 내 허물 낮과 같이 밝게 보고, 상대 허물 밤과 같이 어둡게 볼 줄 아는 자성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자비와 지혜의 등(燈)을 여법하게 밝혀 일체중생 모두가 무명을 걷어 내고 자성을 깨달아 인류 전체가 하나될 수 있는 복지구족(福智具足)한 만다라 세계가 이루어지도록 서원합시다.

현대만평

박구원



부처님과 접속하세요

"이웃에 희망과 용기 주자"

관음종 홍파 총무원장



오늘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 부지런하고 책임감 있는 성실한 신뢰받는 세상, 법과 질서를 잘 지키고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 그리고 어려운 이에게 베풀고, 고통받는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믿음과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무지와 탐욕 참회하도록"

총지종 록정 종령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그 분이 우리에게 알리려고 했던 진리를 실천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현실은 모두 우리 스스로 자아낸 것입니다. 우리의 무지와 탐욕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불자들부터 진정한 참회로써 그러한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인류의 파멸을 막을 마지막 방법은 불교 뿐이니 불굴의 용맹정진으로 새롭게 태어납시다.

"선업쌓아 좋은세상 구현"

화엄종 구하 종정



지금 때가 어렵다 할지라도 본심을 더럽히지 않으면 즐거움과 복이 이어질 것입니다. 배부른 자 더욱 배부르고 가난한 자 더욱 가난하여 흘릴 눈물도 말라 마른 눈물을 닦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시 악은 선에 녹는 법, 우리 모두가 선업을 쌓는다면 다시 좋은 세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허공에 뜬 달 뒤집힌 것 아는가
이거알면 세상 바로 보리라!
억!

"봄바람 부니 만물이 생기"

한국법륜종 일화 종정



봄기운 온 대지 위에 가득하므로 만물이 생기를 얻는 것, 어찌하여 이 세상에는 부처님만 오신날인가? 사람마다 평등하여 나고 오며 멸하여 가는 것 당연한 일인데 싯달태자 태에서 나와 동서남북 두루 일곱발씩 걸음마하는 괴짜를 부린 것. 그는 이미 육도인 육범(六凡)을 뛰어 넘었으며 한 손으로 하늘을 가르키고 또한 손으로 땅을 가르키니 인류의 평등한 법을 외치셨도다.

"원통융화 불국토 이루자"

원융종 일공 종정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가정으로부터 사회·국가 내지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원통융화(圓通融和)'되어야 한다. '원통'은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여 도와주는 인도(人道)의 기본 원칙이다. '융화'는 서로 단합하고 도와서 공존공영 하는 공동생활의 규범이다. 만인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새정치, 경제, 사회체제가 재정립되어야 이 사회는 평화롭고 안락한 이상사회가 될 것이다.

2542 Buddha's Birthday

부처님의 자비로 이웃과 함께

대한불교 조계종 **진관사**
주 지 진 관
대중일동
신도일동
■ 서울시 은평구 진관외동 1번지
TEL : 02-359-8410

고려산 불광사
주 지 강자현
신도일동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153번지 미륵선종
TEL : 032-932-8083 FAX : 032-932-8083

대한불교 태고종 **지리사**
주 지 김법일
신도일동
■ 경기도 시흥시 미산동 121-1
TEL : 032-694-2836

대한불교 조계종 **인각사**
신도일동
■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612번지
TEL : 0578-83-1161 FAX : 0578-83-6641

대한불교 조계종 오봉산 **석굴암**
회 주 초 안
주 지 도 일
신도일동
■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교현리 1번지
TEL : 0351-40-3573

무애원 포교당
원 장 설 봉
신도일동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6동 3611
TEL : 02-846-2156

금강경 독송회
지도법사 김재웅
회원일동
■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131-80
TEL : 02-742-0172 FAX : 02-766-9305

관·음·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만의사**
주 지 김성직
사부대중 일동
■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중리 140
TEL : 0339-376-6005, 3690

팔만대장경 판각성지, 사적 259호
대한불교 조계종 **강화 선원사**
조 실 선산큰스님
주 지 성원스님
신도회장 조원태·배발심화 합장
사부대중 일동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지산리 692-5
TEL : 032-933-8234,8834,934-8484

지장기도 영험도량
보현산 **충효사**
주 지 해 공
신도회 일동
■ 경북 영천시 자양면 충효리 660
TEL : 0563-32-8196,6006 FAX : 0563-32-6006

"보시행 민족苦·세계苦 해결"

부처님오신날에 듣는 '북동포 돕기'

IMF시대. 경제적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기아와 질병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 동포를 돕자는 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불기 2542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북한동포돕기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법타스님(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회장), 효림스님(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 법륜스님(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을 통해 불자들이 왜 북한동포돕기에 나서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재확인하면서 각 단체의 현황과 사업방향을 들어본다.

불교계에 있어 북한문제는 86년 평불협 회장 법타스님의 방북을 계기로 관심사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95년 대홍수 이후 북한주민 3백만명 이상이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리자 불교계에 '북녘동포돕기'가 이슈화되면서 본격화됐다. 불교운동본부 발족은 그 단초가 됐다. 이어 97년 5월 6일 창립된 불추위가 평불협, 불교운동본부와 더불어 삼각구도를 만들면서 제 단체들이 선의(善意)의 경쟁 속에 개별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한동포돕기 불교단일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평불협은 남북불교교류의 선봉장으로, 불교추진위원회는 북한 식량지원과 통일정책수립 등 통일시대준비기구로, 또 불교운동본부는 식량지원 및 북동포돕기를 위한 국내외 여론환기작업에 주력하는 등 각 단체별 특성에 맞는 역할분담이 자연스럽게 진행되면서 북한동포돕기운동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각 단체의 북한동포돕기운동은 꽉 막힌 남북관계에 숨통을 트고 남북상호간 신뢰회복을 위한 토대를 다지는 초석이 되고 있다. 또한 부처님오신날을 낮아 불교계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북한동포돕기운동이 들불처럼 번져 따뜻한 동포애적인 자비의 마음을 나누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국평화통일불교협 법타스님은 "북한동포돕기는 중생구제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천하는 의미 이외에도 이산가족 1세대로 추정되는 2백만명 중 생존자 40여만명의 애별리고(愛別離苦)와 평화통일을 이뤄 제3의 세계전쟁을 막는 등 생노병사를 포함한 8고(苦)는 물론 민족고(苦)와 세계고(苦)를 동시에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안이 된다"고 말했다. 또 "너도 나도 경제난을 겪고 있지만 좀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작은 정성이라도 보탤 때 진정한 참보시정신이 아니겠냐"며 불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평불협은 북한 사리원에 금강국수공장 설립을 계기로 본격적인 북한동포돕기에 나섰다. 오는 5월말부터 매월 20톤의 밀가루를 중국업체를 통해 금강국수공장에 제공, 북한 재해지역 탁아소와 인민학교 어린이와 임산부, 조선불교도연맹 회원 등 2천2백명에게 매일 국수를 배급한다.

법타스님은 "금강국수공장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17일 금강국수공장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며 "그 일환으로 은해사를 비롯한 평불협 회원 스님 사찰에서 '불자한등 더 켜기운동'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불협은 사리원 금강국수공장 외에 제2, 제3의 금강국수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법타스님

■ 조국평화통일불교협

매월 밀가루 20톤 금강국수공장에 제공 '한등 더 켜기' 전개

민족화합 불교추진위 오는 5월6일로 1주년을 맞는 민족화합 불교추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효림스님은 "북한교회재건위원회는 95년 당시 북한에 단일교단을 세우기로 합의하고 4월말 10억원의 식량을 북한에 전달하는 등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각 교파의 이해관계를 막론하고 한 뜻으로 북한식량지원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밝히고 "불교계의 북한동포돕기를 위한 인식 및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모금활동을 통한 북한동포돕기는 한계가 있는 만큼 북한주민의 굶주림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마련 및 21세기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통일정책 수립 등 장기적인 통일대책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불교추진위원회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의 직할 기구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불교계 통일기구로 대표성을 띄게 됐다. 이와 관련해 효림스님은 "불교추진위원회는 지난해 주력해 왔던 북한 직접지원사업 외에도 종자와 비료, 농약 등의 지원을 통한 북한 농업생산성 향상, 불교정책 워크샵, 불교지도자 통일포럼의 개최, 통일정책실 운영을 통한 연구사업 등 '준비된 남북통일기구'로서 사업방향을 확대해 불교계에 점진적으로 민족화합을 위한 통일무드를 조성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효림스님

■ 민족화합 불교추진위

종자·비료·농약 지원 북 농업 생산성 향상 통일준비워크숍 정례화

97년 9월부터 3억6천만원을 북한에 전달한 불교추진위원회는 지난 20일 한국적십자사에 1억원을 전달하고 5월 2일 인천에서 북한 남포항으로 출발하는 배편으로 우리나라 밀가루를 조선불교도연맹에 기탁한다. 그 밖에도 불추위는 22일 통일준비를 위한 1차 워크숍을 시작으로 매월 불교정책워크샵을 정례화하고 각 종단, 단체, 사찰 유관사업을 육성 지원하고 대외협력을 강화하는 등 한민족공동체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우리민족돕기 불교본부 불교운동본부는 96년 12월15일 서울역에서 거리모금을 시작한 이래 거리캠페인과 밥한공기 나누기운동, 한끼굶기운동 등을 통해 지속적인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2일 현재 그 모금액이 10억원(9억 8천6백만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어 그 성과가 괄목할 만하다. 불교운동본부는 또 국내 노동단체, 학생단체, 기업, 사찰은 물론 UN과 세계 인권단체를 방문, 강연회와 보고회를 갖는 등 북한동포돕기를 위한 동포애를 이끌어내는데 촌각을 아끼고 있다.

북한동포의 실상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세계무대를 분주하게 뛰고 있는 법륜스님은 "〈백유경〉에는 '독화살을 맞아 죽어가는 이는 무엇보다 독화살을 뽑아 상처를 치료해야 하며, 그 독화살을 맞은 이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을 때 비로소 독화살에 대한 의문을 풀 수 있을 것이다'라는 비유가 있다"면서 "기아로부터 해방을 요구하는 북녘동포들에게는 무엇보다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굶어 죽어가는 동포를 살려내는 일에 모두의 마음을 모으는 일이 가장 경제적인 일이요, 가장 정치적 성공을 거두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법륜스님

■ 우리민족돕기 불교본부

한끼굶기 등 10억 조성 북에 옥수수·분유 지원 북돕기 동포애 확산

불교운동본부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미국 제이티에스(JTS)와 손잡고 매주 나진·선봉의 탁아소와 유치원 1백4개소의 유아 및 어린이 1만 1천여명에게 한 명당 옥수수 2kg과 분유 3kg을 지원하고 있다. 법륜스님은 "북한어린이 후원결연사업은 사회적으로 북한동포돕기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고 모금액이 3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도필선 기자

●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02-735-0559)
국민은행: 006-21-0808-274
농 협: 053-01-237065
(예금주: 금강국수)

● 민족화합불교추진위(02-733-2557)
국민은행: 023-01-0545-234
우체국: 010579-0061322
(예금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 우리민족돕기불교본부(02-3672-5373)
국민은행: 818-21-0197-670
농협: 044-02-086765
(예금주: 최석호)

봉축시론

부처님 오시기 좋은 날

서울 광화문거리. 어느 카페 오후 2시쯤의 풍경하나.

샐러리맨으로 보이는 40대 남자 4명이 왁자지껄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들어와 자리를 잡는다. 시간대와는 어울리지 않게 맥주를 주문하고 잔이 빠른 속도로 몇순배 돌아갔다.

"무슨 즐겁고 기쁜 일이 있는 것일까"

부처님의 첫 깨달음 선언 생로병사 괴로움 직시

그때까지의 분위기와 농섞인 대화로 미루어 누구나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 장면이다.

반시간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 갑자기 한사람이 테이블을 치며 통곡에 가까운 울음을 터뜨렸다. "왜 하필 나냔 말이야?"

또 한사람이 눈물을 흘린다.

당황한 듯한 나머지 동료 두명이 이들을 달래기 시작했다.

자초지종의 설명이 없더라도 왜 두명의 다 큰 남자가 대낮 카페에 앉아 울음을 터뜨렸을까를 짐작 못할 이는 없으리라.

요즘 유행인 정리해고 대상에서 피할 수 없었던 그들이 카페에 들어설 때까지만해도 짐짓 대범함을 보이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맥주의 알콜기가 그들의 인내심을 그냥 둘 리 없다. 그래도 이들은 한번쯤 엉엉 울었으니 잠시나마 속이 편해졌을런지 모른다.



김 징 자
〈언론인〉

"아빠, 낮동안에는 집에서 전화발지 마세요.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테니까요."

중학교에 다니는 막내딸의 철없는 한마디에 울지도 못하고 속으로 아파하고 있을 아버지가 더 많을 것이다. 속으로 앓는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의 마음 또 어떠할까.

분명 이 시대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불행과 괴로움을 감내하며 살아가도록 강요하고 있다.

행복이나 즐거움에 비해 괴로움의 고통은 보다 현실적인 감각을 지니고 있다. 요즘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 '괴로움을 전제로 선택된 사람들'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부처님 첫 깨달음의 선언도 그 괴로움에 대한 직시(直視)에서 나왔다.

태어남과 늙음과 병듦과 죽음의 사고(四苦)가 보다 근원적인 괴로움의 요소이겠으나 중생들이 삶에 부대끼며 겪는 애별리고(愛別離苦) 원증회고(怨憎會苦) 구불득고(求不得苦) 오음성고(五陰盛苦)의 괴로움 또한 하찮은 것일리 없다.

괴로움과 고통의 감각이란 전혀 개인적 체험이며 자기만의 것이어서 남이 대신 아파줄 성질의 것이 아니다. 시정에 나부끼는 '고통을 나누자'는 표어들이 정치적 용어처럼 공허해 보이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부처님의 깨달음인 인연생기(因緣生起)의 법은 "고통은 모두에게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연기의 법은 따뜻하기보다 냉담하다. 개인의 불행이나 즐거움 괴로움 모두가 스스로 만들어 온 것이며 남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내탓'이다. 그러함에도 연기의 법은 또한 모든 존재가 오직 저 하나만으로 성립될 수 없으며 상대적으로 의존하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중중(重重)의 구조로 짜여있다. 남이 아프면 나도 아플 수밖에 없고, 내가 아프면 남에게 그 아픈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연기의 법은 석가세존의 탄생과도 무관하지 않다. 부처님의 탄생은 우연의 결과가 아니며 수억겁에 쌓여진 정진과 선행으로 이루어졌다. 〈자타카〉는 그 엄청난 부처님탄생 인연을 기록하고 있다.

부처님은 억겁속에 반복되는 수많은 생을 통해 때로는 왕으로 때로는 상인, 수행자 환금털을 가진 세 토끼 원숭이로도 태어나 보살행을 끝없이 걸쳐보였다.

인간의 고통 他力아닌 스스로 끊는 길 열어야

석가모니가 이 땅에 부처님으로 오시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 삼계개고 아당안지(三界皆苦 我當安之)"라는 탄생게를 내놓을 수 있었던 인연의 쌓임이 아닐 수 없다.

이 세상의 가장 존귀한 몸으로 태어나 삼계의 괴로움을 모두 씻어 없애겠다는 약속, 그것은 인간의 고통을 타력(他力) 아닌 인간 스스로 끊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일이었다.

진정 이 시대는 부처님 오시기에 좋은 때다.

부처님오신날

부처님의 자비로 이웃과 함께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 본사
설악산 신흥사
회 주 무산 오현
주 지 김 도 후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70번지
전화 : 0392-636-7044/7393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
조 실 비 룡 대종사
회 주 인 허 대종사
주 지 현 해 대종사
대 중 일 동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63번지
전화 : 0374-32-6661,2,4,5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 본사
법주사
주 지 혜 광
부 주 지 무 상
총 무 운 성
교 무 현 우
재 무 보 광
사 회 원 담
포 교 석 담
호 법 황 석
▶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209번지
전화 : 0433-43-3615
팩스 : 0433-43-3620

대한불교조계종 제9 교구 본사
팔공산 동화사
조 실 진 제
주 지 무 공
선 원 장 진 허
총무국장 성 호
교무국장 각 정
재무국장 오 정
사회국장 선 종
포교국장 지 도
호법국장 법 현
▶ 대구시 동구 도학동 35번지
전화 : 053-982-0101~2
985-4404
팩스 : 053-985-4405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 본사
불국사
주 지 應然 鳥兆
부 주 지 성 천
기 획 종 근
교 무 정 문
사 회 정 견
포 교 성 형
호 법 혜 원
▶ 경북 경주시 진현동 15번지
전화 : 0561-746-9913



'캄' 텝퐁스님 초파일 맞아 방한

캄보디아 최고 불교지도자 텝퐁스님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조계종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24일 오전 내한한 텝퐁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예방했다. 월주스님은 스님은 "부처님 오신날을 축하하기 위해 내방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캄보디아가 안정될 수 있도록 스님의 지도력을 발휘해 달라"고 말했다. 텝퐁스님은 "7월 20일 새정부 구성을 위한 선거가 끝나면 캄보디아는 안정될 것"이라며 "선거이후 월주스님을 초청하고 싶다"고 답했다. 텝퐁스님은 5월 1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동국대 중앙승가대 등 교육기관과 유명사찰을 방문할 계획이다.

"복지사업·인재양성에 주력"

진각종 새 종의회의장 휴명 정사



진각종은 22일 스승총회에서 37명의 제10대 종의회 의원을 선출한데 이어 종의회 의장 선거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종의회 의장에 선출된 휴명정사는 "예기치 않은 일이라 당혹스럽다. 그러나 의장 소임을 맡게 된 이상 교도들의 중의를 모아 좋은 제도를 세우고 종단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우리겠다"는 말로 소감을 대신했다.

75년 진각종 통리원 재무부 근두를 시작으로 회당장 학회, 재무부장, 중앙교육원 교육부장, 교법부장, 사서실장 등 종단행정을 두루 거친 휴명정사는 "종단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포교와 사회에 봉사, 기여할 수 있도록 종의회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유도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또 "종단 역사 반세기를 맞아 인재양성을 통한 종단 내실 다지기와 바람직한 종단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필선 기자

"교사불자·청교련 연계 활동강화"

파라미타 새 사무총장 법경 스님



"앞으로 2~3년 간은 체계적인 조직정비를 위해 전국 교사불자들과 연계해 청소년 조직 활성화 방안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파라미타 사무총장으로 17일 임명된 법경스님(포교원 연수국장)은 파라미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조직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스님은 "예산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총무원이나 포교원 등에 요청을 할 수도 있다"며 "전국적인 지부지회 조직이 우선해야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청소년교화연합회와도 연계해 청소년 포교의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법경스님은 "재정확보를 위해 전국 각지 사찰 및 단체에 파라미타의 위상과 청소년 포교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지연 기자

교차로

국난극복 기정안녕 기원



무공 팔공산 동화사 주지는 5월1일 오전10시 대웅전에서 일만등 광명불사 회향 및 국난극복과 가정안녕 기원법회를 봉행한다. (053)982-0101

안양교도소 재소자 위문



동광 도선사 주지는 24일 안양교도소를 방문해 수계법회를 봉행하고 4천여 재소자들에게 빵과 음료수를 제공했다.

'불교적 태교' 주제 강연



성우 파계사 주지는 28일 개원 2주년을 맞은 대구 지장선원(주지 지공) 법당에서 "불교적 태교의 재조명"을 주제로 강연회를 가졌다.

불우노인 초청 경로잔치



종본 성북구 불교사암연합회장 스님은 17일 성북구민회관에서 관내 불우노인 5백여명을 초청, 봉축법회 및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세계 불교 웅변' 전북대회

범여 네장사 주지는 19일 제28회 세계불교도 법륜기 수여 웅변대회 전북대표 선발대회를 네장사 해운당에서 거행했다.

경승실 봉사지등 표창



혜광 국립경찰병원 경승실장 스님은 30일 6시30분 직원불자 법우회 회원 박무식(총무계장) 신동민·윤애영(자원봉사자) 등에게 각각 감사패와 봉사상을 수여했다.

원효성사 1312주 추모재



김영태 원효학연구원 원장은 25일 경주 분황사에서 '제1312주기 원효성사 봉찬대재'를 봉행했다.

종암경찰서 경승에



수성 진각종 재부부장(신촌심인당 주교)과 지현 진각복지회 사무국장은 23일 종암경찰서 경승으로 위촉됐다.

알뜰장터 개설

이근우 청담종교 교장은 29일부터 5월1일까지 교내에서 '아나바다 운동'의 일환으로 알뜰장터를 개설한다.

선문화대 서울분교 개원



김덕수 대한생활불교회 이사장은 22일 성북구 장위동 영건빌딩에서 선문화불교대학 서울분교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동선동에 보현정사 개원



백승진 법사는 18일 서울 동선동에 보현정사를 개원하고 주지 법사로 취임했다. (02)927-3301

이봉주 한국新 영광뒤엔 모친 불공이…





지난 19일 네델란드 '98로테르담마라톤대회'에서 2시간7분44초라는 기록으로 새로운 한국신기록을 세운 이봉주선수의 영광뒤엔 감동스런 모정불심이 있었다.

"늘 부처님께 봉주가 아무 사고없이 최선을 다하도록 가피를 내려주길 기원했다"는 이선수의 어머니 공옥희보살(63·충남 천안시 성거읍 소우리).

공보살은 이번에도 로테르담에 있는 아들을 위해 매일 아침 저녁 그의 빈 밥그릇에 정수를 가득 채우고 부처님께 승리를 발원해 왔다.

농사일하는 틈틈이 집 근처의 암자를 찾아 불공을 올린다는 공보살은 "봉주의 힘든 모습을 볼 때마다 더욱더 열심히 부처님께 의지했다"고 이번 쾌거를 부처님의 가피로 돌렸다.

"보왕삼매론은 사랑의 매"

부처님오신날 화제의 인물

佛書에 반한 기독교신자 이상훈 교수



"지각을 하다니…〈보왕삼매론〉 10번 써 제출해."

"아니 컨닝을 해? 안되겠군, 〈보왕삼매론〉 20번 써내."

"침을 함부로 뱉다니, 〈보왕삼매론〉 2번써서 연구실로 가져와."

이쯤되면 불교대학에서나 있음직한 교육방법으로 알아듣기 십상이다. 혹시 불자교수쯤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니다. 독실한 기독교인 교수의 교육비법이다. 그래서 '보왕삼매론 교수'로 통하는 이 주인공은 수원대 환경공학과 이상훈교수(49세).

이교수가 처음 〈보왕삼매론〉과 인연지은 것은 91년 수원대에 함께 부임해온 같은학과 장지연교수(42세)의 연구실에서 두루말이로된 〈보왕삼매론〉을 처음 발견하고부터다. 교리와 수행을 겸비한 독실한 불자 장교수의 방에서 그 숱한 불서 가운데 유독 둘둘 말려있던 〈보왕삼매론〉을 펴읽으며 감동을 받았던 것. 당장 〈보왕삼매론〉을 표구해서 학과사무실 벽에 걸었고, 인쇄해서 수십장을 서류봉투에 넣고 다니면서 수업시간에 경고 채찍으로 사용했다.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서 무례하거나 공중도덕에 어긋날때는 가차없이 '보왕삼매론 채찍'을 가했다. 특히 학기 초, 지나치게 수업분위기가 소란할 경우 〈보왕삼매론〉을 2번씩 쓰게하고 그것을 출석부로 대신하곤 했다.

〈보왕삼매론〉을 1번 쓰는데는 족히 15분이 걸린다. 2번씩도 30분…쓰다보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교수의 지론.

"8년여 이 교육방법을 사용하지만 종교적으로 항의하는 학생은 없었습니다. 내가 알려진 착실한 기독교인인데다, 〈보왕삼매론〉을 강제로 쓰게한다고 해서 종교운운할 소지가 전혀 없는 진리니까요. 간혹 불평하는 몸짓을 보일때는 '보왕삼매론 10항'을 강조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그러면 두말없이 써냅니다."

8년째 학생에 '사경' 과제
환경강의땐 '무소유' 활용

이교수의 소문난 교수법의 또하나는 교양과목 '환경과학'강좌에 법정스님 저서 〈무소유〉의 독후감 과제. 전공학생들에게 〈무소유〉독후감은 필수이다. 91년부터 실시해온 교수법이니 〈무소유〉를 읽은 학생만도 적게잡아 3천여명에 이른다는 계산.

"불교는 환경친화적인 종교입니다. 불살생 무소유 정신 등이 환경문제의 대안이라는 것이지요. 오염물질에 대한 사후처방 보다는 근본적으로 생활방식을 바꿔 오염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으로 세계환경학회도 불교사상 노장사상에 눈돌리고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환경교육의 기초필수로 〈무소유〉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훈교수의 독특한 교수법은 교단에 신선한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위영란 기자



수요 인터뷰

문화관광부 신낙균 장관

"사찰문화재 보수 지원확대"

-17일 대통령에게 문화부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관광흑자를 위한 특별대책안을 밝히셨습니다. 사찰이나 불교유적지들이 중요 관광자원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한 계획도 포함되었는지요.

▲불교문화재 보수를 위한 정부지원을 절차 확충해 나갈 것이며 사찰의 수행환경 보호를 위해서도 힘쓰겠습니다.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의 일환으로 불교계가 추진하고 있는 전통등 재현 전시 및 연등축제도 훌륭한 관광자원이라 생각합니다. 외국인이 발우공양 의식 체험 프로그램과 범패 승무등도 자랑스런 우리 문화유산으로써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자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족문화유산의 보존과 발굴 작업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등 행정 추진과정에서 소홀히 대한다는 느낌을 주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문화재 관리업무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백제 신라 가야등 전국 7개 문화권 유적종합정비 5개년 계획을 세워 금년부터 2002년까지 1천 8백 11억을 투입해 경주 황룡사지등 52건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정권에서는 종교편향 정책의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교계 국난극복노력 감사
큰스님 의견 정책 반영
종교편향시비 사전차단

▲공정한 정책수립및 집행을 통하여 종교간 편향 시비를 사전에 불식하고 종교간 상호 이해와 화합을 도모하는 한편 공정한 조정자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종교예술제, 종교지도자세미나 등 범종교화합및 종교간 연합 활동도 적극 지원하고 종교간의 대화기회를 주선 장려하여 종교화합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불교계 일부에서는 장관님이 신학을 공부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는데 종교관은 어떠십니까.

▲저는 학창시절 신학을 전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종파를 가리지 않고 개방적인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임 후 두달동안 여러 종교의 지도자들을 만나 좋은 의견을 경청하고 종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연태 기자

2542 Buddha's Birthday
부처님오신날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종

종정 영산 일공
종정사서실장 임체관

■원로원
원장 황법운
위원 최법신
위원 박송산
위원 김재령
위원 정선명
위원 박효계
위원 현천호
위원 박원담
위원 한원각

■승정원
원장 송보인

■종의회
의장 조성관
부의장 김인관
위원 차성인
위원 이정광
위원 류무송
위원 손지관
위원 김체의
위원 우명허
위원 엄선덕
위원 김진연
위원 정혜암
위원 양체정

■종무원
총무원장 대행 겸 부원장 최법륜
총무부장 장체승
총무국장 이체인
재무부장 박대월
사회부장 임보광
사업부장 구성도
사업국장 강체도

■포교원
원장 조성견
부장 주체법

■교육원
부장 이체원
국장 이진운

■규정원
원장 민성운
국장 박체성

■문화원
원장 김선진

인천종무원장 장체승
경기종무원장 차성인
충남종무원장 김체의
전남종무원장 이정광
경북종무원장 손지관
강원종무원장 류무송
제주종무원장 한진성

종립 동원불교대학 학장 김법장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종 종정 영산 일공 합장

■ 서울시 구로구 구로2동 704-39 ■ TEL: : 857-5094 ■ FAX : 859-1042

우리 모임에선

정각회 새 회장 선출논의

국회정각회(회장 서석재의원, 국민신당)는 21일 국회귀빈식당에서 의장단 회의를 갖고 새회장 선출일정과 방법을 확정했다. 회의에서는 6월4일 지자체선거 이후 의장단회의를 거쳐 총회에서 합의추대형식으로 새회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현재 정각회 새회장에는 집권여당에서 회장을 맡았던 관례에 따라 박상규 국민회의 부총재가 거론되고 있다.

제주운불 불자 할인 안내

제주불교운전기사회(회장 고승학)는 초파일을 맞아 제주를 찾는 불자들에게 20% 할인된 비용으로 제주지역 불교성지및 관광지를 안내한다. 특히 음식점과 숙박호텔의 경우도 불자의 집을 연결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친절봉사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신혼및 가족, 단체모임이며 불교운전기사 회원들이 직접 안내한다. (064)510-108

우리는선우 자비등 점등

우리는 선우(공동대표 남지심 · 박광서)는 20일 서울장충공원에서 '자비의 등' 점등법회를 봉행했다. 지도법사 본각스님과 남지심 공동대표를 비롯하여 6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1천5백개의 '자비의 등'을 장충공원에 밝힌 우리는 선우는 '석가모니불'을 정근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와 희망이 가득하기를 발원했다.

금강경독송회 선열천도

금강경독송회(지도법사 김재웅)는 19일 경북 상주 충렬사에서 5백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란순국선열 천도대법회를 가졌다. 이날행사는 금강경독경과 미륵존여래불 정진, 천도해탈 발원, 김재웅법사의 법문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금강경독송회 회원들은 몸도 마음도 닦지못한 영가들을 위해 보시금을 모았다. 이 보시금으로 쌀을 구입하여 북한동포에게 보내 영가들에게 복을 짓게 해주기로 했다.

법륜회 장애인 차량봉사



부천법륜회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18일 덕유사회복지관이 개최한 '한마음 한뜻' 행사에 참가하여 차량봉사했다. 경복궁과 용산가족공원에서 열린 이날 야유회에서 법륜회원들은 장애인 17명의 휠체어를 밀어주며 장애를 간접체험하기도 했다.

청년불자 38% "뚜렷한 수행법 없다"

청년불자 10명중 4명은 뚜렷한 수행을 하지 않고 있으며, 젊은 불자들의 신행활성화를 위해 대한불교청년회의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대불청서울지구(지구장 최윤선)가 산하 청년회 회원 186명을 대상으로 개인적 종교생활, 소속 청년회의 문제점, 사회참여 등과 관련된 46개 항목 설문조사에서 분석됐다.

◇선호 수행법



◇추진사업 우선순위

①포교 · 홍보
②조직강화
③교육 · 훈련
④재정확보
⑤사회참여
⑥불교지키기
⑦회관건립

대불청 서울지구 회원 186명 설문

절 · 참선 · 교리공부順 선호

"계율 현실에 맞게 고쳐야" 67.7%

이 조사에 따르면 청년불자들의 선호하는 수행법은 절(20.7%) 참선 · 교리공부(각각 12.4%) 염불 · 독경(각각 8.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응답자 37.9%는 특별한 수행법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청년불자들이 절 · 염불 · 독경 등 복전(福田) 사상에 기반한 신앙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응답자들은 회원교육의 미흡(66.5%), 법회 참여의식 부족(70%) 사회활동 미비(74.7%) 재정기반 미흡(76.2%) 등을 청년회 내부 문제으로 지적했다. 청년회가 추진해야 할 7가지 사업의 우선순위는 포교홍보, 조직강화, 교육훈련, 재정확보, 사회참여, 불교 지키기, 회관건립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회원들의 대부분은(83.5%) 청년회 활동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회비와 상관없이 보시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도 '불자로서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중 불교계 사회단체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사회참여' 순위가 상당히 낮게 나타났으며 사회문제에 참여하더라도 '종교단체 역할을 넘는 것은 안된다'는 응답이 55.4%(103명)로 과반수를 넘었다.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문제는 도덕성회복(22.1%), 사회복지(17.1%), 민족문화 살리기(16.3%), 청소년 포교(13.3%), 환경보호(1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청년불자들은 현대사회에 어울리지 않는 계율은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응답자중 67.7%는 현실에 맞지않는 계율은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고 12.4%는 계율준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반면 모든 계율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응답은 14.7%에 그쳤다.

오종욱 기자

"마음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

광주교사불자모임 무등산서 환경축제

1500여학생 동참…백일장도 열려

광주불자교사모임(회장 김진택)은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하여 5월 10일 무등산 증심사 일대에서 '마음청정 국토청정'을 주제로 환경정화활동을 펼친다.

광주불자교사모임 회원 1백여명과 50개교 불자학생 1천5백여명도 참석할 예정인 이날 행사는 1부 입제식에서 대둔사주지 천운스님이 법어한다.

이어 무등산 증심사 약사사 주위에서 대청소활동을 5시간 동안 실시할 계획이다. 참가학생에게는 봉사활동 확인서와 기념품이 제공된다. 특히 행사용 캄플랫을 불교교리문답서로 만들어 학생들이 항상 휴대할 수 있도록 했다.

회향식에서는 초 · 중 · 고등부 환경백일장 공모전이 열리며 운문부와 산문부 그리기 시상식도 개최하여 1천6백년 불교역사와 문화를 청소년들에게 전수토록 할 방침이다.

김진택회장(전남여상 교사)은 "불교 본래의 정신을 통해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와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행사를 마련했다"며 "제1회 광주 · 전남불교 청소년 환경대축제가 사찰환경과 불교문화재 보호에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월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성타스님(조계종 포교원장)을 비롯하여 현지(광주불교사암연합회장) 영조(광주불교교육원장) 혜원(한마음선원 광주지원장) 행법(선덕사주지) 명진(연화사주지)스님등 지역스님들과 광주불교능인회 광주불교금붕회 광주불교산악회원들이 동참하여 청소년들과 쓰레기를 줍게된다.

김원우 기자

탐방 국방과학硏 성불회

"국방의 지혜 불교서 배워요"

91년 창립…군법당 건립 모금

'생활속의 불법수행' 교재로 공부



4월21일 12시 점심시간. 대전국방과학연구소(회장 윤동수 책임연구원) 1백여명의 연구원들이 마음의 점을 찍기 위해 복지관 2층 제3강의실로 모인다.

삼귀의를 시작으로 법회가 열리고 지도법사인 강보승법사(계룡대군법사)의 법문이 시작된다.

"우주만물은 서로 인연이 되어 상의상관관계에 있음으로 우리는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지요. 유기적인 관계를 생각하여 항상 조화와 통일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법문이 끝난후 회원들은 법계연기론에 기반한 현실상황을 설정하여 토론을 벌인다. 오늘의 주제는 '동료에게 왜 어려움이 닥쳤을까?'. 회원들은 나름대로 연기설에 입각하여 문제를 풀어본다.

91년 6월 창립된 대전국방과학연구소 성불회는 매주 화요일 연구소 강당에서 이렇게 법회를 열고 있다.

성불회는 불교공부에 역점을 두고 불교기초지식부터 다함경 금강경 화엄경까지 체계적인 학습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초파일을 맞이하여 생활불교의 이해를 위해 대행스님(한마음선원 원장)의 '생활속의 불법수행'을 공부하기로 했다. 주말을 이용한 철야정진과 사찰순례, 2박3일 정진수련대회 등도 열심이다. 또 성불회 내에는 군법당 불사금을 마련하기 위한 모임과 사회봉사활동하는 소모임들이 활동중이어서 불교의 사회화운동에 한몫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윤동수회장은 "부처님 법을 배우고 서로의 마음을 깨어있게 해주는 도반들의 의견에 귀기울여 새롭게 변신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국방과학연구소에 지혜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올곧게 정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송광사 보성스님 방장추대법회

조계총림 송광사(주지 현고)는 22일 제5대 방장 보성스님 추대법회를 봉행했다. 통도사부방장 청하, 조계종 종회의장 설정스님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성스님은 "계의 그릇이 흔들리는 곳에 선정의 물이 흐려지니 지혜의 달은 흐린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 모든 불자들은 선정과 지혜를 부지런히 닦아서 불과를 증득해 불존의 은혜를 갚으라"고 설법했다.



경주남산 세계유산등록모임 발기

경주남산 세계유산등록 촉구를 위한 시민모임은 23일 경주문화원에서 발기대회를 가졌다. 돈관(한국불교사회연구원장) 스님, 장충식 동국대 교수를 비롯 경주문화원, 경주불교청년회, 향토연구교사모임 등 28개 단체 60여명이 발기인으로 동참, 권오찬 경주문화원 원장을 시민대표로 추대했다. 동모임은 앞으로 세계유산 등록을 위한 서명운동, 경주남산 사랑의 날 행사, 남산 문화유적의 중요성 홍보 등의 사업을 벌이게 된다.



법사종 경제회복 기원법회

법사종(총무원장 성순경)은 17일 서울 올림피아호텔에서 나라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기원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동국대역경원장 월운스님, 대한불교종정협의회 회장 이대산스님, 한국불교교화원 이외윤 총재, 김명륜 국회의원, 오형근 前 동국대 교수, 임창렬 前 경제부총리, 홍두표 前 KBS 사장, 박홍신부(서강대 前 총장)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했다.



소쩍새마을 장애인 체육대회

제18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체육대회'가 20일 승가원 원주 소쩍새마을에서 장애인,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스님 등 4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치러졌다. 이날 체육대회는 장애인들이 재활의지를 다지고 지역주민들과 사랑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 장애인들은 자원봉사자, 지역주민들과 축구, 줄다리기, 릴레이 등의 경기와 게임을 하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부처님의 자비로 이웃과 함께

국회 정각회

회 장 서 석 재
부 회 장 하 순 봉
박 상 규
구 천 서

회 원 일 동 합장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16호
TEL : 02)784-3280

부처님의 자비로 이웃과 함께

護國懺悔祈禱道場

三角山 道詵寺

주 지 차 동 광

대 중 일 동
신 도 일 동

■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264번지
TEL : 종무소 02-993-3161~3, 주지실 02-993-5002
FAX : 02-993-3164

초파일(5월 3일) 각 방송사 특집

방송사	시간	프로그램	내 용
불교TV	08:30	특집다큐 성인이 된 신라왕자	지장보살로 추앙받는 김교각스님의 일대기 조명
	09:20	특집대담 부처님의 지비로 이웃과 함께	김수환추기경, 강원용목사 등 타종교인사들의 봉축메시지
	10:50	특집다큐 진리의빛 석등	전국 사찰의 석등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설명
	11:40	오감순 창작관소리 부처님전	석가세존의 탄생에서부터 구도, 득도, 중생구제의 길을 관소리로 묘사
불교방송	08:25	특집기획	몽국대 역경원장 원은스님과 함께 부처님께서 이 땅에 나투신 의미와 재가불자의 마음가짐을 알아본다.
	16:05	관소리로 듣는 부처님 일대기	안성 도안사에서 열린 명창 안숙선씨의 부처님 일대기 완창 녹음방송
	23:05	한국의 영화감독	불교영화를 제작한 영화감독을 시대별, 특징별로 소개하고 그들의 작품세계와 에피소드 등을 듣는다.
(대구)	15:05	초청대담 불교인권위 진관스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수감됐다 사면된 진관스님을 초청 우리나라의 인권문제를 논의한다.
	16:05	봉축 대구경북 불교합창제	대구시민회관에서 개최되는 불교합창제를 방송한다.
KBS1	09:05	특집다큐 불바다속에 핀 연꽃	국난 극복속에서 피어낸 대장경 판각작업을 인이로 재구성,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를 모색 본다.
	10:00	봉축법요식 실황중계	조계사에서 개최되는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20:00	임요스페셜 '달랍살라' 을 가다	달라이라마가 있는 티벳의 달랍살라을 찾아간다
	23:05	명화극장 '리틀붓다'	베르톨루치 감독, 키아누 리브스 주연
SBS	12:10	특선영화 카루나	이일복 감독, 조정현 옥소리 김정훈 주연
	16:00	특집다큐 '7만㎞ 대장정 왕오천축국전을 찾아'	실크로드의 길을 따라가며 혜초스님의 발자취을 소개
MBC	06:45	고은의 티벳기행 '수미산'	고은시인의 눈에 비친 티벳불교의 생생한 현장
	10:00	봉축법요식 실황중계	한국종단협의회에서 개최하는 봉축법요식 생방송
	23:00	특집다큐 '만행'	현각스님의 가슴정 만행을 통해 깨달음의 세계을 얻어가는 과정을 그렸다.
대구MBC	08:10	토요매거진 '거조암 나한신앙'	거조암을 찾아 나한신앙과 보조국사 지눌스님의 정혜결사에 대해 알아본다.
	(5/2) 07:10	특별대담 '북녘의 미륵'	법타스님이 북한불교와 사찰에 관해 들려준다.
EBS	09:30	특집다큐 달마이야기	달마대사의 생애와 한 · 중 · 일에 미친 영향
	12:40	임요특강 불상, 시대정신의 산물	불상양식의 특징과 변천과정, 시대정신 등을 최완수 간송미술관 연구실장의 강의로 알아본다.
	19:10	TV인생노트 남원 실상사주지 도법스님	귀농학교를 마련한 실상사주지 도법스님의 인생관과 더불어 수도자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어본다.
PSB	19:00	특집다큐 '혜안을 찾아서'	고난의 이 시대 '혜안'이 갖는 의미 전달
Q채널	10:00	특집다큐 멕시코에 피어나는 연꽃	한국에서 건너가 30여년동안 멕시코에서 한국불교를 포교하고 있는 삼우스님의 활동을 조명
평화TV	14:40	특별대담 평화응접실 '원주스님'	원주 조계종 총무원장과의 대담을 통해 총교간 화합과 부처님오신날의 참의미를 알아본다.
아리랑TV	14:10	특집다큐 만행	현각스님의 만행을 통해 깨달음의 세계을 얻어가는 과정을 영상화한 로드 다큐

부처님오신날 볼만한 프로그램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각 방송사마다 초파일특집 영화, 다큐멘터리, 특집대담, 관소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고 있다.

IMF시대 탓인지 재방송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 아쉬움을 주는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이 MBC-TV의 '고은의 티벳기행, 수미산'과 '만행'이다.

5월3일(오전 6시45분~8시) 방영되는 '고은의…'는 불교의 우주론에 나오는 성산중의 하나이며 티벳인들의 가치관과 삶을 철저하게 지배하는 수미산의 의미와 종교적 체험을 기행형식으로 조명한 것.

이 프로그램은 수미산을 종착점으로 정해 그곳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세계최대의 티벳 사찰인 '트래풍 사원'의 불교의식과 학승들의 생활상, 미답의 땅 창탕고원의 자연들, 전설의 중세왕국인 '구개왕국' 등도 소개돼 마치 고은시인과 함께 티벳을 순례하는 듯한 실감을 준다.

또한 티벳의 고도 장채의 팔초사원에서 신라승려 혜초의 조각상을 찾아내는 장면은 천년의 세월을 훌쩍 뛰어넘게 만들며 티벳인들의 환생자 확인과정과 즉위식, 5천m 이상의 고원에만 서식한다는 전설의 동물 '캉', 수미산 순례자들이 몸을 씻는다는 마나슬로바호수 등도 보여준다.

같은날 아리랑TV(오후2시10분~11시20분)와 MBC-TV(밤11시~12시)에서 방영되는 '만행'은 미국 하버드대학 출신인 현각스님이 불교전통 수행방법의 하나인 가을철 만행을 통해 한국불교의 선세계와 깨달음을 추구하는 과정을 영상에 담았다.

한편 부처님의 탄생에서부터 열반까지의 일대기를 구성진 관소리가락으로 묘사한 '오갑순 창작관소리 부처님전'(불교TV, 오전11시40분~낮12시30분)과 안숙선 명창의 '판소리로 듣는 부처님 일대기'(불교방송, 오후4시5분~오후6시) 등은 언제들어도 가슴속을 잔잔히 적셔준다.

또 SBS-TV는 3일 오후 4시에 방영하는 '7만㎞ 대장정 왕오천축국전을 찾아'를 통해 실크로드를 따라가며 구법의 길을 걸었던 혜초스님의 발자취를 소개한다.

■ MBC -TV '고은의 티벳기행…'
수미산의 의미 조명

■ 불교TV - 오갑순씨 BBS - 안숙선씨
판소리 부처님 일대기 '열창'

■ SBS-TV '…왕오천축국전을 찾아'
혜초스님의 구법 발자취



◇ '고은의 티벳기행, 수미산'의 한 장면. 눈덮인 산봉우리가 히말라야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수미산이다.

김주일 기자

전시 소식

이태승 첫 '불화전'
28일~5월8일 불일미술관

이태승교수(용인대 회화학)가 5월8일까지 불일미술관에서 첫 불화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서는 '수월관음도' '관경변상탱' '천수천안관세음보살도' 등 전통기법에 충실하면서도 섬세하게 표현한 대작 불화 8점을 볼 수 있다. 특히 가로 108m 세로 4m의 오백나한도는 전형적인 산수화와 인물화 기법을 응용한 대작이다. (02)733-5590

황영성 '가족이야기전'
5월6일까지 갤러리현대등

중견화가 황영성씨(조선대 미술대학장)가 오백나한과 돌무덤에서 영감을 얻어 구상한 근작전시회를 열고 있다. 5월 6일까지 갤러리 현대(02-734-8215)와 박영덕화랑(02-544-8481)에서 1백여점을 선보이고 있는 황씨는 소 꽃 나비 물고기 집 탑 등 일상의 소재에서 나온 여러 이미지를 단순화시켜 중복배치함으로써 하나의 커다란 격자무늬를 이루는 조형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중은 가요를 통해 포교에 적극 나서자고 강조한 남국인, 지원스님, 한인식 · 진송남부부(왼쪽부터).

좌담 "가요통한 포교나서자"

지원스님-남국인씨-진송남 · 한인식부부

지원스님(서울 삼보사 주지)의 작사에 남국인씨가 곡을 붙이고 진송남 한인식 부부가 노래한 '큰 사랑' CD와 카세트테이프가 나왔다. '큰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표현한 트로트가요로 부처님의 대자대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천수천안관음송가' 전국 순회공연을 가진 바 있는 지원스님과, 트로트가요 작곡가 남국인씨, 제3대 불자가수회장을 역임한 진송남 한인식 부부가 17일 삼보사에 모여 '큰 사랑' 출시를 계기로 가요를 통한 불교포교에 대해 좌담을 가졌다. 좌담의 내용을 요약해 싣는다. 〈편집자 주〉

"노랫말로 선율로 대중교화"

지원스님=은혜의 부재시대에 살다보니 사회가 점점 각박해지고 포악해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특히 청소년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가 어찌 형제 친구 이웃 사회 국가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 恩'자를 보면 원인 因자 밑에 마음 心자를 썼지요. 그 원인을 생각하라는 것이지요. 요즘 범죄가 늘어나고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원인도 은혜에 대한 근본 이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남국인=스님께서 일반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보다 철저한 대중가요이기를 요구해 고심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반응이 좋습니다.

진송남=노래를 취입할 때 저의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 안 좋을 때라 눈물을 흘리며 불렀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조건없고 한량없고 한없이 깊고 넓지요.

지원=16년전 도시로 나와 대중포교를 할 때부터 합창단을 조직해 포교활동을 했는데 불법을 쉽게 표현한 찬불가를 불자들만 듣고 부르고 하는 것이 참 아쉬웠습니다. 30분, 40분 하는 법문보다 3분 찬불가가 어느 때는 더 가슴에 와 닿는 사례들을 보고 노래포교의 영향력이 대단한 것을 느꼈지요. 그러므로 꼭 찬불가다, 찬불가요다, 찬불가곡이다 등 그러한 말을 붙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일반인들이 좋아하는 가요형식으로 만들어 대중속으로 파고 들어 공감대를 얻어야 합니다.

한인식=예전에 크게 히트한 '부모' '타타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님이시여' 등 가요들도 불교라는 말은 하나도 없지만 전반적으로 불교적 내용의 노래이지요. 이러한 노래가 히트하면 그 가사의 메시지가 사회속으로 퍼지는 것이지요.

지원=대중들이 찾아올 것을 바랄 것이 아니라 찾아가야 합니다. 요새는 중생들이 전반적으로 근기가 낮기 때문에 손에다 쥐어주어야 하는데 대중속으로 파고들기 제일 쉬운 것이 가요입니다. 이렇게 대중문화를 포교와 연결시키는 것이 불교대중화의 한 관건이라고 봅니다.

남국인=우리나라 상당수의 어머니나 할머니가 원래 불교신자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은 잠재적인 불자들이 많으리라 봅니다. 이들의 심금을 울리는 노래가 많이 나와야 합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때는 노래가 시름을 달래줄 수 있지요.

진송남=요즘 가요들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이예요. 깊이있게 감동을 주는 노래가 별로 없어요. '큰 사랑'이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침체된 사회분위기를 쇄신시키면서 온 국민이 애창하는 '국민의 노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리=이경숙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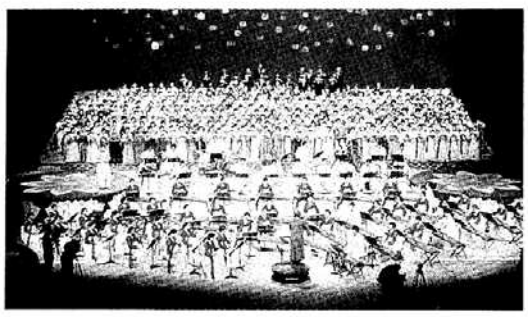
■ 국악교성곡 '용성' 감상記
'대각사상' 기린 무대 관객들 흥겨운 감동

근세 한국불교의 대 선지식이며 삼일운동을 이끈 독립운동가, 또 창작찬불가의 원조인 용성스님이 흥겨운 국악교성곡으로 되살아났다.

23~25일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국립국악관현악단(단장 박범훈)과 7백여 연합합창단의 연주로 발표된 '용성'(도문스님 대본 목정배 사, 박범훈 곡)은 우리 고유의 국악선율과 감각적인 무대연출이 잘 어우러진 봉축한마당이었다.

서가(序歌)는 고음으로 시작 다소 불안했지만 '용성'은 △탄생 △어린 시절 △출가 △예불 △시련 △삼일운동 △나라는 어디가고 △대각운동 △깨침이여 밝음이여 △불타성지 가꾸어가세 등 10장으로 나뉘어져 각 장마다 명창 안숙선 김성녀씨, 유희성씨의 노래와 이를 받쳐주는 합창으로 용성스님의 생애를 드라마틱하게 고조시켰다. 특히 무대위에 4개의 연화좌를 마련, 각 장면마다 그에 맞는 시각적인 볼거리를 연출해 마치 뮤지컬을 보는 듯한 흥겨움을 주었다. 출가후 수행과정은 법현 월타 효성스님 등 영산재 이수자스님들과 국악예술단이 범패와 작법무로 표현했고 '대각운동' 부분에서는 용성스님이 풍금을 타며 스님이 작곡한 '왕생가'를 어린이들에게 가르치는 모습이 실제로 연출되어 한층 감동을 높였다.

박범훈 단장의 신들린듯한 지휘로 1시간 30분동안 연주된 '용성'은 최근 대형불교음악 공연이 부재한 가운데 나온 불교음악연주회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 뿐 아니라 단순히 듣는 음악에서 벗어나 현대인들의 감각에 맞는 보는 음악이라는 새로운 모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숙〉



◇시각적인 볼거리 연출이 음악적 감동을 높여준 창작국악교성곡 '용성'. 7백여명의 연합합창단이 용성스님의 대각교운동을 찬탄했다.

제25차 전국 어린이지도자 연수회

"크게보자 · 달리자 · 탁트인 세계로"

일시 2542년 6월 6일(토)~7일(일) **장소** 속리산 유스타운 신관 (법주사 입구)



● 모시는 글

반갑습니다.
미래 불교의 희망인 어린이 불자들을 위해 한결같은 보살행을 행하시는 지도자 여러분!
제25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를 속리산 유스타운(신관)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수회는 경제가 어려운 시대상황을 감안하여,
첫째, 실정에 맞는 여름불교학교의 준비 · 운영으로 사찰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둘째, 다양한 형태의 불교학교프로그램을 개발 제시하고
셋째, 처음으로 "주제별 반별수업(A/B)"을 시행함으로써 질 높은 불교학교를 개최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유익하고 참신한 기획으로 준비했사오니 어린이 포교에 관심있는 지도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불기 2542년 4월 좋은날

▣ 동 참 금 : 3만5천원(군종병, 도서벽지 지도자 2만원)
(1박 3식, 연수자료집, 설법과 교리 연구총서 1 · 2집 합본호, 포스터지급)

▣ 신청방법 : 미리 접수 받습니다.
① 실명인 관계로 송금하신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② 2개반(A/B)으로 나누어 수업이 진행됨으로 반 선택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5월 1일~20일까지 · 접수담당 : 정희순
· 우체국 계좌 : 601310-0037877-11 · 예 금 주 : 대불어(조중환)

▣ 강의준비물(B반 강의 신청자만 준비)
신문(다량), 요쿠르트병 10개, PET병(둥근것)2개, 종이컵 10개, 풀, 본드, 칼, 가위, 색종이(큰것), 한지, 송곳, 포스트칼라(5색이상), 붓, 크레파스등
※ 재활용품으로 구분되어지는 각종 물품을 수집해 오세요.

▣ 각지역 문의처 : 서울, 부산, 광주, 경남 차량 준비됩니다.
· 서울 : ☎ (02)433-1506~7 선재마을 유태근 사무국장
· 부산 : ☎ (051)853-5486~7 보현선원 이유경
· 광주 : ☎ (062) 365-0367 덕명사 무등스님(본회 이사)
· 대전 · 충남 : ☎ (042)633-1141 법동복지관, 류재희 사무장
· 경남 : ☎ (0551)66-0170 (마산 · 창원 · 진해) 박영희
· 제주 : ☎ (064)56-4233 죽림정사 인성스님(본회이사)

▣ 문 의 : 본회 사무국
☎ (051)808-4569~4570 FAX (051)808-4571
· PC통신 : 천리안 GO BOSAL (운영자 수신편지 이용)

	주요연수내용	강 사
A반주제	1. 불성개발을 위한 심성프로그램	박대수 (교육학박사 전 제주상담심리연구회 회장)
	2. 보살심을 키우는 장애체험	김광호 (서울대학교 체육연구소)
	3. 마음한번 돌리니 …(아동극)	김문홍 (소설가/극작가/문학박사)
B반주제	1. 아동을 위한 인지정서프로그램 (육바라밀, 팔정도를 통한 수행법)	대원스님 (동국대불교이동학과교수 동국대유치원 원장)
	2. 인욕심을 배우는 극기훈련	부산지구지도교사회
	3. 재활용품으로 부처님세상 만들기	허혜진 (중앙승가대 보육교사/교육원 교수)
- 급격한 변화속의 어린이법회에 대한 새로운 모색		본회회장
- 주제가 있는 여름불교학교 · IMF시대에 맞는 불교학교 준비와 운영 · 다양한 형태의 주제별 프로그램 검토 주제1. 삼귀의 및 부처님 일대기 주제2. 2박3일간의 출가프로그램 주제3. 심성개발 프로그램 주제4. 숲속학교 프로그램		김미옥 (옥련유치원 원장)
- 이럴땐 이런 놀이가 최고! · 야외법회에 쓰이는 공동체놀이 · 법당에서의 주의집중 놀이		남희은 (동국대 부산교대REC 강사)
- 여름불교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창작 찬불가와 율동		정유탁 (풍경소리/작사가)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 사단법인 불국토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 총재 정관 ■ 부총재 혜총 ■ 회장 철오 ■ 상임부회장 운성
■ 이사 영조, 덕진, 설봉, 해관, 원정, 심산, 무등, 성형, 지광, 인성스님

새로나온 책

▲경주 남산=86년 서울신문 신춘문예 출신 정일근 시인의 다섯번째 시집. 부처골 빈 절터에 앉아 찻물을 끓이며/찻잔 속의 달이 익길 기다리는 저녁/산은 광배같은 둥근 경주 남산…어두워질수록 노랗게 익는 달 보라/찻잔 가득 고소하게 익는 달을 보라 -'달'-. 정시인은 경주를 '달'뿐 아니라 가릉빈가의 '별'과 미륵을 향해가는 '배'라고 노래한다. 그리고 마음의 '길'이자 '사랑을 약속하는 땅'이라고 읊조린다. 〈문학동네, 4천5백원〉

▲누가 나방을 어리석다 하는가=사치와 낭비, 방종과 퇴폐에 탐닉하고 있는 인간들에게 띄우는 자기 성찰 에세이. 인천방송 논평위원인 노계원씨가 10년간 중앙일보 논설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집필했던 1천여편의 시사 칼럼 가운데 현시점에서 절실하고 시의성 있는 1백여 편을 묶었다. 이기적 탐욕 소멸과 이타적 보시의 중생제도 정신인 원효스님의 대승사상이 이 나라 ㅈ도층의 지표가 돼야 한다는 칼럼이 새로이 다가온다. 〈중앙미디어북스, 7천원〉

▲명상체험여행=명상을 통해 깨달음과 삶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열어 현실사회에의 관심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명상 길라잡이〉에 이은 상명대 박석교수의 두번째 책.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내면의 명상수행과 정치, 경제, 환경과 신과학, 문화예술 등 폭넓은 지적수련 및 사회적 실천을 조화시켜가는 우리 시대의 '지적, 도덕적 명상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모색, 8천5백원〉

▲자연의 경제=환경보호운동가 애쉬워드가 경제학과 생태학 사이의 상호연관관계를 설명한 책으로 두 학문분야를 통합해 앞으로 자연의 법칙에 따라 인간이 살아가야 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경제학과 생태학이 화합하지 않으면 지구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유동운교수(부산 수산대)가 번역. 〈비봉출판사 1만2천원〉

여시아문, '주머니속 대장경' 시리즈 첫째권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나왔다



20세기 서구사상계에 불교사상의 정수를 단비처럼 뿌렸던 아르헨티나 출신 작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Jorge Luis Borges, 1899~1986). 그는 전환의 물결을 타고 있는 최근의 서구 사상사의 기초를 마련한 지성으로 대표된다. 특히 20세기 고전으로 평가받는 그의 대표작들에는 불교의 영향이 짙게 나타나 있다. 20세기를 연 보르헤스의 사상적 모태가 불교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도서출판 여시아문이 펴낸 '주머니속 대장경' 시리즈의 첫번째인 〈보르헤스의 불교강의〉는 서구 지성이 불교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 냈는가와, 그들의 인식전환에 불교가 얼마만큼 영향을 끼쳤는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만한 책이다.

이 책은 특히 보르헤스가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자기화'시켰는가를 정확히 알 수 있게 해준다.



◇편역 김홍근씨

'20세기의 창조자' '환상문학의 창시자' '사상의 디자이너' '포스트 모더니즘의 선구자' 보르헤스에게 따라 붙는 이런 수식어들은 20세기에 끼친 그의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대변해 준다. 보르헤스는 1976년 〈불교강의〉를 저술한 다음 이듬해인 1977년 조국 아르헨티나에서 '불교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직접 강연하기도 했다. 그는 쇼펜하우어를 통해 불교와 힌두교 철학을 접하면서 외부세계는 하나의 거대한 환영에 불과함을 깨닫는다. 진정한 세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환상적 사실주의'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고 보았다. '환상'이란 숨겨진 이면을 직시할 수 있는 상상력을 의미하며 이것이 바로 불교의 핵심인 '색즉시공'의 문학적 표현인 것이다.

'불교의 우주관' '대승불교' 등 환상적 사실주의로 접근

보르헤스는 그의 작품에서 '내안의 여러 모습 가운데 진짜는 누구인가'를 주요 주제로 다루면서, 이러한 의문점들을 붓다 가르침의 핵심인 사성제와 윤회, 무아, 열반의 의미에서 풀어나가고 있다.

이런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이 책은 현대불교신문이 96년 1월(61호)부터 11월(102호)까지 연재했던 보르헤스의 저작 〈불교강의〉를 묶었다. 여기에는 '불교의 우주관' '대승불교' '중국불교' '선불교' '탄트라불교' 등을 서구의 사상과 대조한 상세한 설명이 담겨있어 불교에 대한 보르헤스의 깊이가 어느정도인지를 느낄 수 있다.

편역자 김홍근(한국외국어대 강사)씨의 '보르헤스는 누구인가' '보르헤스와 불교' 등 4권의 글도 함께 실려 있다. 5천5백원.

한명우 기자

"한국은 이미 불교민속 영향권"



편무영교수 '한국불교 민속론' 펴내
암자의 기원 · 시왕신앙 등 분석 '독특'

일본의 아이치 대학 비교문화학과 편무영 교수의 〈한국불교민속론〉(민속원 刊)은 불교와 민속과의 관계를 심도있게 다루면서 학계에서 소외됐던 불교민속학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주목받을 만하다.

한국불교민속론의 방법을 이론적으로 제시한 이 책은 1·2장에서는 한국불교민속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설명했으며, 3·4장에서는 한국불교민속의 전승과 매개인 '암자'의 생성과 발전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5·6장에서는 무속과 불교가 어떻게 습합되었는지를 살폈다.

이중 '암자'의 생성과 발전과정 분석은 독특하다. 저자는 암자의 발생원인을 떠돌이 행자와 약수터에서 찾고 있다. 외지에서 온 행자가 약수터에 암자를 세운다는 것은 곧 마을 사람들과의 타협이자 전래민속과의 습합임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한국의 무불습합론을 전개하면서 무속과 불교가 양자간의 입장을 어떻게 자리매김하였는지를 시왕신앙(十王信仰)을 중심으로 분석한 대목도 흥미롭다.

시왕신앙은 극락이나 지옥이냐 하는 양자 택일의 저승심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무속에서는 오히려 전래의 이승관과 저승관이 그대로 유지돼 왔다. 그러나 저자는 시왕신앙의 극락과 지옥은 한국인 전래의 이승과 저승의 틀 안으로 스며듦으로써 그 존재를 인정받았다고 보았다. 〈우〉

'박종홍 전집' 증보판 발간

한국철학계에 선구적 업적을 남긴 우리나라의 대표적 철학자, 불교철학 체계화에도 지대한 공헌을 한 열암 박종홍박사(1903~1976)의 사상을 담은 〈박종홍전집〉이 나왔다.

지난 80년 형설출판사에서 발간했던 〈박종홍전집〉(전7권)을 수정 보완하고 새로 발굴한 자료 60여편을 보탠 증보판 〈박종홍전집〉(전7권, 민음사 刊)에는 '원측의 유식철학' '원효의 철학사상' '나말여초의 정신적 추세' '지눌의 사상' '한국철학과 한국불교' 등 불교 관련 논문들이 담겨져 있다.

한계주씨 '전화여행' - 이명숙씨 '종착역은…'

삶을 되돌아 보게 하는 수필집 두권



◇한계주씨



◇이명숙씨

한계주(한국수필문학 진흥회 이사)씨가 펴낸 〈전화여행〉(세손 刊)은 뇌출혈로 9년의 세월을 한쪽 몸을 쓰지 못한 채 휠체어에 의지하고 있는 남편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그동안 잡지와 신문에 기고했던 글을 모은 수필집.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이 살아 있다는 것이 고마워 밤새 잠을 설쳤다는 생각은 다 묻어버렸다. 그리고 병상의 남편에게 매인 것은 인과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부처님 말씀을 가까이 하던 어느날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누구에게 빚을 졌다거나 갚는다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한씨는 "내게 화두를 던져 글을 쓰게 하고 기꺼이 그 글의 모델이 되어준 사람, 번뇌가 바로 '보리(菩提)'임을 일깨워 준 남편에게 이 책을 드린다"고 말한다.

농촌불자 이명숙씨가 펴낸 〈종착역은 어디십니까〉(연꽃마을 刊)는 추악하고 시끄러운 세상이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부둥켜 안고 우리의 종착지를 불법의 진리로 귀결시킬 때 우리의 삶이, 사회가 향기로울 수 있다는 메아리를 전한다. 자신의 신행수기와 함께 절 생활에서, 일상에서 느낀 감정을 숨김없이 담고 있는, 흙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런 수필집이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 · 편자	출 판 사
1	생활속의 불법수행	현대불교신문사	여시아문
2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3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김 현 준	효 림
4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윤 율 순	신 우 당
5	불보살 명호이야기	이 윤 수	민 족 사
6	불교입문	조계종편집부	조계종출판사
7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백가지	성우 · 지현	민 족 사
8	남산이 북산을 보고 웃네	맹란자	세훈출판사
9	알기쉬운 불교미술	동국불교미술인회	반출판사
10	사십이장경 강의	법 성	큰 수 레

구입문의:(02)737-0695

법화행자의 초상 | 자일스님 편역

고려 요원스님의 법화 영험 설화



제바달다는 부처님의 사촌동생이면서도 부처님을 모함하고 살해하려 한 인물이다. 그러나 〈법화경〉은 그 또한 구제받아 성불할 것이라고 설하고 있다.

이 책은 고려시대 고승 요원(了圓)스님의 〈법화영험전〉을 번역한 것으로 기이하면서도 신심을 돋울 수 있는 설화를 감동적으로 그렸다. 성격이 비슷한 내용을 '법화향기 그윽한 곳에' '제불도살이 감응하시니' 등 6가지로 분류하고 제목을 붙였다. 책속에 나오는 법화행자들의 신앙고백은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종교적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배울 수 있게 한다. 〈불교시대사, 6천5백원〉

화제의 책

이것 이것 | 라즈니쉬 지음

선문답 읽노라면 마음은 평화



"달 밝은 산마루에 두꺼비들 우는데 활짝 깨달아 마음 밝혔네. 옛 노래집의 시원한 솔바람도 이것과는 견줄 수 없네" 중국 마조(馬祖)선사는 선을 이렇게 표현했다. 마조의 법제자 귀종(歸宗)에게 한 승려가 물었다. "부처가 무엇입니까" "내가 말하면 믿겠는가" "어찌 감히 믿지 않겠습니까" "그대가 바로 그것이다" 라즈니쉬는 그대가 붓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말한다. 옛 선사들의 선문답을 통해 선을 강의하는 형식으로 구성돼 있어 마음의 평화와 정신적 휴식을 준다. 류원장 옮김. 〈성하출판, 9천원〉

화제의 책

석가의 본심 | 오카와 류호 지음

어떻게 자신의 자각을 높일 것인가



"깨달음이란 달리 말하자면 어떻게 자신의 자각을 높여갈 것인가, 어떻게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알고 또 세계의 비밀을 알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저자 오카와 류호는 깨달음의 진정한 의미는 '안다'는 것이며, 그것이 새로운 행복과 크나큰 에너지를 낳게 해준다고 말한다. 이 것이 바로 부처님 사상의 본질임을 이 책은 설명하고 있다. 구성은 석가의 출가에서부터 보리수 밑에서의 깨달음, 팔정도의 발견, 육바라밀다의 사상, 공사상, 연기법 등 석가사상의 정수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다. 번역가 강영숙씨가 옮겼다. 〈출판시대, 1만원〉

예불을 통한 불보살의 가피!!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의미를 알면 믿음이 서고, 의미를 알면 실천이 쉽고
의미를 알면 성취가 빠릅니다.

많은 불자들이 아침 · 저녁으로 예불문을 외우며 절을 합니다. 맑디 맑은 신심을 바치며 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불문 속에 우리나라 불교신앙의 진수가 담뿍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예불문 속에 깃들어 있는 의미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예불을 올린다면 참된 예불은 물론이요 삼보의 가피를 쉽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불자들이 궁금해 하면서도 마땅히 답을 얻기 어려웠던 이런 저런 궁금증들……. 이 땅에 정착된 불교신행의 진수를 이 한 권의 책 속에 모두 담았습니다.

김현준 지음 / 신국판 / 5,000원

제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저작상)수상작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절에 가면 궁금한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초심자뿐만 아니라 오래 절을 다녔어도 무심히 흘려보냈던 사찰 곳곳에 간직되어 있는 숨겨진 의미들…. 사찰 속의 모든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교의 정신이 창출한 하나의 생명체인 것입니다. 사찰 초입(初入)의 일주문에서부터 사물(四物), 석등, 탑, 그리고 여러 법당 등에 담겨진 의미와 구조, 번천 등을 깊이 있게 다룬 이 책은 독자들에게 불교예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신국판 / 7,000원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지침서

관음신앙 관음기도법

관음기도는 어떻게 해야됩니까?
관세음보살은 어떤 분이신가요?
…… 알고 계십니까?

이 책에는 관음신앙의 뿌리에서부터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상황에 따른 여러가지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자들 대부분이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관음의 가피를 바라고 기도성취를 원한다면 꼭 이 책을 곁쳐 드십시오.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변형 / 3,500원

·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02) 587~6612 · 팩시밀리 : (02) 586~9078

■보조사상硏 '불교와 인터넷' 세미나

"사이버법당 건립 불사 시급" 이종완씨

"대장경 전산화 교학발전 촉매" 김종명씨

인터넷 포교와 불교계 전산화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교계에서는 처음으로 '불교와 인터넷'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보조사상연구원(원장 현호스님)이 25일 법련사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불교와 인터넷'을 발표한 이종완씨(LG 종합기술원 책임연구원)는 "불교는 인터넷 포교에 있어 타종교에 뒤지고 있다"고 전제하며 "지금이라도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사이버 사원 건축 불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종교활동이 활발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인터넷 검색엔진에 링크된 종교사이트가 수십만 건에 이르고 있는 것이 반증해 주고 있다"며 "그러나 개신교가 절대적 우위를 차지 하고 있는데 비해 불교관련 사이트는 미비하다"고 밝혔다. 실례로 네티즌들이 즐겨찾는 검색엔진 '야후(Yahoo)'의 경우, 8백13개의 개신교 사이트가 존재하는 반면 불교는 48개에 불과하다. 이같은 절대적 열세는 국내 사이트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한국교회 홈페이지 사이트가 20여개에 이르는 반면 사찰 홈페이지 개수는 7개에 그치고 있다. 현재 준비되고 있는 것을 포함해도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치다.

또 최근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2백여 교구청-본당-주요기관을 근거리 통신망(LAN)으로 묶어 9월까지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회행정과 신자관리를 공유키로 한 것과 비교할 때, 불교계의 전산화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

이씨는 "세계 종교인들이 '가상공간'일 뿐인 인터넷에 몰리는 이유에 대해 불교계도 주목해야 한다"며 "부처님을 절에 가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적 실천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씨는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에 대해 설득력이 취약한 불교계는 '포교'라는 측면에서 젊은 세대가 주로 사용하는 인터넷의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려대장경〉의 전산화와 인문학적 중요성'을 발표한 김종명씨(한국불교연구원 연구위원)는 "〈고려대장경〉 전산화는 동아시아 불교학 연구 및 인문학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인도 고전사상 연구와 중국 일본 베트남 티벳 및 몽고의 문화사 이해에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씨는 〈고려대장경〉을 모본으로 했으나 〈신수대장경〉에 누락돼 있는 불전들을 중심으로 〈고려대장경〉 전산화가 동아시아의 불교학과 인문학 발전에 미치는 중요성을 분석했다. 그 중요성을 △불교철학 △종교학 △문헌학 △문화학·언어학·문학연구에 대한 기여로 분석한 김씨는 "그러나 인학군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산화와 더불어 이러한 불전들에 대한 학문적 규명이 병행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고려대장경〉 전산화의 완성과 더불어 "한글 〈고려대장경〉과 그 이후의 불교전적, 〈한국불교전서(韓國佛敎全書)〉 등의 전산화와 핵심적 목표인 교정작업, 표점작업, 검색엔진의 개발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기자



◇호주 BuddhaNet 홈페이지.



◇15일 개설된 송광사 홈페이지 초기화면

◇국내 불교 웹사이트

분류	이름	웹주소(http://…)	내용
종합정보센터	부다피아 인터넷 법계	www.buddhapia.com indra.inditunet.net/	불교관련 종합정보 경전, 선의세계 등
도우미 사이트	바바니	www.bhavani.com	불교홈페이지 제작대행
사이버 사찰	조계종 총무원 직지사 통도사 송광사 법주사 한마음선원 일승종 법운사 천태종 삼광사	www.buddhism.or.kr users.unitel.co.kr/~bud0891 net-in.co.kr/sovin/index.html temple.buddhism.or.kr/sungkwang www.pubjusa.or.kr www.seon.buddhapia.co.kr www.cybertemple.org www.samkwangsa.org	한국의 사찰 소개 창건 설화 등 소개 국가지정 문화재 등 역대고승, 국사전 등 속리산관광안내 등 법회안내, 큰스님 설법등 세계불교사이트 소개 '아나바다' 운동 등
학술·연구·수행기관	고려대장경연구소 동국대학교 조계종 수선회 인도철학회	members.iworld.net/hedervin/ www.dongguk.ac.kr/dgu.html zen.or.kr bora.dacom.co.kr/~jogsa/ksipmain.htm	해인사 소개, 경전열람 서울·경주 캠퍼스 소개 참선관련 각종 정보 인도철학 논문소개
신행·단체	맑고향기롭게 어린이지도자연합회	buddhapia.com/mem/dean/d-main.html www.chollian.net/~bulkook	활동내역 소개 어린이 포교자료 소개
불교문화재·문화	부처님의 땅 겨레의 땅 경주 신라문화진흥원 경주넷 경주관광정보 및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경상북도(경주)	bora.dacom.co.kr/~jhsl dongguk.ac.kr/~travel/ www.kyongju.net www.donghaenet.co.kr www.culturexpo.or.kr/ www.kyongju.kyotoi.or.kr/kyongju/kb.html	경주남산 등 불교문화 경주관광 안내 경주관광 정보 불국사, 석굴암 소개 엑스포 안내 경주지역
사찰안내	아주대 불교학생회 김용호의 산사의 풍경소리 피안으로 가는 문	madang.ajou.ac.kr/~little/ bora.dacom.co.kr/~poemnkst/panya www.hallym.ac.kr/~sdjeong	백양사, 해인사 등 운문사 등 안내 춘천지역 사찰소개
기타	불교뉴스검색 목아박물관 나우누리 '부처님마을' 인터넷으로만나는 불교	www.seon.buddhapia.com www.moka.or.kr/ blue.nowcom.co.kr/~nowbud members.iworld.net/hyemook/toc.htm	불교생활정보, 퀴즈 박물관학교 등 소개 불교공부방, 한국불교사 국가·학술·신행단체별 불교사이트

1면 '인터넷'서 이어짐

사찰·단체마다 독창성 살려 제작

불교계 인터넷 사이트는 크게 △사이버 사찰형 △종합 불교정보 제공 사이트로 구분된다.

각 사찰 홈페이지는 공통적으로 사찰연혁과 소의경전, 주지스님 법문 등을 제공하고 있어 '사이버 법당'의 기능을 하는 동시에 사찰마다의 특성을 살려 사찰 이미지 부각과 홍보, 안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직지사는 길목의 황악산문을 그대로 적용, 홈페이지를 열면 황악산문이 나타나도록 했다. 탁트인 전경으로 시작되는 봉도사 홈페이지는 불보종찰답게 성보박물관과 전국에서 가장 많다는 국가지정 문화재를 안내하고 있으며, 대둔사는 해남지역 일대의 섬과 차밭 등 주변 관광문화 안내도 곁들일 계획이다. 이 가운데 1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송광사 홈페이지는 1백여 페이지의 방대한 분량 속에 승보종찰의 면모를 살린 역대고승 열람, 국제선원 등 부설기관, 성보문화재, 조계총림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영문지원도 되고 있어 돋보인다. 5월초 시범 서비스되는 불국사 홈페이지는 석굴암 등 경주 지역 불교문화재 소개 및 '98 경주세계문화 엑스포 안내를 할 예정.

종합 불교정보 제공 사이트는 '부다피아' '인터넷법계' 등으로 각 종단 및 역사 경전 선 문화 학술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부다피아'는 대둔사, 맑고 향기롭게, 소쩍새마을 등 교계 사찰과 단체의 홈페이지 제작을 대행하면서 교계 홈페이지 개설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밖에 '인드라넷'을 운영하고 있는 혜묵스님(비백교학연구소장)과 〈한글아함경〉 검색프로그램을 개발, 전산화한 지월스님(대구 파계사), 용학스님(나우누리 승가학교시삽) 등은 컴퓨터 전문가로서 경전 전산화에 앞장서고 있다.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룸비니를 찾아라

부처님이 태어난 룸비니 동산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것도 부처님오신날을 뜻있게 보내는 방법일 것이다. 인터넷 검색사이트 야후(Yahoo) 인포식(Infoseek)에서 검색어 'lumbini'를 입력하면 3백여개의 사이트를 소개받을 수 있다.

△'룸비니 웹페이지' '룸비니공원' '네팔여행' 등은 룸비니 동산의 전경 사진과 네팔 관광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사이트. 이중 '룸비니 웹페이지'에서는 연못, 마야데비사원, 평화의 대탑 등 화질이 선명한 그래픽 사진 8장을 열람하고 로딩도 가능하다. '네팔여행' 사이트는 141,577㎢에 이르는 네팔 지도(Image Map)를 펼쳐놓고 볼만한 관광명소의 정보를 제공한다.

△'씨에틀타임즈' 96년2월5일자에 실린 부처님탄생지 발굴 기사도 읽을만 하다. 당시 부처님탄생지는 고고학계의 핫 이슈였지만 이 발굴로 논쟁이 일단락짓게 됐다. 이 기사에 따르면 다국적 고고학자들로 구성된 발굴단이 9개월동안 마야데비 사원의 16피트 지층에서 마야부인의 침실로 추정되는 방과 부처님의 유품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발굴단은 이번 발굴에서 발견된 사원기념주(柱)에서 "아소카왕이 마야부인이 살던 곳을 찾아 마야데비 사원을 세웠다"는 내용을 그 근거로 삼고 있다. 발굴지 근처에 연못으로 추측되는 곳도 찾았는데 마야부인이 부처님을 낳고 목욕했던 곳으로 추정한다는 것. U.N은 이번 발굴에 힘입어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를 '세계평화센터(The Center for world Peace)'로 발전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발굴현장도 생생한 그래픽으로 볼 수 있다.

△'네팔신문' 97년10월2일자에는 룸비니 동산에 평화대탑이 세워진 배경이 나와있다. 당시 카트만두를 방문한 힌두교도(인도인) 관광객들이 룸비니 동산을 훼손시키려고 하자, 룸비니 소재 사찰의 스님들이 이 음모를 육탄으로 저지했다는 것이다. 평화대탑은 당시 사건을 계기로 세워졌다.

△세계에서 권위를 인정받은 '브리태니카'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D/B)에서도 룸비니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온라인 D/B에는 네팔역사·인도불교·마야부인·성지순례 등 룸비니 관련 항목을 분류, 다양한 연구논문·사진·현황 자료들이 제공되고 있다.

△'유네스코' 사이트에서는 지난해 12월1일 유네스코가 룸비니 동산을 세계유산으로 지정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3백여 사이트 룸비니동산에 초대

평화대탑 배경 소개 룸비니 연구논문도 제공

△Welcome to Lumbini Web Pages http://www.star.ait.acth/~shyam/L2.html
△Lumbini Park http://www.andhratoday.com/tourism/lumbini.htm
△Nepal Introduction http://www.catmando.com/travel-bluebird/nepal.htm
△Nepal Review http://www.info-nepal.com/p-review/october97/
△Seattletimes http://www.seattletimes.com/
△Britannica http://www.eb.com/cgi-bin/
△Unesco http://www.unesco.org/



◇네팔 관광성이 제공하는 룸비니 동산 전경.

사고

현대불교 '부다피아'

LG '채널아이'에 불교정보서비스 '개통'

현대불교신문사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5월3일부터 인터넷 PC통신망 LG인터넷 채널아이(Channel-i)와 공동으로 종합불교정보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부다피아 불교정보'로 명명된 불교정보서비스는 현대불교신문에 게재되는 주요 기사와 그동안 본사가 개발, 축적해온 각종 불교자료를 일반인들도 쉽게 검색할 수 있게합니다.

풍성한 불교정보 서비스

△법문마당에는 현대 한국불교를 이끌어가는 큰스님들의 감로수 같은 법어와 수행한담이 생생하게 담겨있습니다.

△정보마당에는 불교계 소식, 불교의 역사 종단 사찰 학술 문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3천여건의 다양한 자료들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참여마당에는 신행생활 속의 의문을 직접 묻고 그 해답을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불교관련 행사와 봉사활동을 중계해 온라인상으로 신행활동을 도와드립니다.

접속방법

1. 전용 브라우저인 체널뷰(Channel View)를 설치(02-369-9900), 실행시킨다.
2. ID입력창 설정버튼을 누른다.
3. LAN연결이나 전화접속(01434)중 한가지를 택한다.
4. 확인버튼을 누른다.
5. 이용자ID와 password를 입력한다.
6. 초기화면이 나타나면 '열린사회-종교' 메뉴를 누른후 '부다피아 불교정보'를 연다.

현대불교신문사

출판시대 TEL (02)3443-4307 FAX (02)3443-4308
Paramita Books
파라미타 북스는 불교 및 불교관련 저서 시리즈입니다
좋은 원고가 있으시거나 책을 출간하시려는 분은
출판시대 편집부(02-3443-430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歷代宗正法語集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 끝은 왜 보고 있나



겨레의 정신적 지도자 역대 종정들의 삶과 가르침!

2천만 불교인 뿐만 아니라 겨레의 정신적 지도자이기도 한 역대 종정들의 삶과 가르침을 한데 모은 역저.
현 종정이신 월하 스님을 비롯하여 성철, 청담, 효봉, 동산, 서옹, 고암 스님 등 역대 종정 법어집은
현대 한국 불교사에 있어 처음 보이는 견성체험(見性體驗)의 어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역대 종정 스님의 법어(法語)는 한국 선종의 독특한 오도(悟道)의 육성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우리는 역대 종정 스님들의 어록 앞에서 어떨 때는 영혼이 상처를 입고, 자성(自性)이 붕괴되는 충격을
만나게 된다. 왜냐하면 실존적 자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다.



월하—마음 밖에 부처가 존재치 않으니
성철—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청담—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효봉—부처와 중생의 모양이 다르지 않으니
동산—부처 없는 곳을 향해 간다
서옹—선(禪)이란 참 나를 찾는 길
고암—부처님은 광경이요, 불변의 진리

●김정휴(불교신문 사장) 편저/496면 값 15,000원 ●범보시용으로 주문하시면 할인해 드립니다.

우리시대의 걸승(傑僧) 정휴 스님의 불교신문 인기칼럼 모음집
천수천안(千手天眼)
·김정휴(불교신문 사장) 지음/200면/값 6,000원



되살아나는 붓다의 가르침
석가의 본심
석가(釋迦)의 출가(出家)와 득도(得道)의 과정을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써내려간 책. 유정도(有情道)와 육바라밀다(六波羅蜜多), 공(空)의 사상, 연기법(緣起法) 등 석가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풀어 써 불교에 밝지 못한 사람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불(成佛) 가이드.
●오키와 류호 지음/김영숙 옮김/값 10,000원



불교TV화제의 프로그램 드디어 출간!
밀교강좌
한국불교와 밀교(密敎)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밀교 안내서! 밀교란 무엇이며 어떻게 수행을 하는지, 밀교의 육자진언 '옴마니반메훔'의 의미와 성불(成佛)에 대한 밀교의 견해 등이 체계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불교TV에 방영되어 화제가 되었던 내용을 단행본으로 엮었다.
●대한불교진각종 혜정 지음/값 12,000원

절망 뒤에도 희망은 있다
'역학의 대가'로 알려진 백운학 운명감정 40년 상담 에세이
절망 끝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심정으로
인생상담에 응한 사례를 엮은 책
●백운학 지음/256면/값 7,000원

너의 運命 얼골에 있다
마의천(麻衣天) 선생의 얼굴빛 관상학!
제아무리 많은 공부를 했다고 해도 사람을 볼 줄 아는
혜안(慧眼)이 열리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마의천 지음/400면/값 15,000원

T 3443-4307
F 3443-4308
출판시대

시방세계

불사의 현장
불·교·조·각·원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내무장엄불사, 불교목공예품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TEL : (02)738-8447~8

"에밀레종 언제 다시 울리나"

1천2백년전 민중복락 염원 조성
신비의 소리 멈춘지 6년4개월
"타종하자"-"깨질 가능성" 의견 분분

무릇 심오한 진리는 가시적인 형상 이외의 것도 포함하나니 눈으로 보면서도 알지 못하고, 진리의 소리가 천지간에 진동하여도 그 메아리의 근본을 알지 못한다. 그런고로 (부처님께서는) 때와 사람에 따라 적절히 비유하여 진리를 알게 하듯이 신종(神鐘)을 달아 진리의 원음(圓音)을 듣게 하셨다. 〈성덕대왕신종 명문中 서문〉



◇신종 그 신비한 소리의 비밀을 간직한 음관과 용뉴.



◇한국의 소리를 대표하는 성덕대왕신종.



◇연꽃 위에 무릎을 꿇고 부처님(법음)께 공양하는 비천상.

1천2백여년간 이 땅의 울림을 대표해 왔던 성덕대왕신종(국보 제29호·일명 에밀레종). 장중하면 맑기 어렵고, 맑으면 장중하기 어렵건만 신종은 그 모든 것을 갖췄다. 사람들은 세계 어느 종도 흉내내지 못할 불가사의한 소리라 한다. 그러나 1992년 12월 31일 제야의 타종을 마지막으로 신종은 소리를 내지 않았다. 영구보존을 위해 이제 그만 종을 쉬게 해야 한다는 배려였다.

신종이 울음을 멈춘 지 6년4개월. 최근 신종의 재타종을 둘러싸고 학계의 논쟁이 뜨겁다. "종은 소리를 낼 때 존재이유가 있으며 울리지 않으면 생명력을 잃는다"는 주장과 "타종이 재개되면 종이 깨질 가능성도 대체할 수 없어 신비한 종소리를 영원히 들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포항공대 산업과학기술연구원 신형기박사는 "모래가 섞인 종 내부의 천장부분이 일부분 떨어져 나가 종의 강도가 매우 약해졌다"며 "계속 타종할 경우 깨질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문화재애호단체는 법원에 타종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강경한 입장도 보이고 있다.

종의 생명은 소리에 있다. 늙고 병들었다고 먼저 생명을 끊을 순 없다. 타종을 금지하기 보다는 종을 보호하고 그 아름답고 맑은 소리를 세상에 퍼뜨릴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더많은 기술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과연 우리는 그토록 크고 아름다우며 깊은 천상(天上)의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없단 말인가?

신종이 침묵한지 4년후인 1996년 7월26일 각계의 내로라하는 학자들이 신종에 대한 종합적인 학술조사를 시작했다. 황수영(한국미술사·前동국대총장), 정양모(도자사·국립중앙박물관장), 지건길(고고학·당시 경주박물관장), 이장무(기계설계·서울공대학장), 신형기(성분분석·포항산업과학기술원)·김동진(중량측정·CAS 대표이사) 등 연구에 관련된 학자(분야)만도 12명이 넘는다. 하나의 문화재 연구를 위해 이처럼 많은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적은 일찍이 없었다.

성덕대왕신종의 신비를 밝히기 위한 현장조사는 96년 9월13일 오후 6시부터 14일 자정까지 국립경주박물관 앞뜰에서 실시됐다. 신라 천년의 소리는 다시 울려야 한다는 화두를 가지고 40여 차례의 타종이 있었다. 이때 녹음된 신종 소리의 비밀은 같은해 11월2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성덕대왕신종 국제학술회의'에서 밝혀졌다. 한국의 소리, 세계 최고의 종소리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신종, 그 소리의 비밀은 다름 아닌 맥놀이현상. 신종은 타종시 두 개의 서로 다른 주파수가 합쳐서 소리가 끊이지 않고 길게 이어진다. 그 울림의 여운은 3분 이상 지속된다. 경희대 진용옥교수(전자전파계열)는 종 밑바닥의 울림통은 종소리를 안정된 음향으로 만들고 부처님의 소리를 지하세계의 중생들에게 전달한다는 깊은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신종은 자체보다는 신종이 위치한 종각과 울림통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신종이 제대로 된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타종시의 충격을 재빨리 흡수하는 울림통의 크기를 현재보다 크게 하고 정기적인 타종이 필요하다는 게 진고수의 의견이다.

97년 8월11일에는 중량측정과 정밀조사가 이뤄졌다. 무게는 18.9톤. 중형자동차 15대와 맞먹는 무게다. 현재 신종 표면에는 3백여개의 구멍이 있다. 대부분 주조당시의 기포때문에 생긴 것이고 부식·노화된 것은 10개 안팎으로 아직 보존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감마(γ)선 촬영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신종의 건강상태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12군데서 시편을 채취해 실시한 신종의 성분분석은 에밀레종이라 불리우는 신종에 얽힌 설화의 진위여부를 가려냈다. 여태껏 '아이를 넣어 신종을 주조했다'는 설화는 인성분이 들어있어야 소리가 좋아진다는 과학적 논리와 함께 사실로 받아들여져 왔지만 성분분석 결과 인은 들어있지 않았다. 명문에 적혀있는 대로라면 신종의 소리는 결코 애절한 소리가 아니다. 거기에는 우렁차고 아름다운 부처님 진리의 소리로 중생들을 깨닫게 한다는 원대한 염원이 담겨있다. 성분분석 결과는 인대신 유황의 존재를 밝혀냈다. 0.2%가 검출된 유황은 충격완충제의 역할을 담당한다. 신종이 1천2백여년 동안 생명력을 잃지않고 버텨온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지난 2년간 현대과학의 힘을 빌어 신종의 수많은 신비를 벗겨내려는 몸부림이 있었다. 그 결과는 올 가을 〈성덕대왕신종 종합안전진단 조사연구보고서〉에 담겨질 예정이다. 당초 예정보다 1년여이상 지체되고 있다. 연구 도중에 타종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1천2백여년전의 혼과 생명을 불러넣는 일이지만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신라인들은 말한다. "종소리와 더불어 나라가 평화롭고 민중은 복락을 누리기를…." 종의 표면에 분명히 새겨져 있는 이 발원은 1천2백여년을 뛰어넘은 오늘 우리의 염원이다.

윤기석 기자



◇성덕대왕신종이 소리를 멈춘지 6년4개월. 종은 울릴 때만이 생명력을 발휘한다는 주장과 영구보존을 위해 타종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진은 96년부터 시작된 신종에 대한 종합안전진단 중 중량을 측정하고 실측하는 장면. 종의 무게는 18.9톤, 높이는 3.64m로 실측됐다.

맥놀이 현상 청정음 전파

신비의 소리 나는 까닭

한국종 특히 신라종의 가장 큰 특징인 음관(소리대통). 중국이나 일본 등 외국의 어느 종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음관은 어디에서 유래한 것일까?

황수영박사는 〈삼국유사〉에 기록된 '만파식적'의 설화에서 그 해답을 찾았다. 호국룡이 된 문무왕과 죽어서 천신이 된 김유신장군이 나라를 지킬 보배로 내려준 만파식적(대나무로 만든 피리). 소리로써 천하를 다스리고 천하를 화평하게 하며 모든 파도를 쉬게 한다는 이 피리의 상징성이야말로 신라종의 참뜻과 조금도 다름없다. 실제로 음관은 대나무 마디 모양을 뚜렷이 하고 있고, 이 소리대통을 치면 잡소리 하나 없이 한가닥의 맑은 소리를 내게 했으며, 뒤울림(여음)은 명주실같이 끊이지 않고 길게 이어진다.

성덕대왕신종은 64㎐·170㎐·300㎐대의 기본 주파수가 있다. 그 중 마지막까지 소리를 길게 이어지게 하는 음은 64㎐로 구성된다. 맥놀이현상은 이 낮은 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음관은 고음과 파열음을 뽑아내고 울림통은 이 저음을 멀고 길게 가게끔 조율해 준다.

맥놀이현상은 재료와 구조가 비대칭적일 때 발생한다. 종의 진동 모습을 보면 두 개의 파동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는데, 과거 주조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고 치부해오던 덤쇠(떡쇠-종 내부의 불기)는 진동을 비대칭적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다. 신종은 외견상 완벽한 대칭구조를 이루나 당좌와 비천상은 서로 직각으로 놓여 있는 등 비대칭적 구조를 이룬다.

대칭속의 비대칭. 불국사의 석가탑과 다보탑, 석축 등에 나타나듯이 우리 민족의 심성과 문화적 특성을 나타내는 공학적 특징이다. 긴 여운으로 이어지는 한국의 소리. 우리의 산하에 금이지는 자연계곡의 곡선주기가 5~10m이고 64㎐의 파장이 환산해 5m정도임을 감안하면 한국의 전형적인 지형과도 일치한다.

덤쇠는 진동돕는 의도적 장치

불교문화 체험기행

신록의 계절 5월, 경상과 전라를 잇는 지리산 자락 하동땅에 싱그럽게 펼쳐진 차밭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5월의 불교문화 체험기행은 우리나라 차의 시배지 쌍계사 '茶 축제와 제다현장'을 찾아 갑니다.

쌍계사에 들어서면 신라때 김대렴이 당나라에서 차 종자를 가져와 처음 심은 것을 기념한 차 시배비와 이 절의 창건주인 진감선사의 공덕을 기린 진감선사대공탑비(국보 제47호), 대웅전(보물 제500호) 등이 여러분을 반길 것입니다.

그윽하고 은은한 차향기를 즐길 수 있는 이번 체험기행에서 다선일미(茶禪一味)의 세계를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5월 '다선일미의 세계를 찾아서'

'쌍계사 茶 축제, 제다현장'

◇출 발: 5월16일(토) 밤11시 · 조계사 앞(무박2일)
◇회 비: 4만원(점심제공)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02)737-8881, 722-4162
혜초여행사(02)722-3900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선정호)
※단체참가 적극 환영합니다.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협찬: 일양약품
주관: 혜초여행사

인터뷰 강우방 경주박물관장

"종 안친다고 최상의 보존인가"



"원래 종이란 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수명이 오래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적당히 울려줘야 맑은 소리와 함께 종의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덕대왕 신종의 신비는 바로 소리에 있다고 강조하는 강우방관장. 그는 보존이 어려워 타종을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에 굳이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단호히 말한다.

75년 현 위치로 옮긴 이후 신종의 원형보존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전시장소와 타종문제. 육외노출로 원형훼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실내이전, 특수 유리보호막 설치 등이 제시됐고, 타종 절대금지와 부처님오신날 등 경축일 타종안 등이 논의됐다.

그러나 강관장은 "신종에 대한 전문적인 기관들의 종합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보존대책을 수립하기는 아직 이르다"며 그간의 논의를 완전 백지화했다고 밝혔다. 올 가을에 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원점에서 자연통풍이 잘 되는 상태의 보존과 타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 박물관측의 입장이다.

강관장은 96년 당시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으로 신종 종합연구조사에 참가, 그 사상적 배경을 〈화엄경〉과 이에 대한 원효스님의 해석으로 풀이한 바 있다. 즉 종명(鐘銘)에 나타나 있듯이 신라인들은 부처님의 '일승원음(一乘圓音)'을 표현하기 위해 음관이라는 특수한 장치를 창안하면서까지 신종을 주조, 오늘날에도 감히 흉내내지 못하는 아름다운 종소리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으로 극락정토의 장엄을 세웁니다.
따뜻한 햇살! 밝은 웃음! 튜울립축제!
에버랜드에서 아미타전을???
에버랜드
모험과 즐거움이 있는
「에버랜드에서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애독자 IMF 할인가격으로
아미타전 도 보시고
에버랜드 도 즐기고,
어려운 때를 이겨내는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사로 전화신청만 하시면 절차에 따른 불편없이 우대가격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 아미타전 관람요금
(아미타상 단체에 한함)

상품명	상품내용	일반개인	일반단체	아미타전 우대가격		
				어른	중고생	어린이
아미타	아미타전람+에버랜드입장	13,000	11,000	8,500	6,500	4,000
아미타 1	아미타전+에버랜드입장+놀이시설 1종이용	15,000	13,000	10,000	7,000	5,000
아미타 2	아미타전+에버랜드입장+놀이시설 2종이용	17,000	15,000	11,500	8,500	7,000
아미타 3	아미타전람+에버랜드입장+3D	22,000	20,000	16,000	13,000	10,000
아미타 4	아미타전람+에버랜드입장+자유이용	22,000	20,000	18,000	14,000	11,000

■ 공동주관: 현대불교신문사, 삼성에버랜드, 호암미술관
■ 문의·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전화: 02-732-1522,737-8881 팩스: 737-0697,737-0696)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애욕품(愛欲品) ④

若覺一切法 약각일체법
能不着諸法 능불착제법
一切愛意解 일체애의해
是爲通聖意 시위통성의

만약 모든 법을 깨달아
능히 온갖 법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일체의 애욕에서 풀려나리니
이는 성스런 뜻에 통한 것이다

衆施經施勝 중시경시승
衆味道味勝 중미도미승
衆樂法樂勝 중락법락승
愛盡勝衆苦 애진승중고

모든 보시중 법보시가 으뜸이고
온갖 맛중에 도의 맛이 으뜸이며
모든 즐거움 중엔 법락이 으뜸이다
갈애 다하면 온갖 괴로움 이겨낸다

愚以貪自縛 우이탐자박
不求度彼岸 불구도피안

고로 지혜로운 이 탐욕하지 않는다

心可則爲欲 심가즉위욕
何必獨五欲 하필독오욕
遮可絶五欲 위가절오욕
是乃爲勇士 시내위용사

마음에 좋다는건 곧 욕심이 된다
어찌 오욕 뿐이랴
좋다는 생각 버려 오욕 끊으면
이것이 바로 용사가 되는것

無欲無有畏 무욕무유외
恬淡無憂患 염담무우환
欲除使結解 욕제사결해
是爲長出淵 시위장출연

욕심 없으면 두려움 없고
마음 고요하고 맑으면 우환없다
욕심 없애 그 결박을 풀면
이것이 길이 수렁에서 벗어나는 것

欲我知汝本 욕아지여본
意以思想生 의이사상생
我不思想汝 아불사상여

탐욕은 남과 나 해치는 망하는 자리
그 결박 푸는게 수렁서 벗어나는 길

貪爲敗處故 탐위패처고
害人亦自害 해인역자해

어리석은 이 탐욕으로 저를 묶고
피안에 건너는 것 구하지 않는다
탐욕이란 망하는 자리인 까닭에
남을 해치고 저를 해친다

愛欲意爲田 애욕의위전
婬怨癡爲種 음원치위종
故施度世者 고시도세자
得福無有量 득복무유량

갈애 욕망은 의식의 밭으로 삼고
음욕 원망 어리석음을 종자로 삼으니
그러므로 세상 건넌 이에 보시하면
그 복록이 헤아릴 수 없으리라

伴少而貨多 반소이화다
商人怖惕懼 상인출착구
賭欲賊害命 기욕적해명
故慧不貪欲 고혜불탐욕

길동무는 적은데 재화 많으면
상인은 근심하고 두려워 한다
욕심 즐기는건 목숨 해치는 적
則汝而不有 즉여이불유

욕심아! 내가 네 뿌리를 안다
의식은 상념에서 생기는 것
내가 너를 생각하지 않으면
너는 곧 있음이 아니더라

伐樹勿休 벌수물휴
樹生諸惡 수생제악
斷樹盡株 단수진주
比丘滅度 비구멸도

욕심의 나무 베기를 잊지말라
그 나무는 온갖 악행을 낳나니
나무를 베어 뿌리까지 없애면
그 비구는 멸도에 들리라

夫不伐樹 부불벌수
少多餘親 소다여친
心繫於此 심계어차
如犢求母 여독구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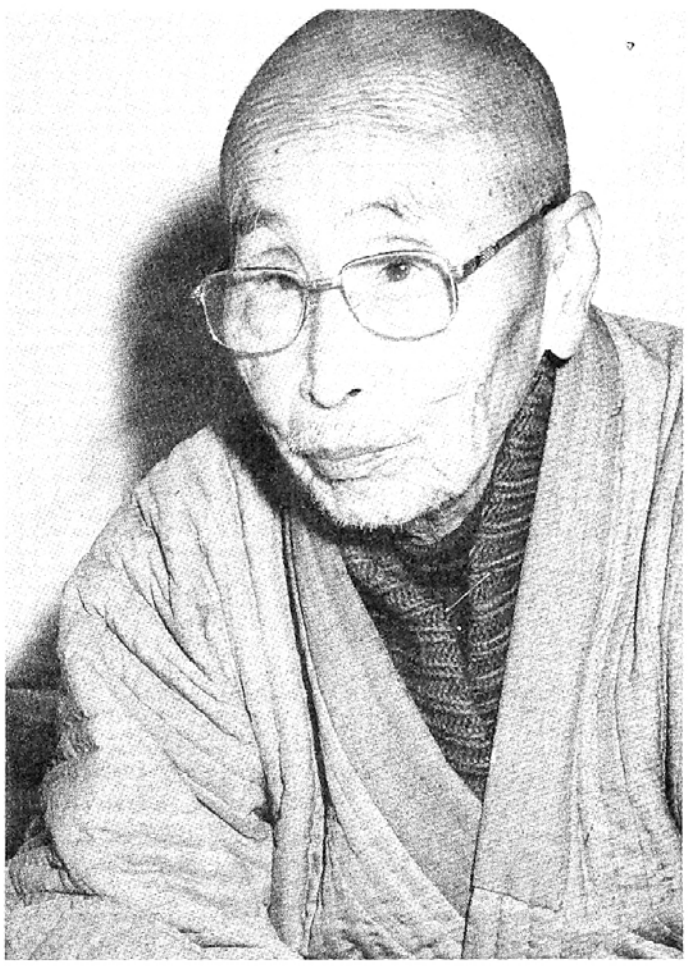
무릇 욕심의 나무를 베지 않아
조금이라도 미련이 남는다면
마음은 바로 거기에 매이나니
어린 송아지 부모 찾듯 하리라

龍眼

큰스님 수행한담

"참회하는 오늘이

월인스님 〈월명암 조실〉



약력
- 1910년 전남 화순 生
- 1945년 전북 보석사로 출가
- 화엄사 월명암 달마산 토굴등에서 선수행
- 現 전북 부안 월명암에 주석

"아무것에도 걸림이 없어야 참으로 중노릇 잘할 수 있다" 은사스님 가르침의 전부

월명암 앞뒤로 봄꽃이 환하게 피어 극락의 정취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월명암은 월명각시가 이승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승천의 이적을 시현한 곳이고 바로 이웃한 묘적암은 그의 아비되는 부설거사가 부부의 인연을 맺고 함께 수행한 묘화보살을 위해 지은 초막 암자입니다. 이 모두가 저 먼 신라시대의 이야기이고 그때의 흔적이란 찾아 볼 수도 없지만 아직도 그들의 지그한 수행이야기는 생생히 전해오고 있는 도량입니다. 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단풍들듯 이 도량의 세월속에 그들의 이야기는 단절됨 없이 전해지며 공부하는 이들의 귀감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봄꽃 만발한 묘적암에 달이 떠 오르고 소쩍새가 하염없이 울어대는 밤이면 정말 묘적(妙寂)의 신묘한 소식이 전해오는 듯합니다. 무상(無上)의 법을 닦는 사람에게 도량의 좋고 나쁨이 있을 수 없겠지만 나는 이 월명암 묘적암과 별난 인연이 있습니다. 무상한 세월 속에 여든 아홉의 나이에 이르도록 이 도량과 정말 깊은 인연을 맺으며 살아 왔습니다.

세상 살기가 어렵다는 말을 풍문에 듣고 앉아 있는 와중에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이 노납(老衲)에게 촌설(寸說)을 청하니 거절할 수도 없거니와 달리 잘난 말 한마디를 전할 덕도 쌓지 못했음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내 살아 온 이야기를 들려드리지요. 행여 그 속에 먼지처럼 묻어 있는 부처님의 가피가 있거든 그걸 버리지 말고 갈무리해 수행의 거름으로 써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긴 경술년에 전라남도 능주, 지금의 화순땅에서 태어났습니다. 누구나 그랬듯이 참으로 어려운 유년시절을 보냈지요. 선친께서는 삼천리 명산을 찾아 다니며 남들이 알지 못할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다보니 집안 살림은 말할 수 없이 기울었고 마침내 선친께서 금강산에서 타계하시니 그나마 밥줄을 잇던 살림살이가 파탄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위로 두 형님들은 어디론가 떠나있고 어린 나는 모친을 의지해 의가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열두어 살때부터 지게를 지고 산을 다니며 나무를 하는 신세를 면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도 산에 오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게를 지고 산꼭대기를 올라 사방을 둘러보는 것이 내 가난한 어린시절을 지켜준 유일한 재미였습니다. 나는 산꼭대기에서 하늘을 향해 소망을 말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어려운 세상살이를 하지 않고 산에 들어가 도를 닦고 싶습니다."

무슨 도를 어떻게 닦으리란 다짐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선친의 피가 내 몸에 흐르는 탓이었는지 어린 나이에 가난이 싫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의 발원이 있어 지금껏 승단의 한켠에서 불은(佛恩)을 축내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외가살이를 하다가 스무살이 넘어서는 전라북도 전주에서 시계고치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때만 해도 시계란 귀한 것이어서 그걸 주무르며 고치고 다니는 일은 신나는 일이었지요. 시계고치는 연장을 손가방에 넣고 전국을 떠돌아 다닐 수 있다는 것도 신명나는 일이었습니다. 내 기술로 내 밥을 해결하니 남에게 구차하게 손 벌릴 일도 없고 내 가고 싶은 곳이 바로 나의 행선지이니 누구에게 길을 물을 것도 없었지요. 주로 북쪽을 많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선친이 공부하다 이승인연을 마감했다는 금강산도 돌아다니고 보현산도 돌아 다녔지만 그래도 만주땅을 가장 오래 쏘다녔습니다. 그곳에서는 일제의 병기를 들고 살상의 전장으로 끌려갈 험난한 팔자를 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주를 돌아다니다가 돌아 온 조국땅에서 해방을 맞이했는데 그 해에 불문(佛門)으로 들어서 버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소망했던 것이 늘 가슴에 들어차 있었기에 서른다섯이 되도록 부부의 인연을 맺을 여자도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언젠가는 산문으로 들어갈 사람이 한 여자의 일생을 반쪽으로 잘라놓고 떠나버릴 수는 없다는 생각이 죽 있었던 게지요.

출가사찰인 전라북도 보석사에서는 머리만 깎은 셈입니다. 정선(正善)스님이 머리를 깎아준 은사스님인데 이듬해 화엄사로 나를 보내며 "아무것에도 걸림이 없어야 참으로 중노릇을 할 수 있다"는 말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물론 그 가르침도 나는 평생을 귀하게 받들고 있고 지금 머리를 깎으려는 이들에게도 '정녕 하나의 걸림이 없는 삶을 구할 자신이 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화엄사에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참선도 하며 지내다가 서울에서 정화불사가 대단하고 모두들 모여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화불사가 끝날 무렵에 서울로 올라 갔는데 나는 실망했습니다.

정화불사는 갑오년(1954년)에 이승만 대통령의 유시를 촉매로 시작되었던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나는 그 다음 해 초가을에 조계사로 갔습니다. 이미 많은 절에서 대처승들이 물러난 뒤였습니다. 조계사 앞뜰에 모인 스님들이 여기저기서 무리를 지어 수군 거리는데 그 내용은 지방의 절들은 많은데 비구들의 수는 적어 서로 절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정화를 했으니 절을 인수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나는 그때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부처님 혜명을 바로 잇고 법등을 온전히 이어가기 위한 정화였는데 종국에는 무리를 지어 좋은 절들을 차지하려고만 하는 것이 이 촌사람에게는 그리 좋게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마땅히 갈 곳도 없고 여비도 없어서 대각사에서 한달 가량 있었는데 대접을 잘해 주더군요. 한 도반이 찾아와서 나를 보더니 "스님은 왜 여기 있으시요?"하더

한국불교 初有의 快書

縮譯 韓國大藏經

누구나 동참하여 성취하여야 할 한국불교의 꿈!! 팔만사천법문 12권 축역

사단법인 한국불교금강선원 부설 불교정신문화원에서는 팔만대장경을 알기 쉽게 축역하여 다음 열 두권으로 출간합니다. 같은 종류의 경전들 가운데 반복된 말을 빼고 간단명료하게 정리하므로 불교를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6배판/각권1,300P내외/최고급양장/1집(전4권)값200,000원


안 덕 암 전태고종 종정
한국불교 1,700년 역사가운데 모든 불자들이 꼭 이루고 싶었던 快書

송 월 주 조계종 총무원장
불자라면 누구나 가지고 싶고 읽고 싶었던 꿈의 대장경이 현실로 다가왔다


이 법 훈 원효종 종정
이름만 들어도 즐거운 한국대장경 내용도 훌륭한 한국대장경


숭 산스님 세계선센터 총재
허약서아의 지혜가 우리의 서재위에서 생활화 된다


법원스님
② 方等部
초기대승불교의 성전들
이 책은 17품 60권의 방등대집경(方等大集經)과 미타정토삼부경(彌陀淨土三部經 미륵상생경·관무량수경·아미타경), 미륵정토삼부경(彌勒淨土三部經 미륵상생경·미륵하생경·미륵성불경) 약사유리광공덕경(藥師琉璃光功德經) 유마경(維摩經) 승만경(勝鬘經) 지자경(地藏經) 능가경(楞伽經) 원각경(圓覺經)등 10종 1백여권의 책들이 한데 집중되어 있다


성륜스님
⑤ 法華·涅槃部
대승불교의 기본성전
법화·열반은 부처님께서 일반하시기 8년전부터 설하여 그동안 권리한 방법에 의하여 중생을 교화했던 방편불교를 총정리하고 마지막 진실을 보이는 제법실상(諸法實相)의 보전(寶典)이고 중생성불의 기본원리를 밝힌 중요한 경전이다
법화경은 7권 28권에 동서고금의 해설서가 300부 1천여권에 달하고 열반경은 36권 25품을 해설한 책이 60여종 4백여권에 달한다


백운스님
⑥ 華嚴部
불교철학의 백미(白眉)
3부 화엄경 기운데 화엄을 기한 80권의 화엄경을 축역하였다
부진연기를 근본사상으로한 화엄경은 우주시대에 있어서 무한한 생명의 신비를 탐색하는 최첨단 과학이다
부처님께서 처음 성도후 이 경을 설했으나 중생들이 깨닫치 못하므로 아함·방등·반야·법화·열반의 모든 경전을 방편으로 설하게 되었다 한다 누구나 보면 부처님께서 깨닫으신 무진한 세계를 한눈에 조명(照明)할 수 있으리라


자원스님
⑦ 戒律部
불교윤리서적의 백미(白眉)
이 책은 불교계율에 해대에 해당되는 속청 소승율부(四分律, 五分律, 十誦律, 僧祇律등)와 대승불교의 기본율부로 알려진 범망경(凡網經), 영락경(瓔珞經)등, 그리고 중국과 한국등 동북아세아 불교에 큰 영향을 준 사미율의(沙彌律儀)와 초발심자경(初發心自警) 치문경훈(緇門警訓)등 30여종 8백여권에 해당되는 책들을 총망라하여 정리하였다

한국대장경 전12권 (밑줄은 旣刊)

1 아함부	7 계율부
2 방등부	8 논집부①
3 반야부①	9 논집부②
4 반야부②	10 조사어록①
5 법화·열반부	11 조사어록②
6 화엄부	12 밀교부

·전화주시면 즉시 우송하여 드립니다

T.(02)774-1061

불교정신문화원사업부

큰스님 수행한담

밝은 내일 약속해요"

"안거선객 10여명 한철 동안 '10악 참회' '발원문' 정진했더니 부안군내 범죄가 사라졌어요"



◇월인스님은 89세의 나이에도 물구하고 묘적암(현판은 서옹스님 글씨)에 혼자 기거하고 있다.

이 잠시 계시던 절이기도 했고 법당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역시 전쟁통에 불 타버린 뒤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춧돌 위에 법당을 다시 세우는 불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물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당시 지방에서는 비구승들이 지나가면 욕을하고 미워하는 시대였으니까요. 신도도 없는 절에 누가 불사시주금을 내겠습니까. 원경스님이란 분이 많이 도와 주었습니다. 나는 어설프게 만든 권선문을 들고 원경스님을 따라 나섰는데 부안군수와 군내 각면장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그들이 제법 많은 돈을 내 놓았고 그런 바탕에 염전하는 사람을 비롯한 지역 신도들도 십시일반으로 시주해 불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군요. "갈 만한 곳도 없고 여비도 없어 여기 있다"고 했더니 그 스님이 꽤 많은 여비를 주더군요.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도 없던터라 잘 된 일이었지요. 그래서 발길 닿는대로 찾아 온 곳이 월명암입니다. 와보니 절은 말할 수 없이 퇴락해 있었습니다. 누군가 저 옆 봉우리(쌍선봉) 아래 스님들의 유

불사가 다 되기 전에 나는 소공스님이란 분에게 마무리를 부탁하고 지리산 토굴로 들어갔습니다. 워낙 세속 물정에 밝지 못한 내가 불사를 주도하는데는 어려움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스님이 불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내소사로 가버려 월명암은 다시 쇠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터 안거철에는 10악참회와 발원문 정진을 참선수행과 함께 하고 있는데 신기한 일이 두번 있었습니다.

첫 해의 일입니다. 10명의 선객들이 모여 10악참회와 발원문 정진을 한철 했는데 그때 부안군에는 여름 한철, 그러니까 3개월간 단 한건의 범죄도 발생하지 않아 경찰들이 할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이 방송을 타고 전국에 알려졌는데 어떤 사람들이 "월명암에서 10명의 스님들이 참회정진을 석달간 한 공덕인가"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소문 덕택에 월명암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고 기도객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참선도량으로 널리 알려진 월명암이 이제는 참회도량으로도 이름을 얻게된 것입니다.

그렇게 참회와 발원을 하던 중 어느해에는 대중들이 참선수행만 하면 될 것이라며 참회와 발원정진을 하지 말자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선방에서 대중들이 하는 말인데 늙은이가 고집을 부리고 안 들어 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이런 외진 선방에는 대중들이 많이 찾아 오지도 않

도 참회 발원 정진을 열심히 하자"고 했더니 다들 그렇게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옛 부설거사의 이야기에는 공부를 위해 사사로이 정을 요구하는 사람을 아궁이에 넣어 죽였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서야 안되겠지만 무릇 공부하는 사람의 마음이란 그렇게 모질고 단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몇년 지리산의 토굴에 의지해 있다가 재작년에 네번째로 월명암을 다시 찾아 이곳 묘적암에 거처를 정하며 나는 "이제 나는 여기에 죽으러 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도 나이이고 한세상 남에게 큰 부끄러움 없이 정진해 왔으니 죽어서 다음 생에 더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 밖에 뭐가 남아 있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나는 참회하고 발원하는 마음을 버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 생식을 하고 내 손으로 빨래를 하며 사는 것도 나의 덧없는 일생을 참회하며 간절한 발원의 마음을 다잡아 가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봄꽃이 저토록 아름답게 피었지만 이내 져 버리고 말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걸 알면서도 저 꽃의 아름다움이 영원한 것인양 착각하고 그 아름다움에만 끄달려 정신을 잃어 버려서야 되겠습니까. 가을 되어 잎 지는 날의 쓸쓸함도 알아야 하고 엄동설한 속에서 안으로 안으로 봄을 준비하는 인고의 지혜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한그루의 꽃나무도 저토록 절절히 법문을 하고 있건만 우리의 귀는 세상의 악행과 더러움의 소리들만 듣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 봅시다.

그리고 내 살아 온 나날들과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을 때때로 돌아 봐야 합니다. 그것이 참회입니다. 헛된 망상의 끄나풀에 뒤엉켜 온갖 악업을 지어내는 흉한 모습이 보일 겁니다.

진실로 참회합시다. 오늘날 세상이 살기 어려워진 것도 한때 정신 못차리고 들떠 있던 시절의 업보 아닙니까. 보다 나은 내일을 원한다면 그만큼 어제를 참회하고 지금 발원해야 합니다.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모든 죄업을 참회하고 청정수행에 힘써 나와 남이 다 성불할 수 있도록 발원하는 데서 밝은 내일의 해가 떠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날이 바로 부처님 오신날이 아니겠습니까.

정리=임연태 기자

"엄동설한에 꽃을 준비한 봄나무처럼 중생들도 성불위해 항상 참회합시다"

골이 나뒹굴고 있다고 하더군요. 6.25전쟁때 빨갱이들이 월명암 스님 4명을 끌고가 돌로 쳐서 죽였다는 것인데 아무도 그 유골을 수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쌍선봉 아래로 가 보니 해골 4개가 나뒹굴고 있더군요. 주변에는 유골들도 흩어져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대로 수습을 히 화장을 하고 스님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천도재를 지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족상잔의 전쟁은 이 유서깊은 사찰에서 스님을 돌로 쳐 죽이는 비극까지 만들어 놓아야 했던 것이고 그 유골마저 몇년을 숲속에서 뒹굴어야 했으니 말입니다.

그해 겨울에 이 묘적암 자리에 초막을 짓고 그 다음 해부터 월명암 법당불사를 시작했습니다. 월명암은 학명(鶴鳴)스님

10년후에 다시 월명암을 찾아 기와불사를 하고 떠났다가 또다시 80년대 중반에 돌아왔습니다. 세번째로 월명암을 찾은 겁니다. 해남 달마산에 토굴을 짓고 앉아 있는데 무슨 인연인지 몰라도 당시 주지스님이 나를 데리러 왔기에 따라 왔습니다. 절이 제법 격을 갖추고 선방도 있어서 결제철이 되니 10여명의 선객들이 찾아 오더군요.

나는 안거를 들며 선객들과 '10악참회'와 '발원문'정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세간에 있건 출세간에 있건 수시로 짓는 악업을 소멸시키지 않고 어떻게 성불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나옹선사의 발원문을 조석으로 되새기며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다잡아 나가는 것도 중요한 수행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10여년전

는 시절이 아닙니까. 주책을 무릅쓰고 한마디 더 보태자면 해제비가 많고 적은 걸 따져가며 선방을 정하는 세태까지 왔다는 소리까지 들리는 터라 내 고집을 내세울 처지가 못됐던 겁니다.

그런데 안거 한달이 지나고 서울에서 신도들이 승합차를 타고 절을 찾아 오다가 논산근처에서 사고가 났는데 안타깝게도 한사람이 죽고 두 사람이 크게 다쳤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대중들에게 첫해 참회 발원정진을 했던 일과 부안에 3개월간 범죄가 없었던 일을 상기시켰습니다. "이 도량을 옹호하고 우리 승단을 돌보는 신장님의 가피력이 없다 할 수 없고 우리가 참회 발원 정진을 하는 바른 뜻이 자리이타의 보살행을 실천하자는데 있음을 잊지 말고 이제부터라

나와 경전 51

대승기신론



송 찬 우
중앙승가대 교수

"중생이 부처" 전하는 대승입문서 만법의 '생기환멸' 철저히 밝혀

〈대승기신론〉은 마명보살이 중생들이 대승에 대한 신심을 일으키게 하려고 저술한 논서이다. 경전에서는 말하기를 "불법대해에는 오직 신심만이 들어 갈 수 있다"고 하였고 또 "신심이야 말로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모체이다"라고도 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신심이란 대승법을 믿는다는 뜻이며, 대승법이란 우리들 중생심을 두고 하는 말이다. 모든 중생들의 마음은 본래 진애평등심이며, 보리심이고 대비심이다. 그러나 무시일념무명이 허망하게 요동을 쳐 '삼세육추'가 일어나 본래 없던 중생신심과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허망한 신심과 세계가 한 번 일어나자 생멸멸생이 중중무진으로 면면히 이어지면서 한량없는 생사고해에 침몰하게 되었다. 이것이 중생들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가 다하도록 겪어야 하는 참담한 현실인 것이다. 마명보살은 이러한 중생들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는 대비심 때문에 이 논서를 지어 모든 중생들 자신의 참모습이 본래 부처임을 바로 믿고 생사고해를 영원히 쉬게 하려 하였던 것이다.

〈법화경〉에서는 말하기를 "부처님은 일대사인연 때문에 세간에 출현하셨다"라고 하였는데 그 인연이란 다름아닌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인 이치를 전수하는 '이심전심'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보살이 본 논서를 지어 중생의 미혹을 열어 주고 깨닫게 하는 일도 기실 이심전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대승기신론〉의 문장은 간략하면서도 뜻이 풍부하며 매우 조직적이다. 전체는 서분 정종분 유통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정종분은 다시 인연분 입의분 해석분 수행신심분 권수이익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에서 이론적 측면은 주로 해석분에서 설해지고 있으며, 실천수행의 측면은 수행신심분에서 다뤄지고 있다.

주된 내용은 모든 중생들의 본래적인 참모습인 진여심을 나타내는데 있다 하겠다. 즉 중생이 처한 무상한 현상세계에서 진여법체는 항상하여 영원히 변치 않는 진귀한 성품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모든 언설상을 떠난 진여자체를 언어를 떠났다는 의미에서 '이언진여(離言眞如)'라고 한다. 이것이 곧 법신이고 불성이고 법성인 것이다. 그러나 언어를 떠난 '이언진여'를 굳이 언어적으로 설명해 본다면 그곳엔 청정한 공덕법이 만족하여 무루의 성공덕을 빠짐없이 갖추고 있으므로 언어를 의지한 진여공덕상이라는 의미인 '의언진여(依言眞如)'라고 하는데 이는 언설로 진여의 체상용을 설명할 수 있음을 말한다. 요컨대 이러한 중생심, 즉 진여심이 근본바탕이 되어 이 마음이 일체의 세간과 출세간법을 모두 포섭하고 있음을 말한다. 따라서 모든 중생의 마음을 의지해서 두 종류의 문이 있는데, 첫째는 중생의 근본마음인 '심진여문'이며, 두번째는 '심생멸문'이다. 이 두 종류의 문에 나아가서 일체의 만법이 생기하고 환멸하는 과정을 진여연기의 측면에서 구성하고 모든 중생들이 무명번뇌의 유래를 알게 하였다.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진여환멸의 수행로를 제시함으로써 본래청정한 진여성품을 회복하여 중생의 체상용 삼대를 보호하게 하여 종국적으로 마하연대승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즉 〈대승기신론〉은 중생일심을 근본종지로 하여 진여와 생멸의 두 문으로 열고 생멸의 근본을 철저하게 밝히고 미혹과 깨달음의 근원을 추구함으로써 그에 따른 수행의 정도를 지시하고 지관의 요묘한 문을 제시하였다 할 수 있다.

이 논서에 쓰여진 단어는 1만1천여개에 불과하지만 대승의 이치를 진여문에서 끝까지 다하지 않음이 없고 생멸문에선 현상의 사법을 두루 포괄하지 않음이 없다. 실로 〈대승기신론〉이야말로 대승불교의 입문서이며 선종에 있어서도 지침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승의 이치를 참구하는 불자라면 반드시 본 논서를 한번쯤은 깊이있게 탐구함으로써 광대한 불법대해에 이정표를 삼는 것이 좋을 것이라 여겨진다.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 재
· 팔괘 : 고급 나무 목관 팔각형
· 만다라 : 알미늄관에 직접 색채 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규격 : 45㎝×45㎝

◎ 보급가 : ~~₩300,000~~ ⇒ ₩ 15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5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지하수)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걸어놓았던 동관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연락주시는 대로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 책 자 내 용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5.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6.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권은 무엇인가?
7. 각 방권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8.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9.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0.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 · · · ·

甘露 · 街路茶

감로와 감로차

부처님 오실 때 하늘이 단이슬(감로 甘露)을 내려 불탄을 축복했으며, 감로를 부처님께 이슬처럼 뿌려 부처님을 축복하고 발원하여 소원을 성취하십시요.



감로에는 천연방부제와 천연방미제(곰팡이 방지) 성분이 있어서 옛부터 부처님 목욕을 시키는 관불회(灌佛會)때 성수로 감로차수(甘露茶水)를 사용했고, 국어사전에 「**감로차는 부처님께 올리는 달고 정한 차**」라고 되어 있듯이 감로는 불교의 성수입니다.

※ 감로는 비당성 천연감로차(非糖性天然甘露茶)의 추출액입니다.

◆ 특약점 및 남녀 영업사원 모집

동우산업(주)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58-1번지 1219호
· 전화 : 02)3675-5959
· FAX : 02)3675-5958

부처님 오신날 불기 2542년

연등축제 화보

"자비의 등불 국민에게 희망을"

26일 조계사 앞길과 동대문운동장, 종로 거리는 부처님 오신 뜻을 기리고 찬탄하는 연등축제의 물결로 빈틈이 없었다. 경제난 속에 봉행된 이날 연등축제에 참가한 불자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며 이웃의 고통을 함께하겠다"는 간절한 서원을 자비와 희망의 등으로 밝혔다. 화려한 장엄물과 질서 정연한 불자들의 제등행진, 다채로운 봉축마당의 진풍경과 뒷이야기를 전한다. 〈편집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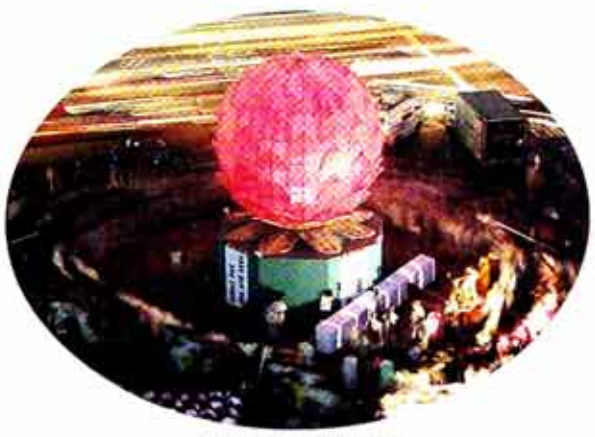
◇ 동대문에서 조계사까지 연등과 깃발, 장엄물로 수놓으며 제등행진이 펼쳐졌다.



◇연등법회에서 자비의 실천으로 경제난 극복을 서원하는 종단·단체 지도자들.



◇북한동포돕기 성금을 내는 고사리손.



◇시청앞에 설치된 대형연등



◇외국인도 연등만들기에 동참



◇각 사찰의 장엄물들은 제등행진의 멋을 더해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고바야시스님등 일본 축하사절단과 북한동포돕기운동 홍보판을 둘러보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부처님오신날을 찬탄하는 조계사 앞 연등축제의 회향마당

☞ 1면 '연등축제'서 이어집니다

이에 앞서 동국대 송석구 총장은 호소문을 통해 △북녘동포돕기에 사부대중이 적극 동참해 줄것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해줄 것 △보살행을 실천하고 포교사로서의 삶을 살아 갈 것을 호소했다. 연등법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석주스님 총무원장 월주스님등 국내 불교계 지도자와 템퐁 캄보디아 승장, 고바야시 전일본불교회 회장외 16명의 축하 사절단 등 불자 3만여명이 참가했다.

오후 7시부터 시작된 제등행진은 동대문에서 조계사까지의 길에서 펼쳐졌다.

연등축제를 마감하는 회향한마당은 오후 9시부터 조계사 앞길 특설무대에서 봉행됐다. 오색연등과 길이 120미터 규모의 촛불이 수놓은 "함께 이겨냅시다 다시 일어섭시다"라는 문구를 배경으로 삼소회의 합창, 촛불기원으로 절정을 이뤘다. 회향 한마당은 부처님 오신 뜻을 찬탄하며 불자다운 삶을 살아간 것을 서원하는 희망의 등을 하늘로 띄우며 막을 내렸다.

이모저모

바자회에 발길 몰려

○… '단 돈 5백원으로 북한 동포를 도웁시다.' 우리민족 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가 마련한 현옷 바자회에 작은 정성으로 북동포를 도우려는 불자들의 발길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봉축위, 외국인 설문

○… 봉축위원회는 연등축제에 참가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축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벌였다. 설문에는 4백여 외국인이 참여했다.

복지단체 '홍보' 눈길

○… 어느해 보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자비의 연등축제가 강조된 가운데 조계종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회를 비롯 각 복지단체가 축제현장에서 복지프로그램을 홍보하고 후원, 봉사자를 모집해 눈길을 끌었다.

통닭값으로 북돕기 성금

○… 5살쯤 돼 보이는 한 아이가 북동포돕기 성금 모금함에 1천원권 지폐 다섯장을 넣을때 아이의 어머니가 "엿 저녁 통닭 사달라고 조르는 걸 북한 아이들이 굶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통닭 살 돈으로 성금을 내기로 했다"고 설명해 주변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다.

대부분 가족끼리 동참

○… 올해는 유달리 가족단위의 연등축제 참가자들이 많았다. 아이들과 부모과 함께 연등을 들고 행진하는 장면은 IMF의 괴로마저 풀어주는 흐뭇한 볼거리였다.

2542 Buddha's Birthday 부처님의 자비로 이웃과 함께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본사
영축통림 통도사
방 장 노천 월하
주 지 월파 선진
총림대중 일동
▶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
전화 : 0523-82-7182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본사
지리산 화엄사
주 지 종 렬
총무국장 종 서
교 무 해 봉
재 무 덕 문
사 회 돈 성
포 교 진 조
호 법 각 진
⊙신도회장 : 최종대
⊙부 회 장 : 이남귀, 김영일
▶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12번지
전화 : 0664-782-7600
팩스 : 0664-782-7601

대한불교조계종
화 계 사
조 실 숭산 행원
대 중 일 동
▶ 서울 강북구 수유1동 487번지
전화 : 02)902-2663

삼천불 삼천배 참회기도도량
대한불교조계종
감 로 사
원 장 지 관
노 전 보 안
호 주 법 희
주 지 혜 총
총무 경법 교무 경성
재무 경원
신도회지도법사 곽 만 연
학생회지도법사 김 영 권
이 욱 태
윤 선 혜
사 무 장 이 춘 성
신 도 일 동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2동 33
전화 : 051)809-0926

대한불교조계종
능 인 선 원
사회복지법인 능 인 선 원
재단법인 능인불교 선양원
대한 불교 조계종 국 녕 사
주 지 지 광
신 도 일 동
▶ 서울 강남구 포이동 산 55번지
전화 : 02)577-5800
팩스 : 02)577-0052

"역시 불자는 다르다"

불자의 삶의 자세

김종서박사가 쓰는

불교와 교육 〈27〉 · 끝

불자로서 자부심과 긍지갖는 신행
인과 믿고 계율 지키며 보시 생활화

불자들이 칭송 받을때
포교는 저절로 이뤄지고
불국토 건설된다
"불법은 생활에서 구하자"



그림 · 이준석

불자의 삶의 자세는 무종교인,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과 어떻게 달라야 할지를 생각해 보자.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바가 같기 때문에 불자의 삶의 자세라고 하여 구태여 다를 수 있겠느냐고 반문할 수 있으나 불자는 삶의 모습이 분명히 달라야 하며 다른 종교의 앞에 서서 이끌고 빛을 비추어야 할 것이다.

첫째로, 불자는 불자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한다.

얼마 전만 하여도 불자가 불자임을 숨겨온 사례들이 있으며 현재도 그러한 경향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어떤 유치원 원장이 "나는 불자입니다만 불자임을 숨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유치원 원장이 기독교 신자이므로 불자임을 내세우면 따돌림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얼마 전에 택시를 탔는데 택시에서는 녹음된 독경소리가 들렸다. 나는 택시 기사에게 "혹시 손님들 중에서 불평하는 사람은 없습니까?"라고 물어 보았더니 "가끔 있지요. 그러나 나는 핸들을 잡을 때 독경소리를 들어야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불평하는 손님에게 설명하면 대개 이해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최근에 자가용차에서 염주를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극히 반가운 일이다. 백천만겁(百千萬劫)에 만나기 어려운(難遭遇) 불법을 만난 우리 불자들,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둘째로, 불자로서의 신행생활(信行生活)을 해야 한다.

불자들은 불경독송(佛經讀誦)의 생활을 이어 나가야 한다. 우리의 하루 생활을 보면 빈 시간이 그렇게 많다. 차타고 있는 시간, 걸어가는 시간, 누구를 기다리는 시간 등 수 없이 많은데 이 빈 시간을 불경독송으로 채우자는 것이다.

나는 20년간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아침에 달리기, 걷기를 1시간 정도 한다. 이때 나는 불경독송을 하면서 달리기, 걷기를 한다. 예불문, 반야심경, 법성게, 천수경, 금강경의 순으로 독송을 한다. 흥미로운 것은 금강경 독송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였지만 마음속에 잡념이 들면 깜빡 다른 구절인 옆길로 새게 된다. 깜짝 놀라서 본 줄거리에 다시 접어들게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본 줄거리를 한 번도 놓침이 없이 독송하면서 달리기 걷기를 한 아침은 하루 종일 그렇게 마음이 가볍고 편안할 수 없다.

신행생활로는 참선, 염불, 108배 등을 들 수 있는데 참선, 염불, 108배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루의 생활을 반성하면 빈 시간이 많다고 하였는데 이 빈 시간을 이용하여 '관음정근'을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운동구점에 가면 사람 수를 셀 때 쓰는 간단한 기구가 있는데 이것을 이용하여 하루에 5000번 염불을 하는 원을 실천하는 것도 말은 쉽지만 어려운 신행생활이다.

셋째로, 불자는 '인과의 법'에 따르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과의 법'은 우리 생활을 이끄는 지표이다. 나는 흔히 말하는 공수래 공수거(空手來 空手去)의 개념은 잘못된 개념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전생의 모든 업을 가지고 태어난다.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나고(이미 돈을 가지고 태어난다),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있는 집에 태어난다. 또한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사람은 별로 힘들이지 않는데 모든 일이 너무나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착한 일만 하는데 액운이 닥치는 등 분명히 빈손으로 태어나지 않고 전생의 업의 종자(種子)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지은 업을 모두 가지고 간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짐 잔뜩 짊어지고 간다.

따라서 우리는 선인(善因)을 짓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선인에는 반드시 선과(善果)가 따르고 악인(惡因)에는 반드시 악과(惡果)가 따르는 한 치의 어김없는 '인과의 법'이다. 불자는 '인과의 법'을 철저히 믿고 이에 따르는 생활을 해야 한다. 설혹 전생의 악인에 따라 금생의 악과가 나타나도 이 악과를 선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진의 생활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부부지간에 사이가 아주 나쁜 것은 전생의 원수들이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내가 당신으로부터 이렇게 미움 받는 것은 당신에게 지은 전생의 업 때문이니 당연한 일이다"라는 생각으로 원한의 마음을 자비의 마음으로 돌리는 생활이 바로 불자의 생활이다.

넷째로, 불자는 보시(布施)가 생활화되고 체질화되어야 할 것이다.

보시에는 재보시(財布施), 법보시(法布施), 무외시(無畏施)가 있는데 어떤 경우도 남을 도왔다는 생각없이 돕는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금강경에는 "동방허공을 사량(思量)할 수 있느냐? 남서북방, 간방(間方), 상하(上下) 허공을 사량할 수 있느냐? 무주상보시의 복덕도 이와 같아서 사량할 수 없느니라"라는 구절이 있다.

다섯째로, 불자는 도덕적 생활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종교인이 비종교인보다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는 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증거는 희박한 것 같다. 비행, 범죄 등은 종교인과 비종교인 사이에 차이가 별로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분명히 불자의 도덕적 표준은 높아야 한다.

다른 종교에 비하여 불교에서는 계율(戒律)을 엄격히 지킬 것을 요구한다. 불자로서의 자격을 인정 받으려면 수계식(受戒式)을 해야 하는데 수계식이란 다름아닌 불자로서 계율을 지키겠다는 서약식이다. 계율을 지킨다는 자체가 도덕적 생활의 실천이다.

따라서 불자는 누구보다도 도덕적인 생활을 하도록 힘써야 한다. 세상 사람들에 의해 "역시 불자는 다르다", "불자는 참된 인간이다"라는 칭송을 받을 때 포교는 저절로 이루어지고 불국토를 건설할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불법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구해야 한다. 서장(書狀)에서는 "일상생활을 떠나서 따로 불법을 찾는 것은 파도를 떠나서 물을 구하는 것과 같고 그릇을 떠나서 금을 구하는 것과 같아서 구하면 구할수록 멀어 진다", "불법은 일상생활하는 곳에 있으며, 행주좌와처(行住坐臥處)에 있으며, 차 마시는 곳에 있으며, 서로 말하는 곳에 있으며, 짓고 행위하는 곳에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다.

〈前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

그동안 수고해주신 김종서박사께 감사드립니다.

생활불교용어



그림 · 박구원

운명적인 것을 말할 때 불자들은 '그것도 숙업이다' '모두가 전생의 업이야' '업보를 받는 것이지' 등으로 말한다. 흔히 하는 '그것도 팔자지' 하는 말도 같은 맥락이다.

사주팔자란 사람이 난 해(年) 달(月) 날(日) 시(時)를 간지로 계산한 여덟 글자다. 간(干)은 갑(甲) 을(乙) 병(丙) 정(丁) 무(戊) 기(己) 경(庚) 신(辛) 임(壬) 계(癸)의 10가지다. 지(支)는 자(子) 축(丑) 인(寅) 묘(卯) 진(辰) 사(巳) 오(午) 미(未) 신(申) 유(酉) 술(戌) 해(亥)의 12가지다. 간과 지가 조합을 이루어 60갑자를 만든다. 사주팔자를 조합해서 운명을 보는 데에는 크게 두 방향이 있다. 그 하나는 과거의 숙명을 보는 것과 다른 하나는 운명을 피해서 개선해 나가는 이른바 개운의 법이다. 사주는 타고 났으나 다른 사주와 만나면 길흉과 길복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 개운법 사주의 골격이다. 따라서 사주팔자소관은 숙명론과 개척론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업보

과거세에 쌓은 업 금생에 영향
팔정도 육바라밀 실천 '팔자' 개선

불교에서 말하는 숙업은 과거세에 쌓은 업이 금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업(業)이란 행위와 의지에 의한 몸과 마음의 활동이다. 업은 어김없이 원인과 결과를 낳는다. 선업선과(善業善果), 악업악과(惡業惡果)의 인과응보(因果應報)의 진리는 분명하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생도 과거 업의 결과를 받는 것이다. 악업을 타파하고 선업을 쌓는 길로는 팔정도(八正道)와 육바라밀(六波羅蜜) 실천이 으뜸이다. 윤회전생을 마치고 해탈과 열반에 드는 것도 업장을 소멸하는데서 시작된다. 업장소멸을 위해 탐진치의 삼독심을 뽑아내고 8정도를 실천하고 보살도를 실천하는 전과정을 수도(修道)라고 한다. 모든 것을 숙업의 결과라고 보는 숙명론은 필요치 않다. 팔자도 고친다는데 숙업인들 개선하지 못하겠는가. 숙업은 수억만년 전부터 내려왔을 수 있다. 그 오랜 동안의 업을 70년 단기에 닦아 뽑으려면 서둘러야 한다.

※ 참고: 안길모著 '이판사판 야단법석'

도서를 제외한 영화, 영상, 음반, 공연 예술 등 다방면의 문화 예술을 즐길 수 있는
문화상품권 판매 실시!
책방 어시아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TEL. (02)737-0866, 732-1521

부처님오신날
부처님의 자비로 이웃과 함께

대한불교 조계종 노적사
주 지 석종후
신 도 일 동
청림 반야회 일동
■ 경기도 고양시 북한산성 內
TEL : 02-353-5016, 4924 FAX : 02-386-4198

정 각 사
주 지 이광우
신도회장 이원각성
대 중 일 동
■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1가 277-12
TEL : 02-742-1231

불광사 · 불광법회
대 중 일 동
■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160-1
TEL : 02-413-6062~2 FAX : 02-413-6781

삼 보 사
주 지 윤지원
신도회회장 홍성걸
거사회회장 박순배
연화회회장 차정순
신 도 일 동
■ 서울시 은평구 역촌1동 17-12
TEL : 02-352-6406 FAX : 02-389-3262

대한불교 조계종 삼성산 삼막사
회 주 서정대
주 지 이성운
대 중 일 동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 산10-1
TEL : 0343-71-5978

대한불교 조계종 마하연포교원
금강불교대학
주 지 일 지
신도회 거사림회
※ 오후 6:30 제등행렬 마하연출발 부평시가지 행렬
■ 인천시 부평구 부평1동 542-69
TEL : 032-523-9911 FAX : 032-511-6194

대한불교 조계종 아차산 영화사
부설 (관인)영화유치원
회 주 송월주
주 지 일 원
■ 서울시 성동구 구의동 9번지
TEL: 02-444-4321, 7215 FAX: 454-8177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말사 성보사
주 지 신 천
신 도 일 동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2리 산78-35
TEL : 0346-594-2683, 1397

동양최대 지장보살 건립 기도도량 · 기도원력 소원성취
대운산 묘림사
주 지 관 진
지장회 일동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면 내광리 778
TEL : 052-237-4366, 238-6264

두타산 삼화사
주 지 자광 이원행
신도회 일동
■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176번지
TEL: 0394-34-7661~2,8313 FAX: 0394-34-7546

부처님의 자비로 이웃과 함께

BBS 불교부산방송

BBS 사진가회

회 장 옥 명 수

부회장 임 재 선
감 사 오 창 관
총 무 지 오 식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63-6 한봉전 내과 內
TEL : 051-466-2618

BBS 나눔회

회 장 심 용 보

부회장 김 정 순
부회장 이 춘 식
감 사 장 일 선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33-13
TEL : 051-644-5114

대원사 동국제일선원

대 중 일 동

■ 경남 산청군 삼장면 유평리 2
TEL : 0596-72-8068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신 도 회 일 동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중리 522
TEL : 051-403-7077

국제참선도량 조계종 고려선원

주한외교사절단 참선도량
올림픽 선수단 참선도량
사찰내 고시원 참선도량

선원장 이 영 산 합장

⊙ 불기 2542년 부처님오신날 기념 ⊙
개원대법회

· 일시 : '98.5.3(일요일) 오후 7:00
· 장소 : 잠실 고려선원
· 특별참석 : 주한외교사절단
올림픽선수단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94-3
TEL : 고려선원 02-419-0108
고려선원고시원 02-412-9495

한국불교연구원 부산 구도회

회 장 한 동 대

총무부회장 마 성 락 교무부회장 진 성 태
섭외부회장 배 수 환 재무부회장 이 을 용
부녀부회장 김 경 자

회 원 일 동

■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2동 43-38 한동대 신경정신과 3층
TEL : 051-462-5062

예공종합건축사

⊙ 각 사찰 · 설계 · 건축전문 ⊙

대 표 정 운 영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64-24
TEL : 02-569-5290/02-482-5724

근본 불교도량 자비마을 근본불교학교

지도법사 붓다 팔라
대표선지식 대 원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3동 1423-7
TEL : 051-505-8396~7
FAX : 051-505-8398

성불불사 포교원

⊙ 석가세존 일대기 ⊙

팔상록 · 부모은중경 (금강경, 반야심경)
8폭 병풍 보급중

■ TEL : 02-831-2848~9
수신자부담 : 080-284-2848
FAX : 02-831-2849

보 현 선 원

선원장 정 여

대 중 일 동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3동 369-22
TEL : 051-853-5486

동아생명보험주식회사

⊙ 대 모 집 ⊙

· 대상 : 만 25세 이상 남 · 녀
· 대우 : 15일 교육후 30만원 교육비 지급.
6개월까지 30~50만원 보장

일 속에서 참자기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 명퇴자 적극 환영 ※

■ TEL : 051-818-7601~2

자 비 사

주 지 삼 중

대 중 일 동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6동 754-904
TEL : 051-467-7642

용 운 사

주 지 종 수

대 중 일 동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596
TEL : 051-327-7109

미 륵 암

주 지 사 숙

신 도 일 동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1동 767 12/2
TEL : 051-746-5432

正法弘布를 위하여 進一步 登一段하는 釜山佛教實業人會

회 장 서 춘 석
고 문 강 병 중

상임부회장 최 용 원 부 회 장 박 수 복
부 회 장 백 봉 도 부 회 장 김 윤 환
부 회 장 최 찰 감 사 이 근 철
부 회 장 김 종 태 감 사 박 수 관

회 원 일 동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74-14 국제 O/T 1805호
TEL : 051-466-7174~5 FAX : 466-7176

금정산 병풍암 석 불 사

주 지 달 원

대 중 일 동
화엄회원일동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산 2
TEL : 051-332-1690

대한불교조계종 고려선찰 만덕사

(부산지방 문화제 3호 만덕사지)

주 지 금산 박혜명

신 도 일 동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32-2
TEL : 051-334-3009

보안기획

늘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
관음사 출판부 도서출판 보안

불서전문출판/불교용품기획 · 제작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53번지 송옥빌딩 501호
TEL : 051-441-5038
FAX : 051-441-5039

유림한의원

원 장 이 하 경

■ TEL : 051-468-4660

PDS (pusan Data Service)

"여론조사 및 마케팅 설문조사의"
실사기관

■ TEL : 051-631-6556~7
FAX : 051-637-2435

염불공양 모임

보살도 정신으로 이타행 실천

우리 염불공양모임에서는 행이 따르는 참 보살도 정신으로 이타행을 실천하고자 하는 염불공양모임이 지난해 10월 19일 정식 발족,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몸소 실천할 단체로써 수행과 신행이 둘이 아닌 하나임을 입각, 불교의 생활화를 기하고자 일상속에서 봉사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가족이 없거나 자녀가 유학 · 결혼등으로 타지에 나가 있는 경우 갑자기 상을 당했을 때 염불공양을 올리고 가사일을 도우며 스님의 집전 주선으로 망인의 극락왕생을 천도하는데 그목적을 두고 있으며 불교의 근본사상인 布施 愛語, 利行, 同事라는 사실법과 맥을 같이 하는 순수한 봉사 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동 830-260 동양빌딩 6층
TEL : 051-645-5114

무척산 모 은 암

주 지 보안 지문

신도회장 박 자비화

신 도 일 동

■ 경남 김해시 생림면 생철리 산 180
TEL : 0525-35-9200

태고종 천 불 사

주 지 무 애

대 중 일 동

■ 경남 김해시 안동 27번지
TEL : 0525-33-0408

대한불교조계종 국 청 사

주 지 계 전
부주지 성 만

신 도 일 동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성동 397번지
TEL : 051-517-5003

심 천 서 예

원 장 양시우(심천)

■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2동 695-6
TEL : 051-633-3338

천보공업사

대 표 박 영 우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289-3
TEL : 051-315-2859

전통 불교 예술의 맥을 이어가는 고려불교예술원

⊙ 1층 : 불교용품 · 서적 매장
⊙ 2층 : 불상 · 범종 · 탱화 · 현장조사 및 전시

대 표 조 재 웅 (혜일)

임 직 원 일 동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지동 72-33
(하야리아 부대정문앞 주차장 완비)
TEL : 051-807-6842 FAX : 051-807-6843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법공양 페이지

가정 안식처로 이끄는게 그대로 정진

"화목하고 즐거우며 어려움 없이 한 가정 유지되어 나가는 길이 여러분 마음 행동 말에 달렸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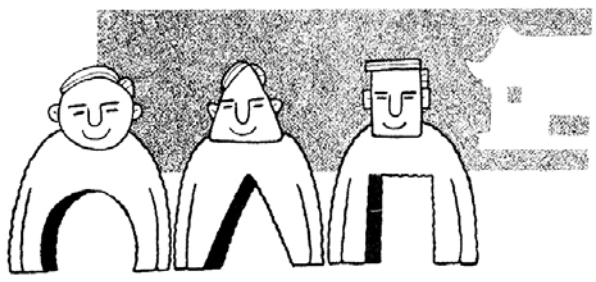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여러분께서 하늘과 땅이 둘이 아닌 도리를 공부하시는데 때로는 너무 힘들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힘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생활이 그대로 부처님 법이자 우리들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생활을 빼놓고 무슨 부처님 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종교라는 것도 없고, 법당이라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형상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 계시다면 부처도 없습니다. 부처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둘이 아닌 까닭에 생활 자체가 그대로 법입니다.

그대로 부처님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애고나 업보가 닥쳐오고 피치못할 일들이 닥쳐오는 것도 여러분의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그냥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해서, 마음이라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음, 마음, 마음이라니까, 그냥 어떻게 지나가는 게 마음인 줄 알지 마시고 똑바로 진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살아나가려면 큰 것, 작은 것 할 것 없이 고가 다가오는데,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내가 마음을 나쁘게 먹고 말을 아무렇게나 한다면 입력이 된다는 것을 꼭 아셔서 조심해야 하며 입력이 되면 그대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빠르게 나오고 더디 나오고 할 뿐이지 흘러버림 없이 그대로 입력이 돼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 하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잘 하셔야 합니다.

두번째는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정진한답시고 철야정진하고 기도간다고 하면서 가정을 등한시 하게 되니, 밥을 못 먹어서 채 고픈게 아니라 외로움에 때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가서 간식을 하게 됩니다. 남편들은 나가서 간식을 하게 되고 자식들은 나가서 방황하다 보면 문제 청소년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스님네들은 여러분의 가정과 이 도량이 둘이 아니라고 봅니다. 둘이 아니기에 아픔도 둘이 아니요, 가정이 파탄되는 것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안방에 들어가면 안방이 법당이요, 변소에 가면 변소가 법당이다'라고. 내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법당이 되는 것이죠. 내가 없다면 모든게 무효입니다. 그러기에 마음이 산란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거기다 되돌려 놓고 지켜보는 사람으로서 족하라는 겁니다.

절에 와서도 불일이 끝났으면 빨리 다녀가도 되는 것을 그냥 밤에도 정진한답시고 집에 돌아가지 않으니, 그 가정이 뭐가 됩니까? 자식과 남편을 배고프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전부터 내가 철야정진을 시키지 않는 까닭이 거기에도 있습니다. 자기 가는 곳마다 부처가 계신데 어찌 밤에 여기서 정진을 한다고 해서 부처님이 자기를 돌보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는다고 해서 안 돌보겠습니까! 처처마다 부처고, 처처마다 도량이고, 처처마다 자기가 그대로 법인데.

불교라는 것이 절에 나와서 기도나 하고 정성이나 들이고 이러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주전체에 인간들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이 세상에서 살고 돌아가는 이 자체가 종교이고, 불교입니다.

한 발짝 떼어놓고 가는 것도 정진이요, 오는 것도 정진이요, 앉았는 것도 정진이요, 누운 것도 정진이요, 서는 것도 정진이고 일하는 것도 정진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들 고정되게 생각들을 하십니까?

항상 여러분한테, 길을 가다 넘어지면 그 땅을 짚고 일어난다는 말을 했지요, 그랬는데 허공을 허우적거리며 일어나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되어도 이만저만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 있을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남편과 자식들을 돌보면서 가정을 행복하고 웃음넘치는 식구들의 안식처로 이끌어나가는 그런 태도가 그대로 정진입니다. 그것을 누가 하는 겁니까? 자기가 하는 거지요. 자기 하나로 인해서 일체 만법이 벌어지고 일체 만법이 작용되고 일체 만법이 들고 나는 겁니다. 빛보다 더 빠르다고, 심력은 그렇게 빠르고 힘이 있다고 항상 말을 했지요.

"분별심 갖고 붙들고 돌아가니 '업'이 돼요"

"소 고삐 쥐듯 자기고삐 자기가 쥐고 가야"

진실 한 마음으로써 모두 하나하나, 어떠한 일에 화가 나고 어떠한 잘못이 있고 하늘이 무너지고 깨지고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다 맡겨놓고, 부드러운 말과 부드러운 행동, 부드러운 뜻을 가지고 모든 것은 한군데에서 나고 드니까 '나는 그런 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이 오는 대로 심부름만 열심히 잘 하면 된다'는 믿음을 진실하게 가지고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보십시오, 엊그제께도 얘기했지만 만물만생이 여러분의 차원대로 능력대로 가지고 살다가 나중에는 몸까지도 다 놓고 가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공까지도 말입니다. 안 그럽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만이 그냥 한 찰나에 돌아갑니다. 지금 금방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구를 붙들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나 깨나 움직이는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이것도 쉴 사이 없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그냥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네 것 내 것 하면서 마음으로 붙잡고 이것을 해야 옳을까, 안 해야 옳을까 하는 분별심을 가지고 붙들고 돌아가니까, 그게 업이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다가오는 대로 업을 지으니, 그 업이 쇠입니다. 그래서 고·집·멸·도 이 사제법이 '고'하나만 없다 한다면 나머지 셋도 붙을 자리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망상이 나온다느니 뭐니 하는데 그런 게 다 어디서 나옵니까!

방편으로 말을 하자면 또 이런 게 있죠. 어느 집에 가서 머슴을 사는데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됐지, 주인의 일을 안팎으로 일일이 걱정을 하고 참견을 하면서 분에 넘친 행동을 한다면 주인도 싫어할 거 아닙니까. 머슴으로 살면 머슴의 본분만 지켜야 할텐데 웬 주인의 일에 참견이 그렇게 많습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살림은 주인이 다 알아서 해요. 그와 똑같은 얘깁니다.

여러분의 몸뚱이는 영원치가 못합니다. 시자와 같습니다. 옷이 헐면 바로 옷을 다시 갈아 입듯이 몸뚱이도 해지면 갈아입는 옷과 같습니다. 옷 입는 것은 수명윤회성을 오히려 입력시키는 겁니다. 애착을 가지고 붙들고 늘어지니까요.

에너지가 허공만한 큰 것이 있다 하면 그 에너지 덩어리를 여러분이 악으로 생각하면 악으로 쓰여지고, 선으로 생각한다면 선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악이고 선이고 한 군데서 나옵니다. 한 에너지 덩어리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악이다, 선이다, 양면으로 두 마디를 하지만, 천차만별의 악과 선은 가지가지로 다릅니다. 마음으로 악을 짓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마음으로 선을 짓기도 하고, 행동으로 선을 짓는가 하면 행동으로 악을 짓고 말로 악을 짓는가 하면 말로 선을 짓는 사람들이 천차만별로 많습니다. '고'가 고가 아니라 한 마디로 말해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차원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것이 나한테 다가오는구나, 그러니 고가 아니라 바로 나를 이끌어주는 재료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느 것 하나도 '고'가 될 게 없습니다.

'고'하나만 떨어진다면, '집착'도 떨어지고 '멸'도 떨어지고 '도'도 떨어진다 하며 개인 불지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 짧고 이 몸 옷 갈아입는 것은 수명이 좀 길다 뿐이죠. 또 옷이 맞지 않으면 얼른 벗어 버리고 딴 것 입습니다. 그와 같이 아이 적에 죽는 수가 있고 젊어서 죽는 수가 있고 늙어서 죽는 수가 있고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져갈 수 있을 지언정 나는 가져갈 수 없느니라, '영원한 나'는 영원하느니라 한 겁니다.

그런 데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고 하는데서 잘못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듯, 한 식구가 모여서 사는 것도 인연에 따라서 만나서 한 철 살다가 인연이 다하면 다시금 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무엇을 욕심내고 무엇을 내 것이라 하겠습니까. 나라는 조건 이 자체도 바로 헌 신같이 버려야만 됩니다. 다만 부처님 뜻에도 그렇고 육신을 낳아준 부모의 뜻도 그렇고, 또는 자식들을 낳아서 제대로 기르지 못하면 안 되겠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겠기에 육신도 잘 섬겨야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물질계와 정신계가 맞아 돌아가야 되겠죠.

애들을 공부시킨다 하더라도 정신쇠약이 되면 공부할 생각이 안 나고, 의욕이 생기지 않고 몸이 나른하고 졸립기만 하게 되니까, 그 점을 부모네들이 상식적으로 알아서,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피로회복제라도 먹여서 정신회복이 되게끔 돋구어 주어야만 모자라지가 않겠죠. 그래야 용기가 나고 의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아파보세요, 의욕이 생기는지. 아이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저녁·점심밥은 어떻게 먹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약을 먹이는 것도 밥을 먹는 거와 같은 것입니다. 약이라 이름지어 놨으니까 약이고, 밥이라고 이름을 지어 놨으니까 밥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무조건 아무 거나 먹여서 되는 게 아닙니다. 체질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요. 여하튼 여러분이 자식들을 기르고 부모를 잘 섬기려면 반의사는 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진실하게 내 마음에 모든 것을 돌려놓을 때 아플 때는 화해서 찰나에 약사가 됩니다, 내 주인공이.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거기다 말길 때는 관세음이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칠성이 되고, 독성이 되고, 용신이 되고, 지신도 되고, 모든게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생활 속의 불교 (167)

곤장 맡기 싫은 하인이 지켜야할 순종의 도리

"목 마르면 물 마시듯이,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듯이 그렇게, 일체를 주인공이 길잡이 하고 있다고 믿어 일체를 주인공에 맡겨라. 죽든 살든 어차피 낙엽 떨어지듯 떨어질 것인데 조막손처럼 웅크려 쥐고 어떻게 될까 보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다. 죽고 사는 문제마저도 주인공에 맡겨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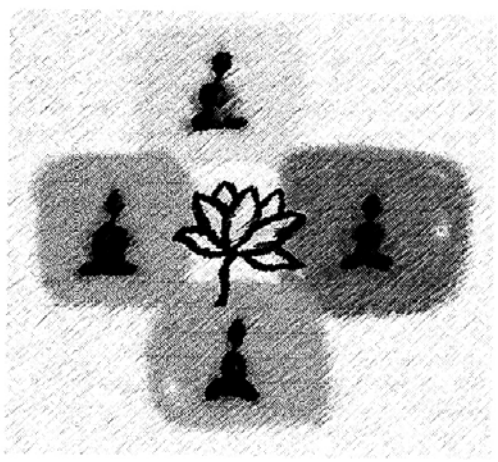
사람들은 놓으라고 하니까 놓고서 어떻게 살 수 있느냐고 되묻는다. 그러나 놓았기 때문에 참으로 살 수 있는 법이다. 중생의 마음 씀씀이는 일일이 생각을 지어서 일을 해야만 이치에 맞는 줄로 여기지만 도인의 마음 씀씀은 일일이 이치를 따지지 않고 푹 쉬어 있으면서도 조금도 빈 틈 없이 법에 맞게 된다. 놓았기 때문에 생각을 지어서 하는 어떤 행보보다도 더 원만하고 자연스럽고 깊고 아름답고 진실하고 이익된 행을 하게 된다."

하인의 삶은 주인의 의지에 좌우된다. 자기 나름의 생각과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앞세우기 전에 일체를 주인에게 맡기고 산다. 가라하면 가고 서라하면 서고 하라하면 하고 하지말라 하면 그친다. 스스로 시도하지 않는다. 시키는 대로 다만 열심히 할 뿐이다.

때로는 하기 싫다 또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도 먼저 주인에게 묻는다. 제멋대로란 없다.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면서 오로지 순종으로 일관한다.

하인의 입장에선 순종이 곧 미덕이다. 순종하면 할수록 주인의 힘은 커진다. 제 마음도 편해지고 삶도 넉넉해진다. 그러나 반대로 주인의 의지를 거스르면 그의 삶은 고달퍼진다. 질책과 벌을 자초하게 되고 심하면 쫓겨나게 된다. 그걸 아는 하인이라면 절대로 주인을 거스르지 않고 주인에 맞서지 않는다. 다만 순종할 뿐 조건을 따지지 않고 환경을 탓하지도 않는다. 그는 무조건이다. 스스로 수족같이 처신한다. 그는 주인이 자신보다 모든 면에서 월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는 매우 현명하다.

하인은 스스로 고민하고 괴로워 하지 않는다. 주인이 어련히 알아서 하리라는 점을 믿기 때문이다. 그는 회의하지도 않는다. 그에겐 후회도 없다. 흥하든 망하든 주인을 믿고 따르기만 하지 나서질 않는다. 나서보았자 주인만 못한 줄을 진작에 알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할 몫은 주인에 대해 믿음을 버리지 않는 일, 주인이 시키는 대로 꾀 부리지 않고 열심히 따르는 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믿는다. 그의 믿음은 철석같다. 철석같기에 그의 순종엔 티가 없다. 자기를 앞세우는 자만심 따위가 없다.



그 점에서 그는 아주 자연스럽고 자동적이다. 일마다 매번 믿는다, 따른다 하는 다짐을 안해도 그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아무런 길림이 없는 것이다. 그는 주인의 분신이기도 하고 때로는 주인의 일부이기도 하다. 그래서 조금도 불편한 줄을 모른다. 주인에게 다 맡겼기에, 생사까지도 놓았기에 '나'는 사라지고 주인의 손발로 주인의 일부로 살고 있는 것이다.

도를 깨우친 사람을 빼놓고는 누구나 다 '나로소이다.'하며 산다. 내 생각으로 살고 내 의지로 산다. 뭔가 이뤄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잔뜩 긴장해서 주의를 기울이며 때로는 고민하고 때로는 안간힘을 쏟아 붓는다. 그러나 잘해보겠다는 의지와 정열에도 불구하고 삶은 항상 고달프다. 되는 듯 싶다가도 안되는 일이 더 많은 것 같고 만족할만 하다 싶지만 늘 그렇게 되질 않는다. '내 인생 나로소이다.' 하는데도 삶은 내 생각 내 의지와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괴롭다. 때로는 붙만거리가 많고 때로는 지워버리고 싶기도 하다.

왜 뜻대로 안되는가?

나로소이다 하지만 그 '나'는 진짜 나가 아니다. 그 '나'는 하인일 뿐이다. 가짜 주인일 뿐이다 우리가 '나'라고 믿는 이 육신의 나는 하인이고 이 의지의 나는 진짜가 아닌 가짜이다. 진짜는 나로 하여금 자동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숨쉬게하고 말하게 하고 움직거리게 하는 주인공 그것이다.

말하자면 나로소이다의 그 나는 그 나에 가려져 있는 진짜와는 하인 대 주인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하인이 주인을 늘 무시하고 제가 주인 행세를 하려드니까 뭔가 장애가 많고 괴로움이 따른다. 순종하지 않는 하인이 편할 리 없는 것이다. 주인을 무시하는 청지기, 마당쇠를 기다리는 것은 곤장 밖에 더 있겠는가. 순종이 최선의 주의요 최선의 노력임을 알자. 믿자. 믿고 놓고 맡기자.

협찬 : 법혜 · 구혜리 · 원지선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처처마다 부처고 도량이고 법입니다"

☞ 15면에서 계속

자기의 용도에 따라서 거기다 놓는 대로 화해서 바뀌지기 때문에 천백억 화신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모든 것 일거일동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내 마음, 몸, 가정, 식구, 법당이 따로 있는게 아닙니다. 어느 사찰이든지 와서 정진하고 정성들이고 하는데 있어서 자주 와서 마냥 살다시피 한다면 스님네들은 좋다고 할지 모르지만, 가정적으로 볼 때는 결코 좋은 일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스님네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정이 내 가정이요, 그 사람들이 나요, 그 아픔이 내

"가고 오는 것 앉고 서는 것 눕고 일하는 살림 자체가 바로 정진"

아픔이며 모두가 '나'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어설피 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다들 가져야 합니다. 바로 그 아픔이 내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라 일도 그렇습니다. 이 나라도 가정 섬기듯 모두가 이렇게 해야 될텐데 모두가 남의 탓으로만 돌리고 비판하고 온통 이렇게 돌아가니까 한마음이 될 수가 없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한 계단을 더 올라서나 하면서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 사단이 많고 반면에 국민들만 힘들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가정에도 부모가 잘못하면 애들이 힘이 든단 말입니다. 애들한테 뭐라고 안 그래도 부모가 항상 싸움질이나 하고, 엇갈리고, 사네 못사네 하고 야단들을 한다면 그것을 듣는 자식들이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구, 지겨워'하면서 이탈을 하게 되지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 터지게 됩니다. 그러니 터진 다음에 말로 해서 몸을 붙들려고 애쓴들 소용이 없게 되죠. 또 몸을 붙들려고 하지 말고 마음으로 마음을 붙들어야 몸이 저절로 오게 되고 따뜻하게 되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종교가 어떠한 것인지, 불교는 어떤 종교인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자체가 바로 종교입니다. 그리고 불교입니다. 내가 항상 얘기했죠. '불(佛)'이라는 건, 일체 모든 생명의 근본이요, 모든 일체 생명의 근본에서 안팎이 없이 통신되고 교류하고 돌아가는 것, 혼자 살지 않고 포괄적으로 공생·공용·공체·공식화하고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교(敎)'라고요. 그러니 종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개신교에 있습니까? 가톨릭에 있습니까? '불'과 '교'라는 그 두 글자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를 놓고 맨날 믿고, 상대를 놓고 찾고, 상대를 놓고 원하고, 상대를 놓고 기도하고 이게 뭔 짓들입니까?

"불법은 어디에서 나옵니까"하니까, 어떤 선지식이 주먹을 불끈 내밀었다 이겁니다. 그게 뭔 뜻입니까? "불법이 어떻겁니까"하고 물으니, 또 어떤 선지식은 벌떡 내려와서 그냥 멱살을 쥐고 발길로 차고 막 두들겨 팼답니다. 그러니까 "아이구 죽겠다"고 하니 "아이구 죽겠다는 놈은 누구냐"하고 물었답니다. 말만 잘 들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식적으로나 상식적으로 경을 아주 외울만치 읽었다 하더라도, 내용 하나에서 수만 가지로 화해서 돌아가는 그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몸 떨어지면 입도 떨어지고 말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내가 말하는 것은, 못 났든 잘 났든 바로 내가 걸음을 걷고 있다, 누가 대신 걸어주지 않는다 이겁니다. 못났든 잘났든 자기만이 자기를 걷게 하고,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이리로 가라고 하고 저리로 가게 하고 이럽니다. 그러니 그것을 둘 아니게 다잡아서 다스릴 수 있어야 하겠죠.

촛불이 켜져 있는데, 촛불 심지가 비뚤어졌든가 한다면 심지가 비뚤어졌으니까 불도 비뚤어져 초가 한편으로만 타 가지고 촛농이 줄줄 다 흘러내립니다. 심지가 너무 길어서 비뚤어졌다면 잘라버리고 똑바로 세워 놓으면 촛불이 양면으로 흐르지도 않고 곧고 밝게 잘 켜질 것입니다. 그와 같이 사람도 마음이 그렇게 비뚤어졌으면 다시 다스려서 바로 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초심지 다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소 고삐를 쥐고서 똑바로 다스려라 하는 뜻에서, 소가 남의 집 파밭이나 배추밭에 막 들어가서 짓밟으면 안되니까 고삐를 잡고서 똑바로 길을 가거라 했던 거죠. 자기 고비를 자기가 쥐고서 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의 살림을 윤택하게 잘 해나가려는 것도 그렇고 회사도 나라도 역시 그렇고, 어떠한 일을 하든지 다 그렇게 스스로를 잘 다스려야 하는 겁니다. 전에 우리 신도 한 분이 남의 돈을 반이나 얻어가지고 회사를 경영하는데 사장이 됐으니까 보란 듯 목이 뻣뻣하게 굳어졌단 말입니다. 또 사장이 되고 나니 외식도 하게 되고 외식을 하다보니까 외식에 빠지는 수도 있고 하다보니, 정신이 회사에 있는 게 아니라 사장이라는 이름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 회사가 뭐가 됩니까? 나중에는 회사가 몽땅 남의 손에 넘어가고도 사는 집까지 다 날렸습니다.

이런 문제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스님네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해나가는 일에 자나 깨나 오직 정신을 거기다 두고서 삶의 보람을 자유스럽게 누리며 다른 사람도 돌봐주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욕심이 과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건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또 세세생생에 버림을 받아서 오간지옥에 태어나고 국냄새 밥냄새도 못맡고 벌레가 돼서 산다면 얼마나 치욕적인 문제입니까? 여러분은 지옥이 따로 있지 않고 이 자리에 있고 천당도 이 자리에 있다고 하니까 그냥 생각으로만 알고 계시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돌아갑니다. 살다가 금방 딴 모습을 가지고 나오는 수도 많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말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몸은 두고 가지만 업식은 가지고 간다 이겁니다, 한 치의 에누리 없이.

못 고치는 병이 많은데 박사님들이 연구를 해서 그 병을 고친다 하더라도 병은 고쳐질 수 있을 지언정 '그 병'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화해서 다른 걸로 바뀝니다. 어디서 어떠한 인과로 왔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마음 도리를 공부하는데 더욱 열심히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생활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알면 병이고 모르면 약이다 이러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알고 몰라야지, 몰라서 모르면 안됩니다. 알고 겸손하게 몰라야 됩니다. 그러니 어느 분이든지 정진을 한답시고 상대를 놓고 빌거나, 상대를 놓고 기도하거나, '해주시오'하고 주인공을 상대로 놓고 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무조건 믿고 거기서만이 할수 있다, 한다는 것도 거기서 나온 거니까 되게 하는 것도 거기다 하고 마음으로 굴려서 다시 놓을 수 있는 그런 수행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게 뭣꼬'하기 이전, 그냥 직선적으로 들어가는 공부입니다.

'관세음'은 관해 보고 이 세상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바로 진리인 것이기에 관세음이라고 이름지어 놓은 겁니다. 그걸 깨달으라고 그렇게 한 거지, 이름을 부르고 찾으라고 그런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네가 즉 관세음이니라, 네가 이 세상에 나서 살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보고, 듣고, 들이고, 내며 살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뒤집어서 자기로 볼 수 있다면 바로 여러분이 다 관세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서 완벽하게 ㅈ팡이가 섰다 하면 이 몸 속에 들은 의식, 업식이 한 데 합쳐져서 큰 에너지 덩어리로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심력입니다.

여러분이 날더러 항상 말을 하라고 그러는데, 말로 어떻게 다 하리까. 말해봤자 어떤 때는 소용없이 될 때가 있어요. 금방 말하고 돌아섰는데 행동은 그렇지 못하더라 이 소리예요. 여러분이 말로는 전부 안다 하더라도 행동 하나 하기가 어렵다 이 소립니다. 이론으로만 알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해야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화목하고 즐겁고 빛나게 살려면 행동부터 진실하게 하면서 잘못했든지 잘했든지 내가 이 세상에 났으니까 상대하고 부딪치기도 하니 내 탓으로 돌려야지, 남의 탓으로 원망하고 증오하고 자식도 인연에 따라서 낳았는데 자식이 잘못하면 '저 놈의 새끼가 누굴 닮아서 저러나, 제 애비를 닮아서 저렇지', '제 어미를 닮아서 저렇지'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자식의 뿌리를 북돋아주는게 아니라 오히려 싹을 망쳐놓는 겁니다.

부부지간도 그렇거니와 부모 자식지간도 그렇고, 위로는 묵은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진실하게 가져야 하고, 아래로는 내가 햇빛을 주는 것이 바로 뿌리를 도와주는 것이니 햇빛을 주게끔 심력을 길러야 하고, 이런 것이 우리들의 배움에 의해서 종교의 진의를 진짜로 실천해 나가는 그런 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과 자식들이 잘 되게 빌기 위해서, 산 기도를 백일을 한다, 절을 천번 한다 하는데 몸으로 천번 절할 것을 마음으로 뭉쳐서 일정례를 하는 것이 더 값어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마음에 항상 끊어지지 않게 전력을 다해서 진실로 둘 아니게 한다면 만번 하는 것보다 일배하는 것이 더 위대하지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체가 없이 털구멍을 통해서 수없이 들고 납니다. 이거 아시죠. 악하게 마음을 갖고 누구를 미워하면 털구멍을 통해서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더 증오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아니기에 둘이 아니게 여기에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고 거기다 놓을 때는 밝게 불이 들어와서 잘못된 것도 '내 잘못이구나'하며 후회를 하면서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리며 돌아가면서, 나중에는 '모든게 내 탓이야'하며 잘못을 뉘우치게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중에 가족들간에 의절을 하고 안 다니는 집들도 있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남자나 여자나 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 모습들을 가지고 얼마나 산다고 그렇게 모두 등을 져야 하고, 원망을 해야 하고, 증오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종교를 진실히 믿는다면, 어디 국한되어 있는 것이 종교가 아닌 줄 안다면 여러분이 살림하고 살아나가는 그 자체가 바로 진리이며 이 세상이 그대로 종교입니다. 그러니 정신을 바짝 차려서 촛농이 이리저리 흘리지 않도록 초 심지를 다스리면서 잘 해 보십시오. 그럼 이만하고 질문들 하시기 바랍니다. 들으시면서 혹별 것 아닌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별 것 아닌 곳 속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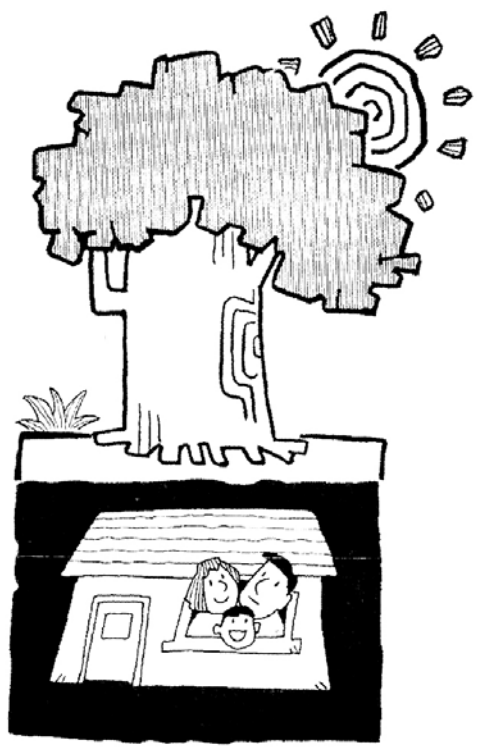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좋은 아기를 갖고 싶어요

문 결혼한지 4년째 되는 주부입니다. 아직 아이가 생기지 않았지만 저희들은 꼭 아기를 갖겠다든가 갖지 않겠다든가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아기가 생기는 것도 생기지 않는 것도 다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른들께서는 모두들 걱정이 대단하십니다.

정성을 들여야 한다고도 하고 스님께 여쭈어 보라고도 하십니다.

제 마음으론 아기와 좋은 인연으로 만났으면 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무심한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정성을 들여야 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답 일체 만물만생은 다 마음의 나툼이라는 걸 아시겠지요.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진리가 그러하니 그렇게 믿어야 하겠지요.

내 한 생각에서 모든 것이 다 나고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량분별로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근본뿌리 주인공 자리에서 들고 납니다. 말하자면 나무의 잎과 가장귀는 뿌리의 힘을 믿고 뿌리의 힘에 의해 지탱이 되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성을 들인다 안 들인다 하기 이전에 모든 것을, 아이를 갖는 문제까지도 주인공을 믿고 그 자리에 놓고 맡기는 게 우선적입니다.

믿음은 공덕의 어머니입니다. 내 마음이, 내가 믿고 맡기는 마음이 나의 근본 뿌리며 당을 때는 손가락 하나를 들어도 우주가 들썩거립니다. 깊이 관해보시도록 하세요.

왜 악심이 생깁니까

문 평상시에 나오는 마음 속의 악심도 주인공 자리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 억겁을 지내오며 자신이 지었던 업의 재생 테이프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저는 이곳 수양지에서 지난날 추했던 저의 모습을 정화하고자 노력하는 수인입니다. 여태껏 종교란 것을 모르고 자신의 잘난 맛에 멋대로 살아오다 이번엔 인연이 닿아 부처님의 도리를 공부하고 있는 미련한 중생입니다.

큰스님! 〈한마음 요전〉이란 책자를 뵙기 전에는 모든 제불 보살이 저의 주위에, 아니면 높은 곳에 있는 줄 알고 밖으로만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는 미련한 중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큰스님의 마음 도리를 친견하고는 '일체유심조'란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고 마음 공부에 전념하고자 하는 이 중생이 무엇인가 미심쩍어 감히 펜을 들었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에서 보면 모든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모두가 주인공 자리에서 행한다고 했는데 저의 좁은 사견으로는 주인공 자리는 본래 티끌 하나 묻을 곳 없는 청정심이라 생각하는데 어찌하여 그렇게 추하고 입에 담지도 못할 악심들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마음을 관하며 지난 일들을 뉘우치다가도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악심에 저는 헤매이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밉고 저주스럽습니다.

큰스님!

모든 중생심이 저의 현실과 비슷한지요?

이제 이곳 수양생활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저의 마음이 중심을 못 잡으니 괴롭기만 할 뿐입니다. 이러한 마음 자세로 사회에 나간다면 또다시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큰스님!

저의 이 조그만 사연이 큰스님전에 닿으리라 믿고 미련한 중생을 위해 앞으로의 마음 진로에 대해 좋은 말씀 기다리겠습니다.

답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일하고 밥먹고 잠자고 하는 일거수일투족에서 내가 한다, 내가 했다 라고 믿는 그 '나'와 처사님이 티끌 하나 묻을 데 없이 청정하다고 하는 주인공 자리가 본래는 둘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누구라도 부처가 될 수 있고 모든 중생은 다 평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본래 깨달아 있음에도 무지때문에, 무명에 가려서 자기의 본래 모습이 부처 모습이요, 자기의 본래 마음이 부처 마음인 줄을 모르고 지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한 공기주머니 속에서 살면서 이건 내것이다, 이건 내가 해야 한다 하며 다투고 사는 까닭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건데 그 '나'하는 생각까지 몽땅 본래 깨달아 있는 부처 자리에, 말하자면 주인공에 놓고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다, 내가 한다는 그 '나'가 쑥 빠지고 일체는 주인공이 한다고 철석같이 믿어 그 자리에 맡기고 살라는 말이지요.

왜 주인공은 청정한데도 악심이 나오느냐 하시는데 주인공 자리는 깨끗하다 더럽다는 말이 붙질 않습니다. 주인공 자리는 저 바퀴의 심봉과 같아서 에너지를 배출해 줄 뿐입니다. 비유하자면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갈 때에 기름을 넣고 엔진을 돌려서 움직이게 되는데 힘을 배출해주는 기름과 엔진은 운전수가 하기에 따라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지 제 스스로 이리 저리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주인공 자리는 일체를 나투게 하는 근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한 생각을 잘 할 줄 알아야 하고 잘 돌릴 줄 알아야 하지요.

내가 여러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안되는 일은 '주인공 잘 되게 하는 것도 너 밖에 할 수 없어!'하고 되돌려서 놓고 잘 되는 일은 '주인공, 감사해'하고 놓으라고 말입니다.

이게 다 방편 삼아서 일러드리는 것인데 이게 이치에 맞느니 안 맞느니 하고 따지는 것은 공부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믿고 놓고 맡기는 데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가시다 보면 '아하, 이래서 이런 말도 한 것이로구나'하고 느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체험을 하고 맛을 보기 되면 그때는 공부가 저절로 익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그렇게 미련한가, 왜 이런 악심들이 일어나는가 하고 탓을 하시기 보다 닥치는 대로, 나오는 족족 '주인공 너 밖에 없어! 네가 알아서 해!'하고 놓으세요. 그런 생각이 자주 드는 것은 전자에 내가 그런 마음을 자주 먹었던 때문인데 그걸 지우고 녹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 녹음된 테이프를 지우려면 다시 새것을 녹음하던지 아주 무심이 되어서 지우던지 해야 하겠지요? 이 주인공 공부도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놓으세요. 믿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면 구정물도 바꿔서 새 물로 쓰는 도리가 있습니다.

협찬 오병주

"남의 탓으로만 돌려 비판하니 한마음 안돼"

"초의 심지 바로잡듯 비뚤어진 마음 다스려야"

여시아문의 새책
대행 스님의 신행 문답 ①
생활 속의 불법 수행



삶의 진실에 다가서지 못한 앎은 또다른 병통입니다. '길을 찾는 이들'과 '대행 스님'이 나눈 이 책의 물음과 답변들은, 삶의 진실에 대한 절절한 의문과 대행 스님의 大用心이 빚어낸 깨달음의 利普입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A5신 410쪽
여시아문 펴냄
값 5,000원

이 책에 소개된 3800여 항목의 질의 응답은 현대불교신문 창간호(94. 10.15)부터 143호(97. 9. 24)까지 '길을 묻는 이에게' 난에 연재되었던 것을 주제별로 묶은 것입니다.

여시아문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02)737-0695, 팩스 : (02)737-0696

부처님의 자비로 이웃과 함께

대한불교 조계종 **연꽃피는 절**

주 지 원 공
신도회장 임 원 택

신 도 일 동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055-14
TEL : 062-943-0108

대한불교 조계종 **길 상 사**

신 도 일 동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전동 976-5
TEL : 062-955-4407~8

송광종합우산복지관

직 원 일 동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603-1
TEL : 062-941-8248

한국불교 법륜종 **칠 원 사**

■ TEL : 062-222-1691

한국불교 법륜종 **수 덕 사**

주 지 혜 명

신 도 일 동

■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산 125-5
TEL : 062-263-0550~1

대한불교 원효종 **서 천 사**

주 지 도 원

신 도 일 동

■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3동 산 207
TEL : 062-263-7562

한국불교 태고종 **대 원 사**
(구, 신선사)

주 지 태 현

신 도 일 동

■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3동 201-1
TEL : 062-263-7294

대한불교 조계종 **선 덕 사**

주 지 행 법

● 선덕사유치원 ●

신 도 일 동

■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3동 572-1
TEL : 062-263-4660

한국불교 법륜종 **동 곡 사**

주 지 혜 림

신 도 일 동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산 188-1
TEL : 062-232-6995

대한불교 조계종 **무등산 화림정사**

주 지 선 암

신 도 일 동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292
TEL : 062-227-3301

한국불교 태고종 **운 천 사**

주 지 혜 종

신 도 일 동

■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산 99-7
TEL : 062-375-0053

대한불교 조계종 **법 림 사**

주 지 무 진

신 도 일 동

■ 광주광역시 동구 내남동 649-1
TEL : 062-234-2207

선 염불 기도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태 현 사**

주 지 현 덕

신 도 일 동

■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금당산 231
TEL : 062-672-5505

대한불교 조계종 **달 성 사**

주 지 법 정

신 도 일 동

■ 전남 목포시죽교동 317(체육공원내)
TEL : 0631-44-1489

대한불교 조계종 **흥 룡 사**

주 지 상 운

신 도 일 동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123-1
TEL : 062-651-5083

대한불교 조계종 **원 효 사**

주 지 현 지

신 도 일 동

■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846
TEL : 062-266-0326

한국불교 태고종 **법 륜 사**

주 지 월 인

신 도 일 동

■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74-5
TEL : 062-375-7444

대한불교 조계종 **신 광 사**

주 지 경 주

신 도 일 동

■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1동 193
TEL : 062-261-1529

한국불교 태고종 **율 곡 사**

주 지 혜 령

신 도 일 동

● 법회 안내 : 음력 초이레(오전 10시)

■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269-4
TEL : 062-263-4575

대한불교 법상종 **법 융 사**

주 지 정 법 륜

신 도 일 동

■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20-3
TEL : 062-672-0866

대한불교 조계종 **정 안 사**

주 지 동 초

신 도 일 동

■ 광주광역시 북구 청옥동 1014
TEL : 062-266-3668/265-0801

광주불교교육원
광주불교문화대학교
광주불교문화대학원

이사장 이 범 식
원장겸학장 영조스님 대학원장 현지스님

이 사 진 지선스님 행법스님 현지스님
보영스님 명신스님 광민스님 이 순 규
고 명석 나 웅인 정 창오 임 동호
주 청연 박 원제 김 완수 정 지남
김진여성 정 의행 진 복순

■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252-17(봉산B/D 4층)
TEL : 062-228-9098 FAX : 062-228-9003

대한불교 조계종 **중 심 사**

주 지 영 조

신 도 일 동

■ 광주광역시 동군 운림동 56
TEL : 062-226-0107

대한불교 조계종 **죽 림 사**

주 지 지 향

신 도 일 동

■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번지
TEL : 0613-37-1442/31-1400

대한불교 조계종 **무량선원**

주 지 재 연

신 도 일 동

●법회안내 : 일요법회-매주(일)오전 10시 30분
기초교리법회-매주(수)오전 10시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830-8
(첨단지구 무양공원 옆)
TEL : 062-971-8626

한국불교 법륜종 **관 음 사**

주 지 석 도 광

신 도 일 동

■ 전남 담양읍 학동리 2구 625
TEL : 0684-83-6697

한국불교 태고종 **만 덕 사**

주 지 시 각

신 도 일 동

■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232
TEL : 062-652-4920

화신승복점

대 표 이 진 우

■ 광주광역시 동구 호남동 23-8
(피카디리극장 1층)
TEL : 062-223-8910
야간 : 062-224-8856
호출 : 012-616-8899

불교문화장학재단
대한불교 조계종 **천 룡 사**

주 지 벽 상

신도 및 이사일동

■ 광주광역시 동구 용연동 240
TEL : 062-234-1338.0108
FAx : 062-234-1337

승달산 선혜정사

주 지 능산당 성원
신 도 자비회
일심회
승달회 일 동
칠성회

■ 전남 무안군 몽탄면 사천2구 827
TEL : 0636-52-3508

몽 평 요 (두리토방)

대 표 몽향(정철수)

■ 전남 무안군 몽탄면 몽강리 453
TEL : 0636-52-3343

대한불교 조계종 **원 갑 사**

사부대중 일동

■ 전남 무안군 해제면 산길리 (강산) 676
TEL : 0636-52-7816

부처님의 자비로 이웃과 함께

대한불교 조계종 **관음사**(포교당)

부 설 **금천유치원**

주 지 현 법

■ 강원도 강릉시 금학동 29번지
TEL : 0391-43-2985/42-9975
(유치부) 0391-42-9976

동양한의원

원 장 최종백

■ 강원도 강릉시 금학동 95번지
TEL : 0391-43-7575

낙산사

주 지 지 홍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55
TEL : 0396-672-2448

등명락가사

주 지 청 우
신도회장 곽 기 웅
가섭회장 신 호 승
신 도 일 동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산 17
TEL : 0391-44-5337

녹원숯불갈비

대 표 강 명 화

■ 속초시 노학동 409-3호
TEL : 0392-635-0417

티피코시

대 표 김 경 남

■ 강원도 강릉시 금학동 36-2호
TEL : 0391-648-8511

이화피아노학원

원 장 홍 계 선

■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068-7
TEL : 0391-651-1315

영동기획

대 표 김 동 인

■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1116번지
TEL : 0391-653-2399

사회복지법인
소향원(무료양로원)

무료양로원에 입주할 노인분을
선착순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 **자격** : 만65세이상 남·여 생활보호대상자

■ TEL : 0612-73-6406/73-8767

대한불교 조계종 **약사사**

주 지 정 우
신 도 일 동

■ 전남 목포시 중앙동1가 1번지
TEL : 0631-42-0928

대한불교 조계종 **약사암**

주 지 종 일
신 도 일 동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12
TEL : 062-222-9844

대한불교 법화종 **수인정사**

주 지 최선명
신 도 일 동

■ 전남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74
※천도재 법회 연락처 TEL : 0636-52-1214

대한불교조계종
무등산여의봉 **무각사**

주 지 광 민
신 도 일 동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산 1번지
TEL : 062-383-0108

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 장 현 지
부회장 혜 광 경 주
기획실 벽 상 동 초
총무 광민 교무 정인 재무 명신
섭외 월인 호법 법일 문예사회 일명
홍보 토진 사업 시각 의전 무등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산 1번지
TEL : 062-376-3233~5

대한불교 조계종 **향일암**

주 지 종 삼
신 도 일 동

■ 전남 여천구 돌산읍 율림리 산 7번지
TEL : 0662-44-4742

한국불교 원각종 **대원사**

주 지 석 진 천
신 도 일 동

■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290-1
TEL : 062-227-3729

한국불교 원각종 **호남종무원**

종 도 일 동
천불천탑기도도량
강진 옴천사

■ 종무소 전남 강진군 옴천면 개산리 391
TEL : 0638-33-2233,3233

한국불교 태고종 **태평사**

주 지 동 환
신 도 일 동

■ 전남 나주시 노안면 영평리 37-1
TEL : 0613-32-8270

대한불교 조계종 **연화사**

주 지 명 신
신 도 일 동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448-35
TEL : 062-227-7295

한국불교 태고종 **장원사**

주 지 금 용
신 도 일 동

● **법회안내** : 초이레법회(오전10시)
학생법회(토, 오후2시)

■ 전남 장흥군 장흥읍 남동리 110
TEL : 0665-63-2687

대한불교 조계종 **향림사**

회 주 천 운
주 지 법 인
신 도 일 동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251-3
TEL : 062-375-7600

동부요업(주)

● 한국전통기와의 아름다움을
동부요업이 이어갑니다.

대 표 박 문 환
직 원 일 동

■ 전남 구례군 간전면 간문리 623-1
TEL : 0664-781-0987 FAX : 0664-781-0980

마이산탑사

주 지 이 왕 선
신 도 일 동

■ 전북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 8
TEL : 0655-33-2900,0303

삼보기업

● 철근 콘크리트 전문시공 업체 ●

대 표 김종금(원앙)
직 원 일 동

■ 전 화 : 062-511-1781
핸드폰 : 011-602-0565

전북 군산불교대학

학 장 박 순 호
부 학 장 김 성 구
교무처장 김 순 조
학생처장 김 영 길
학 인 일 동

● 강의시간 : 불교학과 - 매주금요일(오후7시)
법사학과 - 매주수요일(오후7시)

■ 전북 군산시 경암동 644-3
TEL : 0654-445-4562

군산 흥천사

주 지 지 환
신 도 일 동

■ 전북 군산시 금동 2-17
TEL : 0654-445-3769

대한불교 조계종 **월출산 도갑사**

주 지 범 각
신 도 일 동

■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도갑리 8번지
TEL : 0693-72-0521

한국불교 태고종 **향림사**

주 지 보 련
재 무 법 공
총 무 정 관
신 도 일 동

■ 전남 순천시 석현동 230
TEL : 0661-52-6380

성경엘리베이터(주)

⊙승강기·주차기 보수전문업체⊙

대표이사 전 재 성
직 원 일 동

■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88-10 임동 B/D 3층
TEL : 062-528-0462~3 FAX : 062-528-0463

광주불교사암연합 신도회

신도회원 일동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산 1번지
TEL : 062-376-3223

송광사 조계산의 두 사찰 선암사

오랜 도반은 아름답다

매년 두차례 친선축구…강원·선방도 교류

조계산 서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는 조계총림 송광사와 동쪽의 태고총림 선암사(조계종 제20교구 본사)는 옛날부터 수행, 사세 등 모든 부분에서 보이지 않는 경쟁 관계지만 친교도 두텁다.

선암사는 현재 조계종과 태고종의 분규에 휘말려 있지만 두 사찰의 교류는 예나 지금이나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연스러움 그 자체다.

지난 15일 송광사 행자스님 20여명이 선암사를 참배하고 대중스님들과 점심공양을 함께했다. 강원이나 선원, 사중스님들이 조계산을 정기산행코스로 잡고 있는 두 절의 스님들은 서로 오가며 점심공양과 차와 대화를 나누며 친목을 다지고 있다.

매년 2회씩 열리는 강원생들의 축구등 운동경기는 분규 이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실력도 엇비슷해 역대전적도 백중세다. 경기가 끝나면 두 절 주지스님들이 격려를 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진다. 이번 초파일 후에도 축구경기를 한차례 갖기로 서로 협의가 이뤄진 상태여서 열전을 앞둔 스님들의 각오 또한 대단하다.

공부하는 데에도 울타리없는 전통은 여전하다. 옛날 강백들이 서로 강원과 선원을 오가며 가르치고 배웠던 전통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선암사 스님 2명이 송광사 강원에 유학가 사교과와 대교과에서 공부하고 있다. 강원 못지않게 선방교류도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

최근에는 허경만 전남도지사 부친 영결식에도 송광사 스님과 선암사 스님들이 함께 염불의식을 봉행했다. 이와함께 송광사와 선암사는 각 사찰의 내부행사에도 서로 참가하여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송광사는 가을수련회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조계산 산행시 점심공양을 선암사에서 하는등 두 사찰의 관계는 종단분규를 떠나 유별나게 가깝다.

송광사의 한 스님은 "종단간의 분규상황이지만 선암사와의 관계는 옛날과 다를바 없다"며 선암사가 빨리 정상화되길 바랬다.

선암사 스님도 "분규는 종단간의 문제일 뿐 전통적으로 가깝게 지내온 두 절의 관계는 계속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김원우 기자〉

"총무원-신도회 협의기구 구성"

월주 총무원장 밝혀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24일 총무원을 방문한 홍옥진씨 등 중앙신도회 운영위원들에게 "중앙신도회와 총무원 관계자 4~5인이 참석하는 실무자 협의기구를 구성해 '중앙신도회 발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를 논의하자"고 말했다. 월주 총무원장은 이어 "협의기구 구성 전에 신도회의 체제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월주 총무원장은 이날 신도교무금은 현재 회관 건립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고 밝혀 신도회 지원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재건회장의 사퇴문제는 신도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밝혔다.

"종헌개정-규제해제"

선학원, 조계종에 요구

선학원(이사장 정일)은 9일 조계종이 발표한 성명에 대한 반박성명을 발표, 조계종이 종헌 9조3항의 부분적 개정과 현재 실시중인 선학원 소속 스님들에 대한 규제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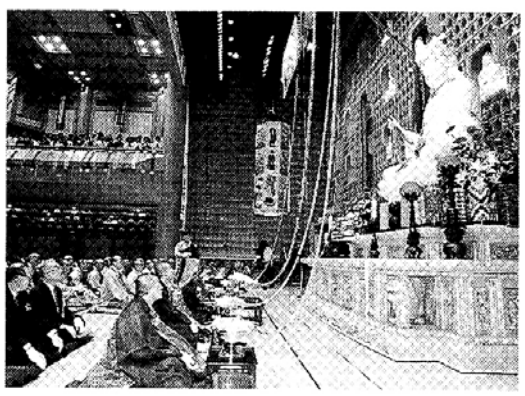
선학원은 16일 법인 임원일동 명의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종단의 요구사항을 들어 줄 수 없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재단과 종단의 현안문제는 선학원 일부 이사의 문제가 아니라 재단법인 법리상의 문제요 상호 불신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청소년사경 작품대회

파라미타, 5월12일까지

파라미타(회장 현근스님)와 전국교법사단(단장 고우익)은 전국청소년 사경작품을 5월12일까지 공모한다.

우수작품 5백여편을 시상하게 될 사경 공모전의 시상 및 회향식은 5월24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다.



관문사 옥관음상 점안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26일 관문사에서 1만5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난국 극복기원 및 옥관을 존심 봉안 점안식'을 봉행했다 경제난 극복에 전 종도의 발원을 목적으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는 실직자 돕기 자비보시함을 설치하고 모금활동을 펼쳤다.



금식의 날 '북한동포를 위한 국제금식의 날' 한국대회가 25일 서울 올림픽 제2체육관을 비롯 25개 도시에서 개최돼 5만여명이 동참했다. 이 행사는 세계 36개국 107개 도시에서 동시에 열렸다.

새불교승가회

실업가정에 쌀보내기 전개

5월20일 1차분 전달

새불교전국승가회(공동회장 진관·석답)가 '실업자 가정에 쌀보내기 운동'을 전개한다.

새불교전국승가회는 2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98년 주력사업인 '생명존중사상으로 생명살리는 환경만들기'의 일환으로 궐칠 '실업자 가정에 쌀 보내기운동'에 대한 불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실업자 가정에 쌀보내기 운동은 실직 가족들의 고통을 승가가 분담한다는 취지에서 전개되는 것으로, 우선 회원스님과 전국 유대사찰을 중심으로 모금활동을 시작해 전 종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불교사회운동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새불교전국승가회는 5월 20일 1차 전달에 이어 매월 1회 구청과 실업자동맹, 쉼터에서 추천받은 실직자 가정에 쌀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국립공원 국고로 관리"

최재욱 환경장관 밝혀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최재욱 환경부장관은 20일 "지금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 공원관리업무가 입장료관리 위주로 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국고로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국회회관에서 20일 열린 98 금수강산국립공원사진대전 개막식에서 밝힌 최장관의 입장표명은 2월 정권인수위가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추진의사를 밝힌데 이어 처음 거론된 것이다.

조계종

교과서연구위 18일 창립

조계종포교원 부설 교과서연구위원회가 창립됐다. 18일 포교원 2층 강의실에서 열린 창립대회에서 포교원장 성타스님은 위원장 원혜스님(포교원 포교부장)과 부위원장 성수스님(포교국장) 법경스님(연수국장) 고우익법사(교법사단장) 임완숙교사(교사불자연합회장), 5개 분과위원장에게 각각 위촉장을 수여했다.

교과서위원회는 각 분과위원별로 초, 중, 고 교과서에 나타난 불교관련 내용의 검토와 이에 따른 교사용 지도자료를 개발, 10월초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제7차 교육과정에 대비한 중·고등학교 불교교과서도 집필한다.

봉축기간

교계 효도잔치 '풍성'

부처님오신날과 어버이날을 맞아 경로 효도잔치가 푸짐하게 마련됐다.

능인선원(원장 지광)이 23일 서울 강남 구룡마을 노인들을 대상으로 경로잔치를 연데 이어 청담종합사회복지관(관장 혜성)과 구로종합복지관(관장 설응)이 28일, 30일 각각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대구에서도 화성사(주지 종묵)가 24일 효도잔치 한마당을 벌인 것을 시작으로 영남불교대학(학장 우학)과 법왕사(주지 실상)가 25일 각각 노인위안잔치를 마련했다.

어버이날을 기념한 효도잔치도 잇달아 열린다.

길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제원)은 5월6일 복지관 강당에서 무의탁 독거노인 등 불우한 노인 1백60명을 초청, 문화공연 등 '어버이날 감사잔치'를 연다.

대구 관오사(주지 지도)는 5월3일 범물근린공원에서 '심청이 효도잔치 한마당'을, 동화사 불교사회복지회(회장 성덕)는 5월12일부터 28일까지 경로당을 순회하며 효사랑 나눔사랑을 펼친다.

봉사 연예인 임희춘씨가 회장으로 있는 노인복지후원회는 5월4일 대구 시민회관에서 '노인 장기자랑 예술제'를 연다.

목탁소리

'유신론(有神論) 교과서'

정성운 〈취재1부 차장〉

교과서는 초·중·고등 학생들에게는 마치 성전같이 취급되는 매우 중요한 책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세상을 보는 창문이며,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러기 때문에 각계의 권위자가 집필에 참여하며, 사진 한 컷, 토씨 하나도 꼼꼼하게 감수의 절차를 거친다.

그런데 18일 열린 교과서연구위원회 창립대회에서 고우익 동대부고 교법사(교법사단장)의 '중학교 국정교과서에 나타난 불교 관련 내용을 통한 청소년 교화 방안 연구' 발표를 보면 교과서가 과연 투명한 창문인지 의구심을 거둘 수 없다. 교과서의 종교관련 기술이 지나치게 유신론적이며, 비교육적 예문이 있어 시정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중학교 2학년 도덕교과서는 종교의 개념을 '인간의 불완전함을 깨닫고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절대자를 믿고 의지하며 살고자 한다. 이 때에 추구되는 경건하고 성스러움이 바로 종교적 가치이다'고 설명하고 있다.

고 교법사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유신론적 종교 정의에 입각한 편협한 기술"이며, 마땅히 다시 쓰여져야 할 부분이다.

또 같은 교과서 '청소년과 종교생활'에서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종교갈등을 다루면서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어머니 때문에 고민하는 자식을 설정하고, '공부가 중요하지만 신앙 생활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가운데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다'고 쓰고 있다.

상황설정의 의도를 의심케하는 부분이다. 다종교사회에서 관용의 정신을 가르치기는 커녕 가정 내 불화를 예로 든 것은 지극히 비교육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교육부의 정광삼 교육과정평가정책관은 "종교관련 내용은 만인이 모두 공감하기 어렵다. 포교원에서 공식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새 교과서 집필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교과서의 집필-감수 과정에 참여할 때만이 시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공은 다시 불교계로 넘어왔다.

뉴스 & 뉴스

양심수 초파일사면 촉구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한 불교대책위(위원장 진관)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양심수 전원석방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23일 청와대에 전달했다.

탄원서에는 원로의장 혜암스님 등 원로스님들과 조계종 교육원, 포교원, 민족문화수호를위한종지모임 등이 서명했다.

청화(실천불교전국승가회 회장) 지선(백양사 주지) 효종스님(중앙스가대학 총동문회장) 등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법무부 장관이 '부처님오신날 양심수 사면석방은 없다'라는 발언은 심각한 우려와 실망감을 낳게 한다"고 밝혔다.

속초복지관 봉사단 결성

속초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지홍·낙산사주지)은 18일 속초시 문화회관에서 '자원봉사단 결성 및 자원봉사자 대회'를 봉행했다. 이날 결성된 자원봉사단은 의료 법률자문 밑반찬요리 등 8개팀 2백50여명으로 구성됐다.

남장사 전법도량 현판

상주 남장사(주지 성응) 전법도량지정 현판식이 22일 봉행됐다. 현판식에 이어 7`념 순회법회가 상주시 문화회관에서 경과보고, 법어, 지원금 전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현판식에 앞서 지역기관장 및 신행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불교발전과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제보=이종철 명예기자〉

삼광사 광명유치원 낙성

천태종 부산 삼광사(주지 덕수)는 20일 광명유치원 낙성식을 봉행했다. 부산 장전2동에 소재한 광명유치원은 건평 9백평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수영장 다도실 과학실 시청각실 등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다. 모집정원은 10개반 4백명이며 월 1회 어린이법회와 어머니법회 등도 개설한다.

대구불교합창제 성황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 제6회 대구경북불교합창제가 22일 대구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합창제는 경주 선재어린이합창단, 영남불교대학 가릉빈가합창단, 한마음선원 송언합창단 등 8개 합창단이 참가해 아름다운 화음으로 이땅에 부처님 오심을 찬탄했다.

대광맹인불자회 산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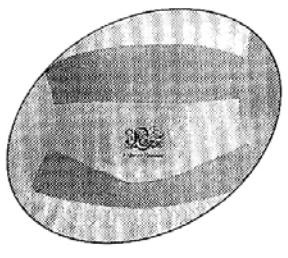
아나율존자의 후예들이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팔공산 갓바위에 올라 부처님 오신 뜻을 기렸다.

대광맹인불자회(회장 박석규)는 19일 팔공산 갓바위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 시각장애인 산행대회를 가졌다. 올해로 7번째인 산행대회에는 3백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를 위해 대구개인택시정법회가 차량 50대를 지원했고, 보현사 청년회 성심회 서문자비거사림회 동구청 일심회 등 신행단체들이 길 안내를 맡았다.

여성고민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자연향) 테크랜과 멘톨이라는 정유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지방질을 산화시킵니다.

향비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기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사례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생리때가 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벌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영채 박사의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자신도 몰라 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 등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더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서초구 김미선)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상담실 080-200-4545, 02)755-9821

雲峰禪師·香谷禪師 法語錄 出刊!



운봉노스님 55주기 및 향곡스님 20주기를
추모하는 운봉·향곡선사의 법어를
담은 2책 1질 완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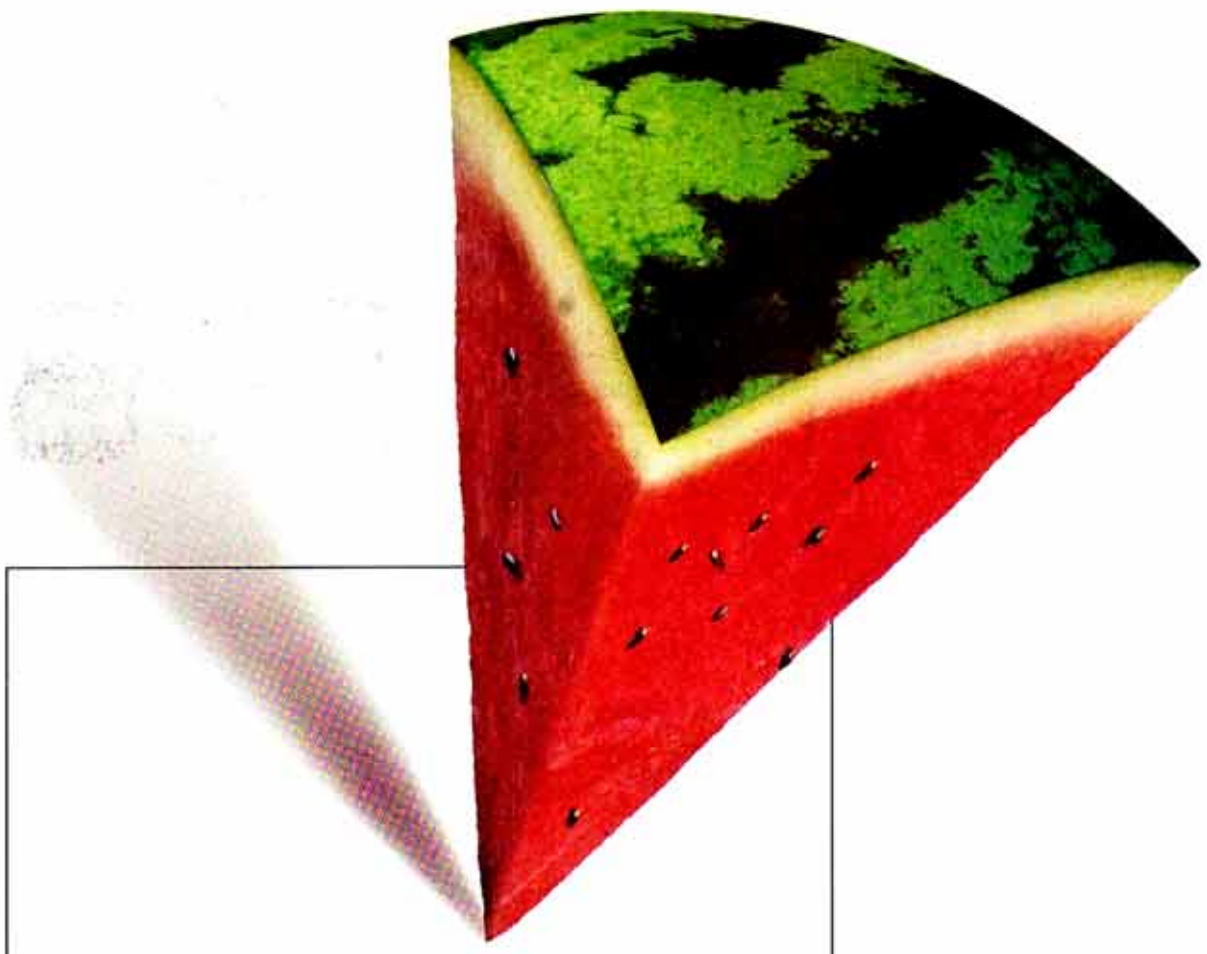
◆ 제 목 : 운봉선사 법어 1책, 향곡선사 법어 1책
◆ 내 용 : 行狀·上堂·示衆·擧揚·頌句·書簡등
◆ 사 양 : 4×6배판, 各200쪽 344쪽 분량, 양장제본

금번 향곡선사문도회에서는 「雲峰노스님 55주기 및 香谷스님 20주기」를 추모하는 뜻으로, 수년 전에 간행되었던 두 분 스승님 法語錄을 再編하고 補完하여 雲峰禪師 法語·香谷禪師 法語로 2册 1秩을 出刊하게 되었습니다.

"향곡선사문도회는 두 분의 뜻을 기려 諸方의 스님들께 법공양을 하오니 어록을 봉지코자 하는 스님들은 연락바랍니다. 즉시 우송하여 드립니다."

○ 연락처 : 대구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1동 1982-4
여여선원, 혜운스님 053)622-0336
부산 - 051)727-2035, 051)727-4694

걸면 걸리는 걸리버



직접 속을 따봐야

맛과 품질을 알 수 있습니다.
다 엇비슷해 보이는
디지털 휴대폰과 PCS폰-
꼭 한번 걸어보고 사십시오.

남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자기 귀를 믿으시겠습니까?
좋다는 디지털 휴대폰과
PCS폰들이 정말 소문대로인지-
꼭 한번 걸어보고 선택하십시오.
걸어보면 역시 걸리버입니다.



못받은 전화는 메시지로 한글SMS
음성메시지는 물론 대형 LCD창으로 한글 문자메시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개성있게 울리는 멜로디 작곡기능
멜로디를 직접 입력하는 멜로디 작곡기능으로 나만의 개성있는 벨소리를 냅니다.

본래 소리를 그대로 EVRC 채용
첨단 EVRC(Enhanced Variable Rate Code)칩이 소리의 손상과 잡음을 없애줍니다. (HGC-110V, HGC-710V)

말만 하면 걸리는 음성인식 기능
우리기술로 개발한 음성인식 기능으로 말 한마디면 전화가 바로 걸립니다. (HGC-110V, HGC-710V, HGP-1500V)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

휴대폰도 PCS폰도 걸면 걸리는 걸리버입니다

● 제품문의 및 고객불편상담 : 02)538-1472(서울 경기지역) 080-980-1472(기타지역) ● A/S접수 및 상담 : 080-930-1472 ● 인터넷 주소 : www.hei.co.kr

현대전자 HYUNDAI
Investing Today, Leading Tomorrow



그림 · 박구원

우리는 참불자인가

어떤 사람이 참불자인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이 참불자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자를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비불자적 삶을 살고 있다. 생생한 부처님의 법문을 얼리하고 나만의 복락을 구하거나 불설(佛說)을 가장한 비불교에 현혹되는 예가 허다하다.

참불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부처님께서는 잡아함경 제 33권 929 〈일체사경(一切事經)〉에서 진정한 재가신도는 어떠한 생활을 해야 하는지 '불자의 조건' 16가지를 구체적으로 일러주셨다.

불기 2542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나와 이웃이 함께 성불의 인연을 가꾸어 갈 것을 서원하며 나와 남이 편할 수 있는 〈일체사경〉의 가르침을 참불자의 지표로 삼아 새 불자로 거듭나자. 고실업 고물가의 경제대란 속 인간윤리마저 벼랑끝에 서 있는 절박한 현실을 극복할 지혜가 샘솟을 것이다. 〈편집자 주〉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고향인 카필라바투국 니그로다 동산에 계셨다. 그 때에 석씨 마하나마는 부처님께 나아가 그 발에 예배하고 한 쪽에 물러앉아 사뢰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을 우파아사카(우바새)라 하나이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우파아사카란 집에서 깨끗하게 살면서 '목숨을 마칠 때까지 세 가지 보배에 귀의하여 우파아사카가 되겠나이다. 나를 증명하여 알아 주소서'라고 한 이들이니라."

"세존이시여, 어떤 것을 우파아사카가 모든 것을 원만히 갖춘 것이라 하나이까."

"만일 우파아사카로서 믿음이 있고 계율이 없으면 그것은 갖추지 못한 것이니, 마땅히 방편으로 꾸준히 힘써 깨끗한 계율을 완전히 가져야 한다. 그러나 믿음과 계율은 완전히 갖추었으나 보시하지 않으면 그것도 또한 완전히 갖추지 못한 것이니, 완전히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방편으로 꾸준히 힘써 보시를 닦아 익혀 완전히 갖추어야 하느니라.

믿음과 계율과 보시는 갖추었으나 자주 사문에게 나아가 바른 법을 듣지 않으면 그것도 또한 완전히 갖추지 못한 것이다.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방편으로 꾸준히 힘써 자주 절에 나아가 여러 사문을 뵈옵지마는, 지극한 마음으로 바른 법을 듣지 않으면, 그것도 완전히 갖추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계율·보시·들음을 닦아 익혀 만족하게 한다. 그러나 들고도 가지지 않으면 그것도 완전히 갖추지 못한 것이다.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방편으로 꾸준히 힘써, 믿음·계율·보시·들음과, 듣고는 가지고 가지고는 매우 깊고 묘한 뜻을 관찰한다. 그러나 법을 따르고 법을 향해 수순할 줄 모르면 그것도 또한 완전히 갖추지 못한 것이다. 완전히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방편으로 꾸준히 힘써, 믿음·계율·보시·들음과, 받아 가지고 관찰하여 깊은 뜻을 밝게 알아 법을 따르고 법을 향해 수순하여 행한다. 마하나마여, 이것을 우파아사카의 모든 일을 만족히 하는 것이라 하느니라."

마하나마는 사뢰었다.

"세존이시여, 우파아사카로서 몇 가지 법을 성취하면 스스로도 편안하고 남도 편안하게 하나이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만일 우파아사카로서 열 여섯 가지 법을 성취하면 스스로도 편안하고 남도 편안하게 하느니라. 어떤 것이 열 여섯인가. 마하나마여, 어떤 우파아사카는 바른 믿음을 완전히 갖추어 그것으로써 남도 믿음의 길로 인도한다. 스스로도 깨끗한 계율을 가지고 그것으로써 남도 계율을 지니게 한다. 스스로도 보시를 행하고 남도 보시를 행하게 한다. 스스로도 절에 나아가 사문을 뵈옵고 남도 사문을 뵈옵게 한다. 스스로도 알뜰히 법을 듣고 남도 또한 듣게 한다. 스스로도 법을 받아 가지고 남도 받아 가지게 한다. 스스로도 법의 뜻을 관찰하고 남도 관찰하게 한다. 스스로도 깊은 뜻을 알아 법을 따르고 법을 향해 수순하여 닦아 행하고, 남도 깊은 뜻을 알아 법을 따르고 법을 향해 수순하여 닦아 행하게 한다. 마하나마여, 이런 열 여섯 가지 법을 성취하면 그것을 우파아사카의 스스로도 편안하고 남도 편안하게 하는 것이라 하느니라.

마하나마여, 만일 우파아사카로서 이런 열 여섯 가지 법을 성취하면 저 대중들, 즉 바라문 대중·크샤트리아 대중·장자 대중·사문 대중들이 다 그에게 모일 것이요, 그 대중 가운데서 위엄과 덕은 환히 빛날 것이다. 마치 태양은 처음이나 중간이나 마지막에도 그 광명은 밝게 빛나는 것처럼, 우파아사카로서 열 여섯 가지 법을 성취한 사람도 처음이나 중간이나 마지막에도 위엄과 덕은 밝게 빛날 것이다. 마하나마여, 이와 같이 우파아사카로서 열 여섯 가지 법을 성취한 사람은 얻기 어렵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석씨 마하나마는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하고 떠나갔다.

잡아함 一切事經 재가신도 조건 16가지

1. 세가지 보배(불·법·승삼보)에 귀의.
2. 남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한다.
3. 바른 믿음을 갖고
4. 남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한다.
5. 깨끗한 계율을 지니고
6. 남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한다.
7. 언제나 보시를 행하며
8. 남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한다.
9. 자주 절에 나가 스님에게 법을 청하고
10. 남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한다.
11. 들은 법을 잘 받아(기억) 지니고
12. 남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한다.
13. 받아지닌 법이 높은지 그른지 관찰하고
14. 남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한다.
15. 바른 법에 따라 실천을 게을리 하지 않고
16. 남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한다.

"만일 열여섯가지 법을 성취하면 대중들이 그에게 모일 것이요 위엄과 덕이 환히 빛날 것이다"

2542 Buddha's Birthday
부처님오신날

대한불교종단진흥회

명예회장 대한불교 천태종 총무원장 전 운 덕

상임수석고문	대한불교 원융종	종 정	배 일 공
상 임 고 문	대한불교 총화종	총무원장	전 남 정
상 임 고 문	한국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김 광 태
법 률 고 문	수 도 변 호 사 회	변 호 사	용 태 영
회 장	대한불교일붕선교종	총무원장	김 무 찰
부 회 장	대한불교 조동종	총무원장	윤 송 정
사 무 총 장	대한불교 원융종	총무원장	송 보 인

이 사	대한불교 법상종	종 정	우 연 담
이 사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김 대 호
이 사	한국불교 법륜종	총무원장	이 혜 우
이 사	대한불교 진각종	통리원장	김 성 초
이 사	대한불교 용화종	총무원장	이 법 덕
이 사	대한불교 삼론종	총무원장	이 혜 공
이 사	대한불교 대각종	총무원장	석 만 청
이 사	대한불교 해동종	총무원장	이 송 산
이 사	대한불교 미타종	사무총장	권 성 우
이 사	천 화 불 교	교 정	이 희 수
이 사	대한불교 진언종	총리원장	손 임 숙
이 사	한국불교 대승종	총무원장	손 혜 인

■ 서울 종로구 낙원동 150-1(파고다빌딩 3층) TEL : 02-766-4848, 5006 FAX : 02-766-5007

부처님오신날에 쓴 반성문

"소유의 노예되니 온통 잘못뿐"

지원스님〈전불련 의장〉



사치와 낭비 '국난' 불러
관심과 애정으로
춥고 배고픈 이 돌봐야

해마다 봄이 되면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를 치르지만, 지난 80년 5·18때처럼 무섭고 두려운 적은 없었다. 그런데 IMF 경제국난 속에 치를 이번 봉축법회도 불안하고 걱정스럽다.

재벌들이, 정부와 관료들이 무지·무능하고 탐욕이 넘쳐 경제국난이 왔다고들 한다. 정말 그럴까. 그런 정치지도자와 재벌과 정부를 누가 허락하고 선택했단 말인가. 다시 생각해 보자. 언론의 사회적 진단과 비판기능은 무엇을 했으며, 우리 주변의 종교들도 인간성 황폐화로 사람의 양심이 심각하게 훼손되어도 소극적 대응뿐이었지, 국난을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했다.

물론 경제국난의 직접적 책임의 과중이나 범죄적 직무유기를 묻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이 국난의 깊고 넓은 참 의미와 원인을 깨닫기 위해서다.

부처님은 이런 것을 공업(共業)의 과보라고 하셨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비를 마음껏 하는 것이 미덕이 됐고, 국민소득 2만달러의 선진국 달성 푸닥거리에 넋을 잃었다. 낭비와 허영의 탈춤놀이에 날새는 줄 모르고 흐느적 거리며 환난을 환영하고 있었다. 인간의 행복이 마치 재물의 소유나 소비와 낭비로 완성되는 것처럼 북새통이었다. 재물의 과욕과 필요없는 소비, 낭비는 그 자체가 죄악이고 타락이며 불행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세상 이야기는 그만두고 부처님 모시기 위하여 나 스스로를 반성해 보니 기가 막혔다. 참회는 그만두고 몸둘 바를 모르게 부끄러웠다. 참회 안해도 될 게 있나 하고 둘러보니 민망하게 하나도 없었다. 살아가는 근본이 모두 잘못된 것이다. 소유의 노예가 되어 방황하는 자화상만 더욱 선명했다.

소유는 어떤 소유이든지 고통의 가중일 뿐이다. 속된 말로 참회 안 할 것이 좀 있어야 참회를 하고 말고 할 것이지, 온통 잘못뿐이니 무슨 참회이겠는가. 내년에는 열심히 살아서 참회 안할 것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우리 주변에는 실직과 도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냉소와 싸늘함에 소리없이 눈물로 배회하고 있다. 그들에게 눈물을 손수 닦아 주지는 못할 망정 우리 모두 최소한의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다는 믿음이라도 그들에게 심어 주어야 한다.

부처님이 누구인가. '중생구제'를 위해 그분이 오신다면 누구부터 껴안으실까. 스님들? 부귀한 고관대작들? 아니면 춥고 배고픈 사회적 약자들이 아닐런지.

'부처님오신날'이다.

"初心으로 돌아가 참불자 서원"

강건기〈전북대교수·철학〉



무엇을 안다는 마음
공부좀 했다는 생각
허공처럼 비우자

금년 5월3일은 인류의 영원한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오신 날이다. 늘 그랬던 것처럼 올해에도 이 날을 봉축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지고 또 불자들은 간절한 원을 담아 연등을 밝힌다.

올해의 부처님 오신 날을 우리들 불자들은 어떻게 맞으면 좋을까? 이 날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일의 회상이나 기념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부처님께서 여여히 오시는 날로 삼아야겠다. 조용히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한 불자로서의 삶을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날로 맞았으면 좋겠다.

참 불자란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 〈잡아함경〉 〈일체사경(一切事經)〉에는 불자의 조건으로 16가지를 들고 있다. 이 경은 부처님께서 고향인 카필라성을 방문했을 때 석가족 출신의 제자 마하나아마가 '어떤 사람을 재가불자라 합니까?' 하는 질문에 답한 내용이다.

인상적인 것은 참 재가불자의 실천을 하나 하나 제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내가 해야할 실천을 이웃에게도 권해서 함께 실천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다. 즉, 그것을 게을리 한다면 반쪽 불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경전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본다면 어떠할까? 과연 참 불자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

자신있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정진할 뿐이다. 그러면 해탈의 길도 그리 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 적어도 나 자신은 자신이 없다. 자신은커녕 부끄럽기 짝이 없다. 그러면서도 남을 탓하고 종단, 불교를 탓하지 않았던가.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보시를 했는가 보자. 나눔과 베품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보시는 우리가 이웃과 모든 생명과 더불어 사는 삶의 자세이며, 내가 무아(無我)이고 공(空)이라는 사실을 터득하는 지혜의 길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잘못됐습니다'하고 참회하지 않을 수 없다. 막연히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열 여섯가지 항목 하나 하나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참회가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초심(初心)으로 돌아가 참 불자로서의 삶을 서원해야겠다. 지금까지의 신행, 무엇을 안다는 마음, 공부 좀 했다는 생각 등 일체를 저 허공처럼 비우자. 그리고 그 텅빈 마음에 '참 불자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하는 마음의 기둥을 굳건히 세우자.

이것이 다름아닌 연등을 밝히는 참 의미일 것이다.

재가신도 '불자조건' 평균 58점

재가불자들은 불자의 조건을 얼마나 갖추고 있을까. 〈우바새경〉 〈일체사경〉에 나타난 '불자의 조건'은 모두 16가지(설문 내용 참조). 이 16가지 조항에 대해 불자들은 약 9.4개 항목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백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재가신도의 불자조건 점수는 58.7점이다. 이같은 결과는 최근 본지가 불교교양대학 수강생, 불교신행단체 증사자, 사찰 신도회 회원 등 201명의 재가불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는 참 불자인가' 주제의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조사됐다.

16개 항목 모두 실천 10% 불과
젊을수록 포교·청법 적극적
중년층 실천부족 '관념적 신행'

현대불교 '우리는 참불자인가' 201명 설문

'불자의 조건' 16개 항목 전체를 실천하고 있는 재가불자는 전체 응답자중 21명(10.4%)으로 20대부터 60대까지 고른 분포를 보였다. 반면 5개항목 이하만을 지키고 있는 불자는 비교적 젊은층으로 나타났다. 16명중 15명이 20~30대(1명은 40대)인 것으로 드러나 젊을수록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다소 흐트러진) 불자의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젊은 불자일 수록 남에게 적극적으로 전법하는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불·법·승 삼보에 귀의할 것을 타인에게 권유하는 불자는 30대(36.9%) 20대(33.6%) 40대(15.6%) 50대(9%) 60대(4.9%) 순으로 젊을수록 포교에 적극적임을 보여줬다. 또한 스님들에게 청법(請法)할 것을 권유하는 불자도 20대(35.2%) 30대(33%) 40대(17%) 50대(8%) 60대(5.7%) 10대(1.1%) 순으로 나타나 젊은 수록 능동적으로 타인에게 청법을 권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20·30대 불자들은 자주 절에 나가 스님에게 법을 청하거나(30대 32.4%, 20대 29.7%) 스스로 깨끗한 계율을 지니고 있다(20대 36.6%, 24.4%)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젊은 불자들이 나이든 불자보다 불자의 조건을 갖추어 나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또 젊은 불자들은 시대가 바뀌었지만 계율에 대한 나름의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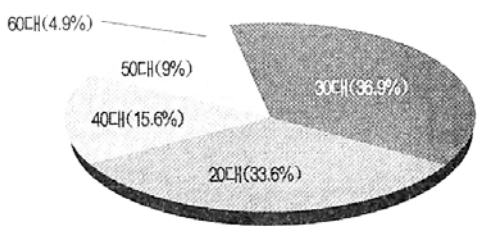
그러나 대부분의 불자들은 참불자이기에 상당히 소극적으로 나타났다. 8개 주요 실천항목을 실천하는 불자들중 약 70%만이 타인에게도 이를 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30% 정도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10명중에 3명의 불자는 자리이타(自利利他)를 겸비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직도 상당수의 불자들이 타인에게 불교를 권하는 포교보다는 개인 중심적인 불자로 머물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자신은 삼보에 귀의하면서도 타인에게는 권유하지 않는 응답자는 24.7%, 자신은 계율을 수지하면서도 타인에게는 권하지 않는 이가 25%, 자신은 보시행을 하면서도 남에게는 권하지 않는 불자가 18.9%로 각각 나타났다. '나만 잘하면 되지'라는 소승(小乘)적인 수행에 치우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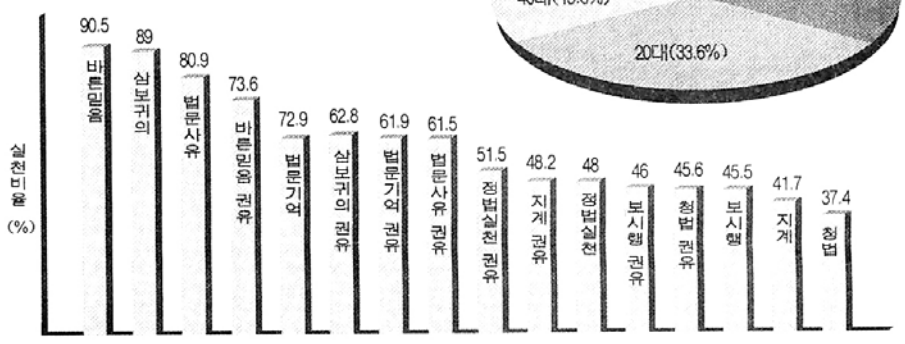
한편 조사에 응답한 불자중 90.5%는 스스로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재가불자로서 89%가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스님에게 청법', '지계', '보시행' 등 실천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면을 보여줬다. 이는 중년층 이상의 불자들은 일반적으로 관념적인 신행을 결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재경 기자

◇타인에게 '삼보귀의' 권유하는 불자



◇ '참불자의 조건' 16항목



설문내용과 응답비율

1. 나는 세가지 보배(불·법·승 삼보)에 귀의합니다.(89%가 실천)
2. 그리고 남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합니다.(62.8%)
3. 나는 바른 믿음을 가집니다.(90.5%)
4. 그리고 남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합니다.(73.6%)
5. 나는 깨끗한 계율을 지니고 있습니다.(41.7%)
6. 그리고 남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합니다.(48.2%)
7. 나는 언제나 보시를 행합니다.(45.5%)
8. 그리고 남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합니다.(46%)
9. 나는 자주 절에 나가 스님에게 법을 청합니다.(37.4%)
10. 그리고 남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합니다.(45.6%)
11. 나는 들은 법을 잘 받아(기억) 지닙니다.(72.9%)
12. 그리고 남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합니다.(61.9%)
13. 나는 받아지닌 법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그 뜻을 깊이 관찰합니다.(80.9%)
14. 그리고 남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합니다.(61.5%)
15. 나는 바른 법에 따라 실천을 게을리 하지 않습니다.(48%)
16. 그리고 남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합니다.(51.5%)

※이 16가지 불자의 조건을 지닌 이를 참된 불자라 할 것입니다.(평균점수 58.73점)
통계분석 협찬=중앙승가대 전산원(원장 김용철교수)

부처님의 자비로 이웃과 함께

大韓佛教曹溪宗

한마음선원(禪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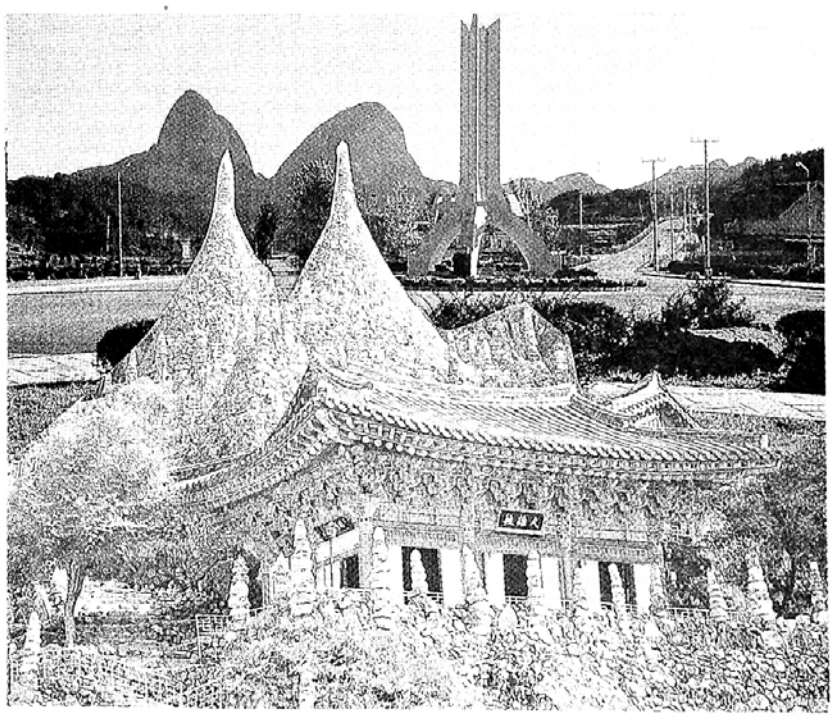
원 장 대 행
주 지 혜 원

사부대중 일동

■ 본원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62
TEL : 사무처 0343-72-3100
FAX : 0343-72-2746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치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탑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찾아오시는길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주 40분 M 마이산
광주

진안 마이산 탑사
전화(0655)33-2900,0303
32-0652,0072

대담 '참불자의 조건과 자세'

강복수 영남대 의대학장

시공을 초월
삼귀의 오계등
불교의 정신
한결같은 것



믿음-실천 조화 이룰때 '참불자'

대학시절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활동을 하며 불교에 귀의해 대불련 전국 부회장을 맡으며 청년불교 운동을 일으키고 현재는 영남대의료원 불교신행회를 이끌고 있는 강복수학장(54세)은 불자로서 의학자로서 또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로서의 길을 걸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다.

- 많은 불자들이 자신이 불자라는 것은 의심하지 않지만 실제로 불자다운 삶을 영위해 나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나치게 기복적이거나 '삼귀의' '오계' 같은 실천 지침들이 잘 지켜 지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저는 '분리된 생각'을 꼽고 싶습니다. 불교의 모든 교리나 사상체계는 이론적인 면보다 실천적인 면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불자들이 이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요. 하나의 진리가 진리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한다는 단순한 이치의 실행이 그만큼 어려운 것이지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펄펄 살아 움직이는 불교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기본 자세가 "이 가르침을 나의 생활로 승화시키겠다"는 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불교의 교리나 사상을 배워서 '아는 것'과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라는 인식을 갖기 위한 전제조건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요.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굳건한 신심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진리를 가르쳐도 그것을 진리라 믿지 않으면 실천은 따르지 못하는 것이니까요.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이중 더 중요한 것을 굳이 말하라면 실천하는 것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자동차라도 실천의 원동력인 연료를 갖지 못하면 움직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화려한 자동차가 진리라면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연료는 신심이고 실제로 움직여 나가는 것은 바퀴라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바퀴는 움직일 수록 닳게 마련인데 그것이 바로 희생과 봉사의 정신이 아닐런지요.

- 〈일체사경〉에서는 불자의 조건을 상당히 세밀하게 설하고 있습니다. 학장님께서는 오랜 신행을 통해 어떤 것이 불자의 참된 조건이라고 생각해 오셨습니까.

▲〈일체사경〉의 가르침 이외의 더 요긴한 조건을 찾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욕심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나 자신도 그 조건들을 착실히 지키며 살아 오지 못했습니다. 그 조건에 부합되는 불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우선 공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경전도 읽고 스님들의 법문에도 귀를 기울이고 계율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부 역시 공부를 위한, 알음알이를 위한 공부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적 욕구만 충족하고 마는 것은 종교적인 입장에서 공부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의학도가 의술을 배워 환자를 치료하는데 이론과 실제상황이 다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닐까요.

-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불교신행의 형태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변화되는 신행환경 속에서 불자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환경적인 변화를 수용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문명의 발달은 맹목적인 신앙의 폐단을 벗겨주는 역할도 한다고 볼 때 사회적 환경의 변화는 우리의 신행활동을 보다 여법하게 이끄는 외적 요인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를 믿는 근본 정신, 즉 자리이타(自利利他)의 정신과 수행의 자세는 변할 수 없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언제나 한결 같듯이 우리의 신행 생활을 지탱하는 근본 이치도 불변한 것이니까요.

- 오래동안 신행활동을 해 오셨으니까 절실히 느끼시겠지만,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보살정신을 실현하기가 힘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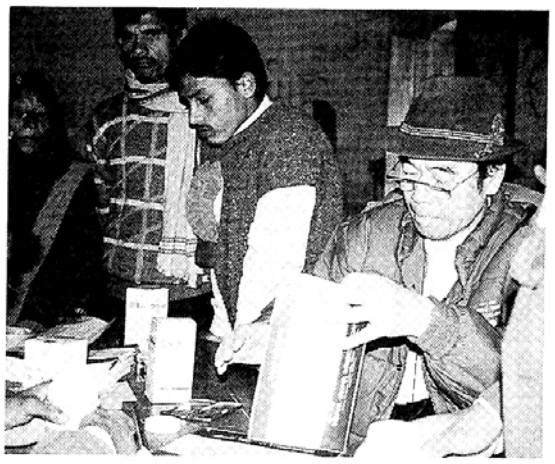
▲이 역시 불자의 참된 조건을 인식하지 못한데서 기인되는 현상일 뿐입니다. 불교에 입문했다면 어느정도 교리적 소양을 갖추고 자신의 근기에 맞게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나 같은 의료인의 경우 환자를 잘 돌보고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는 것이 학문적 관심이나 직업적 행위를 앞선 보살행의 실천이라고 믿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생활 현장에서 펼칠 수 있는 보살행에 매진해야 합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생각만 있으면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보살행은 이뤄 질 것입니다.

대담=이윤호 기자

지적욕구만
충족하는
불교 공부는
참 공부가
아닙니다
삶 속에서
이론과 실천
하나 돼야죠

10년째 네팔서 '한달 인술' 석불연구 · 불교복지 '헌신'

'공동체 삶' 이끄는 이근후 교수



◇ 의료봉사 활동으로 매년 한달씩 부처님 나라 네팔서 사는 이근후박사. 이때 '비타민회원'들이 장만한 비타민이 의료활동에 큰 도움을 준다.

사람 살리는 직업 '의사'일로 이미 불자5계중 불살생계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 불교복지시설 광명보육원을 20년 넘게 후원해왔으며, 우리나라 돌부처 상을 가장 많이 간직하고 연구해온 사람. 그것도 부족해 10년째 해마다 한달 동안 네팔의 환자를 돌보고 있다.

그가 정신치료학계 원로인 무하(無尙) 이근후박사(63세. 이대병원 신경정신과).

우리가 이박사를 '참불자'로 우선 손꼽는 이유는 이 모든 실천들을 이웃과 함께 일궈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6년 아예 보금자리 '무하사랑방'을 경기도 일영 광명보육원 안에 차렸다. 시쳇말로 그는 물질위주의 현대사회에서 '공동체' 형성을 실천하며 알차게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크게 내세우지 않고, 언제나 정직하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이박사는 무슨 일이든지 공동으로 더불어 이뤄낸다. 많은 사람들이 적은 정성과 신심으로도 큰 일을 일궈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눈밝은 이'인 것이다.

15년 넘게 회장으로 활동해온 석불연구회는 5백여기의 돌부처를 답사해 사진자료화하고 매달 회지를 통해 세상사람들에게 공개 친견하게 한다. 그래서 노상에 혹은 산속에 방치된 전국의 석불 대부분은 그의 카메라에 자료로 저장돼 있다. 전문가답게 석불을 통해 한국인의 심성을 연구하면서 부종교인도 자연스레 부처님을 좋아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또 무하사랑방 회원들과 한울타리에 사는 광명보육원생들을 위한 잔치를 매달 제4토요일에 열고있다. 선물과 음식을 차려놓고 벌어지는 이 자리는 원생들도 사랑방회원들도 모두 각자 위치에서 살고 있는 모습이 옳은지 그른지 관찰하게 하는 장이 된다는 것.

그는 부처님나라 네팔 사람들을 '늘 그리운 사람'으로 부른다. 봉사단원들과 매년 벌이는 네팔 의료봉사활동에 '비타민 보내기 운동'을 포함시켜 적극 권하고 있다. 1만원을 내면 비타민회원이 되는데, 그렇게 장만한 비타민은 네팔인들의 웬만한 치료촉진제로 더할 나위없다는 의사로서의 진단에서다.

참불자의 길을 가는 이근후박사에게는 항상 선우들이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도 참불자이게 된다.

위영란 기자

참불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

주부 환경운동가 이병순 씨

"발우공양 정신 새기면 음식쓰레기 못버려요"



갖게 된 것은 외국생활 끝에 돌아온 고국의 무질서한 쓰레기 투기를 보면서이다. 귀국하던 95년5월 유명무실했던 아파트 부녀회를 '환경을 생각하는 부녀회'로 재조직해 쓰레기 분리 배치를 시작했다.

"이미 불교에서는 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방책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스님들의 발우공양 정신이죠. 환경친화적일 수밖에 없는 불교의 생활법이라는 생각입니다"며 불자들이 환경을 살리는 방법은 고래로 전해내려오는 불교적인 생활방식에서 이미 드러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불교의 오계 가운데 첫 번째는 '살생하지 말라'입니다. 이는 각기 생명있는 것들을 재목숨 다하도록 보살펴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생명있는 것들을 먹고 살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다는 것은 '보살도 정신'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딸 셋을 둔 가정주부 이병순(51)씨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것에도 보살도 정신을 강조한다. 해외파견근무를 다니던 남편을 따라 영국 일본 캐나다 등지에서 20여년을 살았던 이씨가 쓰레기에 관심을 갖게 됐다. 지난해 여름부터 고려대 사회교육원에서 노인복지 전문가 과정을 이수중인 이보살은 올해 3월엔 한림대 사회복지대학원 노년학과에 입학 본격적인 노인복지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불교공부 또한 빼놓지 않는다. 봉은불교대학 21기 과정을 이수한 것. 고등학교 때부터 조계사에 다니면서 불교공부를 하던 절친한 친구가 82년도에 선물한 〈반야심경입문〉을 읽고 불법의 오묘한 세계에 빠져들었다. 외국생활을 하면서는 '처처법당'이라는 말을 가슴에 담고 집에서 열심히 불교공부를 했다.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본 세 딸들도 불교적인 생활을 거리낌 없이 받아들였다.

"'즉시현금 경무시절((卽是現今 更無時節, 바로 지금같은 시절은 다시 없다)'이란 어구를 어느 공책이나 적어놓고 마음이 비어있는 듯 허전할 때마다 읽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불자임을 새록새록 되새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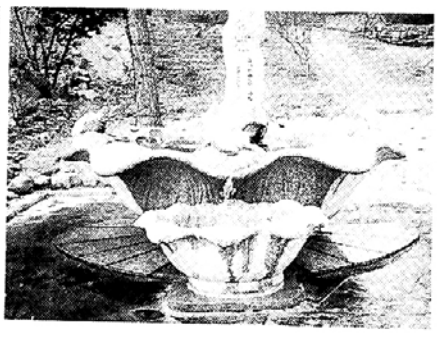
강지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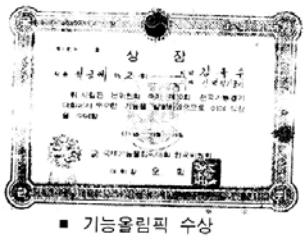
석불, 천불진, 만불전, 석탑, 석등, 부도, 연꽃수각, 공덕비, 주춧돌등..

일 · 심 · 석 · 재

다양한 석재물을 만들어온 28년의 경험과 국제기능올림픽 입상경력으로
현재까지 정성으로 조성하고 있사오니 언제 어디서도 문의주시면
바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 기능올림픽 수상

작품 실적

- 전주시 효자동 일원사 불사 96년 초부터 현재 불사 조성중
- 108벌 오층석탑 완성
- 지장불, 미륵불, 비로자나불, 약사여래불, 아미타불, 대불 오불성전 완성
- 현재 좌불 만불전 조성중

※ 전국 각 사찰에 많은 불사를 하였습니다.

전북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931-1
공 장 : T)0653-53-7527 F)0653-53-7527 자 택 : T)0653-833-4850
휴대폰 : 011-673-7527 BB : 012-672-7527
대표 김 옥 수 합장

절·염불·독경·참선·기도 [수련안내]

삼천배를 108일간, 하루 만배씩 100일간 100만배, 삼년동안 잠자지 않고 석가모니불 염불정진, 한문금강경 십만독, 한글 금강경 일만독 수행하며 터득한 수행의 비전을 테크닉을 공개 수련합니다.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

①숨이 차고 헐떡대며 절하는 것은 마음이 크게 동요된 것으로 정신 집중 안되고 폐와 심장 등의 신체에 무리가 오는 어리석은 수행이다. 들숨과 날숨을 절 동작에 정확히 대입하여 자연 단전 호흡되면 삼천배를 하여도 숨차지 않고 힘들지 않으며 절삼매 이루고 강력한 기운의 집중과 방출로 일생 감기, 몸살 안걸리고 당뇨, 치매, 중풍은 예방되고 치유된다.

②염주들고 숫자세고 시계보면서 절하는 것은 바보같은 수행이다. 호흡과 동작에 숫자를 대입하면 자동으로 헤아려지며 정신 집중이 좋아져 생각이 또렷또렷해지고 기억력이 상당히 향상된다.

③합장하고 절할때, 일어설때 우주의 밝은 기운이 몸에 쌓이는데 염불하면서 절하거나 입벌리고 절하면 기운이 빠져나가 몸이 흔들리고 힘이들며 몸살나게 되니 허 입천장에 말아붙여 단전에 쌓인 기운을 유통시켜야 생기가 나게 된다.

④요가, 선체조, 기공체조, 단전행공, 명상체조보다 동작과 호흡의 일치가 전혀 무리없이 쉽게 잘되며 장소 구애 않받고 돈남비, 시간낭비 않으며 지극한 신심이 증대되고, 단기간에 효과 발휘하는 최고의 건강법이며 만인류는 꼰히 실천해야할 수행법이다.

⊙염불 稱 칠야 정진

올바른 자세가 계속 유지됨으로 졸립지 않고 피곤하고 지겹고 괴롭지 않으며 갈수록 정신은 맑아지고 자동으로 염불되고 자동으로 단전 호흡되어 힘이 넘치게 되는 가장 쉽고 언제나 실천 가능한 수행법이다.

⊙참선 기초수행, 와선호흡법, 염력기도법, 신비의 도인건강법

- 월~금요일 오전 11시~오후 1시 기본수행법 수련
- 매주 토요일 저녁9시 ~일요일 아침 8시 철야용맹정진
- 예약수련, 넉넉한 복장, 수련회비

아름다운 소리산 물빛고운 소금강 법왕정사 수행원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인이피 마을) 소리산 참선캠프
☎ (0338) 71-7745 (수행상담시간 오후 5시~8시)

第7回 行願文化賞 公告
- 受賞候補者 推薦依賴 -

本 財團에서는 每年 佛敎 文化 發展을 위하여 훌륭한 業績을 이룩하신 분들을 찾아 褒賞하고 있아오니 다음 要領에 따라 많이 薦擧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施賞部門

文化賞區分	對 象	人員	褒賞內容
譯經賞	佛典을 國譯하거나 譯經事業에 이바지 한분	1명	賞金300만원
文學賞	佛敎思想을 土臺로 한 詩, 小說 劇文學(戱曲, 放送劇, 시나리오 등)	1명	賞金300만원
藝術賞	佛敎思想을 土臺로 한 藝術(音樂, 美術, 演劇, 舞踊)분야에서 業績을 이루신 분(書畵部門 除外)	傳統1명	賞金300만원
		現代1명	賞金300만원

2. 具備書類 : ① 推薦書(指定樣式) - 1通
② 功績書(具體的 內容) - 1通
③ 履歷書(名啣判寫眞 3枚) - 1通
④ 功績證憑資料(最近 2年이내 實績物) - 1通
3. 推薦마감: 1998年 6月 30日
4. 審査 및 發表 : 本 財團에서는 委囑한 審査委員會의 審査를 거쳐 受賞者에게 個別通知 및 佛敎關聯 新聞 發表
5. 施賞日 : 1998年 9月 24日 목요일
6. 문의처 : (우) 136-075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56번지 중앙승가대학교 기획실
☎ 02)926-4377 FAX : 921-9721

※ 其他 자세한 事項은 本 財團 事務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98年 4月 日

財團法人 行願文化財團
理事長 朱 永 云

자비행 있기에 세상은 살만하다

포교와 구휼

김병규 〈문화일보 논설위원〉



IMF 그늘은 예견된 불행 홍청망청 했던 국민모두의 共業

불교인 모두가 이타행을 펴 동사섭 가르침 실천할 때이다



◇지난 3월 23~27일 백양사에서 열린 'IMF극복 수련회'

모든 일엔 원인과 결과가 짝짓기처럼 붙어 다닌다. 다만 원인이 발생하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소요되는 시간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같은 현상을 가리켜 인과응보라고 정의했다. 이 이치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불변의 진리이다. 인류는 태고이래 이 진리의 틀에서 한치도 벗어남이 없이 살아왔다.

지금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에서 온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도 마찬가지다. IMF가 갑자기 들어와 우리의 경제를 이렇게 만든 것이 결코 아니다. 미국이 한국경제를 삼키려는 의도에서 한국의 거대기업들에게 싼 값에 처분하라고 압력을 넣는 것도 아니다. 분수를 모르고 흥청망청하며 살아온 과거의 집단적 행동에 대한 업보다. 무지와 방탕, 아만과 탐욕적 생활을 해온 데서 빚어진 피할 수 없는 결과, 즉 응보를 국민 모두가 집단적으로 받고 있는 것이다.

위로는 전임 대통령부터 고급관료, 공무원, 대소 기업의 경영자, 근로자, 소비자인 대다수의 국민이 지난 몇년동안 분에 넘친 생활을 해온 결과를 한꺼번에 받고 있는 것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무지에 가까울 정도의 방만한 국정운영, 아집과 만심(慢心)에 찬 사정작업, 국가경제의 능력을 도외시하고 밀어붙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 등 탐심(貪心)의 정책 등이 일시에 뭉쳐 나타난 결산보고서일 뿐이다.

예를 들어 경상수지 적자문제만 해도 여러 경로를 통해 수년전부터 지적된 정책과제였다. 1990년 21억8천만 달러의 적자를 냈을 때 이미 경제정책의 주요관심 사항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1993년 한해 3억8천만 달러의 흑자를 낸 이후 한국의 경상수지는 1997년까지 계속해서 적자행진이었다. 현명한 지도자라면 3~4년 전부터 이 문제에 신경써야 했다.

그럼에도 정책의 방향은 엉뚱한 곳으로 추진됐다. 신경제 5개년 계획이라는 경제실상과는 전혀 다른 이상한 장미빛 청사진을 펴보임으로써 국민을 오도하는 결과를 빚고 말았다. 1990년 적자로 돌아선 이후 작년 말까지 경상수지 적자총액은 무려 6백15억달러에 달한다. 지금 한국이 IMF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구제금융규모와 거의 비슷한 금액이다.

뒤집어 말하자면 과거 7년전부터 한국은 오늘의 사태를 잉태시켜 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미 예견된 불행이었다. 미숙한 국정운영의 한 단면이다. 온 국민에게 경제의 진실을 솔직하게 공개하고 미리 대처해 갔다면 지금과 같은 고통은 모면했을 것이다.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은행등으로부터 자금을 마구 차입, 능력에 넘칠 정도의 사업을 벌인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경영도 지탄받아 마땅하다. 또 분수도 모르고 해외여행을 즐기면서 고급스럽게 살려고 했던 국민의 방자한 생활행태 역시 크게 반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국가가 수난기에 처했을 때마다 우리 불교는 백성들이 당하는 시련을 극복하려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실들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승속을 막론하고 모든 불교인들은 지금의 재난을 기회삼아 마음의 거품을 걷어내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 경제처럼 눈에 보이는 세계의 거품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깊이 숨겨진 허황된 생각 꿈 망상 환상 등을 깨끗이 씻어 없애는 기회로 삼아야 하다.

세속에 사는 중생들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니다. 절에서도 마찬가지다. 신도들의 소득감소, 생활의 위축, 장래의 불확실성 등은 감안하지 않고 벌이는 대작불사 등은 당분간 자제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계획대로 성사가 되지 않을 때는 피차가 괴로운 일이 된다. 앞으로는 대작불사를 추진할 때 경제동향 등도 감안하는 과학적인 분석과 접근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불교계도 하루바삐 받아들여야 할 일종의 시대적 요청이다.

지금 불교인들이 해야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이른바 IMF 희생자들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서는 일이다. 무수하게 쏟아지는 실직자, 가정을 잃은 자, 잠잘 곳이 없어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살펴 주는 중생구제 활동을 전국적으로 벌일 것을 촉구한다. 말로는 방생 등을 외치면서 먹을 것, 잠잘 곳이 없어 괴로워하는 우리 주변의 수많은 불쌍한 이웃을 외면하고 무엇을 방생하고 누구의 삶의 길을 열어줄 것인가. 그러고서도 왕생극락을 기약할 수 있겠는가.

가능한 한 도시와 도시주변의 사찰에선 이들에게 하루 한끼의 밥공양만이라도 제공하는 동사섭의 가르침이 실천되도록 모든 불교인들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들을 보살피지 않고 극락가길 염원하고 선진국 국민이 되길 바란다는 것은 위선이며 자기기만이다. 불교인의 도리가 아니다. 이타(利他)행을 펴는데 모두가 동참하여 각자가 부처님의 가르침따라 살아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불쌍한 이웃과도 함께 하는 불교인의 참모습을 보여주자.

아울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의 고통을 근원적으로 덜어줄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일부 다른 종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불쌍한 사람들에게 접근, 포교하는 얄팍한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하여 이승끝까지 간직하고 가도록 도와주자는 것이다.

그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조그만 안내서를 제공하여 하루 한시간만이라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거나 절의 형편에 따라선 일정한 날을 정해 그들을 위한 특별법회를 열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따라 지난 날을 반성 참회하고 새로운 삶을 개척해 가도록 이끌어 줄 의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불교인들에게 주어져 있다.

또 한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반세기만에 최대국난에 처한 지금, 불교인 모두가 국가의 재난극복에 앞장서자는 것이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지난 4월부터 오는 11월말까지 전국사찰을 순회하면서 8회에 걸쳐 '국난극복 참회대법회'를 열기로 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스님들과 이 행사에 참여하는 불자들만의 일로 보지 말고 불교인 모두가 동참하는 구국(救國)을 위한 대 법회가 되길 염원한다. 대법회가 열리는 시간엔 전국의 모든 사찰에서도 함께 기원법회가 열리길 바란다. 불교인 모두가 한마음으로 발원하여 기도할때 지금의 국난은 앞당겨 종식될 것이다. 이는 수없이 치른 국난극복의 역사가 증언하는 바이다.

불교인들은 IMF 고통이 끝나더라도 쉽고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말자.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세속의 구차한 재앙같은 것은 감히 접근도 하지 못한다. 설혹 나와 내 주변 또는 사회와 국가에 엄습하더라도 견디지 못하고 쉽게 물러가게 마련이다. 이같은 믿음을 확고하게 갖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 정진하여 조국의 명예회복과 발전을 기원하자.

불교사 속의 救難이야기



언기스님 **거지떼 보살피며…**

한암스님 **을축 대홍수 7백명 구출**

경봉스님 **소작인 양식항아리 채워**

△삼국유사의 저자 일연스님이 강화 선원사의 주지 소임을 맡을 때의 일이다. 몽고와의 전란과 흉년이 겹쳐 백성들이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을 본 스님은 대중들에게 청정한 계율과 몸가짐을 요구하며 오후불식을 시켰다. 그렇게 아낀 양식은 야밤에 몰래 백성들에게 나눠줬다.

△서산대사의 법제자 편양 언기스님은 평양성내의 모란봉 기슭에 움막을 치고 살면서 임진왜란으로 집과 부모를 잃은 삼백여 명의 거지떼를 보살피는 왕초가 되어 중생의 고통을 함께 나눴다.

△경봉스님이 통도사에서 소작료 간평을 맡고 있을 때다. 스님은 통도사 양식창고가 비는 것보다 소작인들 양식항아리가 비어서는 안된다는 신조로 후하게 간평을 해줘 조실스님에게 불려가기도 했다. 신도들에게 가욋돈이 들어올 때마다 가난한 신도, 형편이 어려운 신도들에게 나눠주는 데도 앞장섰다.

△만암스님은 백양사 주지를 맡고 난 후 반선반농의 생활규범을 세웠다. 백양사 중창불사를 벌이던 스님은 일제의 식민지 수탈이 극에 달했을 무렵 흉년이 들자 백양사 대중들은 죽을 쑤어 먹게 하고 여유분 양식을 일제히 마을사람들에게 나눠줬다. 백양사 중창을 위해 벼 삼백섬을 보시하겠다는 지주에게도 그 삼백섬을 인근의 헐벗은 백성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등 중생들을 위한 삶을 살았다.

△한암스님이 봉은사에 계시던 을축년 대홍수가 일어났다. 그때에 봉은사 스님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홍수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칠백여명이나 구해냈다.

△천장암에 머물던 경허스님은 도승이라 소문을 내 주민들을 현혹시켰다는 죄목으로 홍주목사에게 잡혀갔으나 홍주목사를 불법으로 감화시켰다. 홍주목사는 경허스님과의 인연으로 자신의 사재를 털어 헐벗은 백성을 먹이고 입히는 보시행을 실천했다.

△독립선언대표 33인의 한사람인 용성스님은 왕실에서 비밀리에 시주한 돈으로 만주에 70정보의 농토를 구입해 대각교당을 세워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입을 것, 먹을 것, 약 등을 나눠주고 선농일치를 실천하면서 독립운동가들도 보살폈다.

△중국 5가7종의 법안종(法眼宗) 제3조인 영명연수(永明延壽)스님은 출가 전에 자사라는 벼슬을 지냈다. 어느 해에 큰 흉년이 들어 굶는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국고를 헐어 굶은 백성을 먹이고 난 뒤 중앙에 그 절박한 상황을 보고했다. 이 일로 사형을 언도받았으나 형리의 상소로 석방된 후 불법에 귀의했다.

고물가와 고실업 시대. IMF 관리체제 민의 삶을 송두리채 뒤흔들어 놓고 있 '사장님'들이 속출하고 가정이 파괴 을 벌기 위해 거리로 나서고 있다는 시절을 살아가는데는 나련선하의 새벽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고통받는 사명감을 요구받고 있다. 배고픈 사람 천행과 황폐해져 가는 마음을 적셔주 포교의 생활화가 절실하다. 고난의 시 비(悲)의 원력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을

불기 2542년

부처님

■ 굶주린 자에게 밥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면 무슨 잘못이 있으며, 헐벗은 자를 옷 주어 감싸고 재앙에 빠진 자를 구해 주면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앙굴마경〉

■ 동산을 꾸며 맑은 공기와 그늘을 주고 강에 다리를 놓아 사람들을 건너게 하며 나그네를 위해 좋은 집을 짓는 사람 그는 밤이나 낮이나 반드시 복을 받나니 계율과 선정을 두루 성취하여 반드시 천상에 태어나리라. 〈증일아함경〉

■ 불자여, 보살은 큰 시주(施主)가 되어 온갖 가진 것을 다 보시하되, 그 마음은 평등해 뉘우치거나 인색함이 없으며, 과보를 바라지 않으며, 명성을 구하지 않으며, 이득을 탐하지 않는다. 그는 오직 온갖 중생을 구호하고, 온갖 중생을 이롭게 하기만을 위할 뿐이다. 〈화엄경〉

■ 중생이 보살의 처소에 와서 말하기를 "인자(仁者)여, 우리는 가난해 의식을 이어 가지도 못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굶주리는 곤경에 빠져 목숨조차 위태로울 지경이니, 원컨대 자비심을 일으켜 저에게 당신의 살을 보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그것을 먹고 목숨을 이어 가게 하십시오"라고 하면, 그 때에 보살은 곧 제 살을 베어 주어, 그 사람이 기쁘고 만족하도록 해준다. 〈화엄경〉

■ 보살이 가난한 중생을 만나 못한다면 자비심이 생겨날 기회가 없을 것이요, 자비심이 생겨나지 않는다면 보시할 마음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을 볼 때마다 보시하는 인연을 지어

경전

부처님 도 보시가 주는 것이 진리의 큰 법이기 때문에 는 다는 생명을 줄 주는 자와 에 있었던 원해 큰 것이다. 로 어떻게 경전의 말

굶주린 목마른 헐벗은

1997년 3월 4일 화요일 주간불교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대구 여래한방병원 시연 스님



시연스님(대구여래한방병원 원장)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 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여래한방병원을 운영하며 오랜세월 불치병 치료에 전념해온 시연스님은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을 현대화된 의약품으로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허출원자인 시연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위장질환의 치료에 효과가 탁월하다"고 그 효능을 설명했다.

현재 국내 감식초음료 시장이 2백50억원대의 규모로 확장돼 있는 것이 현실인점을 감안하면 사업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상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불로화정의 판매 수익금은 경주시내 99평 대지에 건립될 5층규모의 한방병원 설립에 쓰여진다. 또 한방병원 건물내에는 무료예식장과 탁아소도 만든다는 것이 스님의 계획이다.

불로화정 (不老化精)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50만원 2개월분을 ₩400,000으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김창수 : 033-07-172508

如來健康院

문의전화 : (053)655-2227

법보신문 제409호 1997년 3월 5일 수요일 12

화제

여래한방원 시연스님 '불로화정' 특허 출원



대구에서 여래건강원을 운영하며 병고에 시달리는 불자들을 돕봐오던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외에 10여가지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화제이다. 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위장질환과 암을 억제하며 노인성 질환을 예방, 치유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 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 물질로 지금까

-KBS TV 6시 내고향(9월9일) 방영-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하였음

무소유와 나눔…어려운 이웃곁으로

불교계 IMF극복 현황과 과제

지난해 11월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로 야기된 잇단 부도와 대량 실직 등으로 산과 절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현재 추산되는 실업자 수는 모두 1백50여만명. 하지만 경제전문가들은 오는 6월까지를 실업대란의 절정기로 보고 있다. 이달부터 30대 재벌들의 정리해고가 본격화되고, 대학 등 각급학교 졸업자들의 전반기 취업시즌이 완전히 끝나기 때문. 현추세를 감안하면 총실업자 수는 2백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일자리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현실에서 저소득층 실직자와 그 가족을 위한 구호사업은 절실하다. 도시 실직자들의 경우 정부의 복지시설 보다는 종교단체의 구호시설을 선호하고 있는 만큼 종교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다.

현황 불교계는 IMF사태 이후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발빠른 대응을 계속해 왔다. 경제위기 극복 참회법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무소유와 나눔의 정신을 일깨우면서 △실직자 쉼터 △무료급식 △불교귀농학교 △IMF극복 수련회 등을 통해 정신적 위안과 물질적 구휼에 나름의 역할을 해 왔다.

사회적인 문제의 대응에 뒤쳐졌던 불교계가 예전과는 달리 앞장서서 실직자 돕기등에 나선 이유는 IMF 경제위기가 6.25동란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인식에서다. 6·25동란 당시 '간관없는 고아원' 역할을 했던 불교계가 호국불교를 자임하며 국난극복 차원에서 앞장선 것이다. 2천여년간 나라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정신으로 자비를 실천해 온 불교가 다시금 동사섭(同事攝)의 정신으로 국민들에게 자비희사(慈悲喜捨)의 참 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불교계는 이번 IMF 경제위기에 정신적인 포교와 물질적인 구휼활동을 통해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시민들의 존경을 받는 전통종교로 거듭날 수 있다. 비교우위를 지닌 불교적 프로그램으로 엄청난 복지불사 수요를 충족시킨다면 막대한 포교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반성과 의식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진 자들에게 고통분담과 나눔의 정신을 일깨워 어려운 이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도록 각성시켜야 한다.

또한 사찰이 △나무 땔감 사용 △공양물·반찬 줄이기 △사중스님 자동차 안갖기 등 절살림을 긴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 대각사의 경우처럼 △전철 정액승차권을 보시금으로 넨다든지 △승복 수선해 입기 △사찰에 올 때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청빈한 불교의 모습을 보일 때 무소유와 소욕지족(小慾知足)의 불교문화가 시민들에게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과제 그렇다면 구체적인 실천과제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산사를 찾는 실직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만큼 실직 등산객을 따뜻하게 맞이하도록 해야 한다. 무료 점심공양을 확대하고 선방을 개방, 신행상담도 강화해야 한다. 그들에게는 물질적인 도움도 필요하지만 정신적인 편안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력 사찰들은 여름·겨울 단기수련회를 확대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IMF 극복 수련회를 개최해 실직자들이 인내심과 평정심을 갖도록 도와줘야 한다.

매달 국난극복법회 국민의식 전환
쉼터-귀농학교등 구호사업 조직화
사찰 무료점심공양 확산돼야

내실화를 위해서는 실직자 쉼터, 노숙자 구호소, 무료급식소 등을 하나로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조계종 사회복지법인등이 주축이 되어 상호협조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종단협 소비자보호위'와 전불련이 진행중인 '불자고용 추진 네트워크'를 빠른 시일내에 구축해야 한다. 시민선방과 쉼터 등은 담당 스님이 상담을 맡도록 하고 불서등을 구비하는등 내실있게 운영해야 한다. 실직자들이 자아를 찾을 수 있는 불교 특유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많은 실직자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자. 특히 구휼활동은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곳부터 시작해야 한다. 돌볼 사람이 없는 실직자 자녀와 결식아동들에 대한 관심이 절실한 때다. 종립학교 어머니회를 중심으로 사찰·신행단체가 지역학교와 연계해 실직자 자녀를 돕고, 결식아동에게는 점심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늘어나는 귀농인들을 위해서는 1차 불교귀농학교 교육 결과를 분석, 본사급 사찰별로 불교귀농학교를 개설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귀농인들이 사찰 유휴 농지를 저렴한 임대료에 경작할 수 있도록 생활터전도 마련해 준다.

아나바다운동을 확산시키는등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해야 한다. 각 사찰신협과 신행단체가 중심이 되어 알뜰 시장, 농산물 직판장 등을 개설한다. 또한 법당과 선방 등을 개방, 확실한 정신적 귀의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초하루·입요법회 등 다양한 법회를 통해 사이비종교나 피라미드 사기 등의 해악을 미연에 방지하자.

김재경·도필선 기자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은 실직자들에게 숙식제공과 재기의지를 북돋아주는 '보현의집'(관장 능관)을 22일 개관했다. 서울 용산구 서계동 소재의 80평 규모의 4층 빌리에 들어선 '보현의 집'. 매일 40명의 실직자가 이용하게 될 '보현의 집' 입소기간은 15일(상담후 연장 가능)이며, 취업정보도 제공받게 된다.



◇봉은사(주지 무상)가 IMF 실직자 후원기금 마련을 위해 개최한 아나바다 알뜰 장터. 물자들의 작은 정성이 실직자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

불교계 IMF극복 프로그램

▶**국난극복 법회**=불교종단협의회의 지난 4월5일 신흥사 '국민화합 기원법회'를 필두로 12월까지 매달 개최되는 순회법회는 국민의식 전환운동으로 승화될 전망이다. 태고종 강원교구 산하 120개 사찰에서는 4월26일~5월2일 'IMF극복을 위한 기도회'를 봉행한다.

▶**실직자 쉼터**=종단협 소비자보호위원회, 대구 불교사회복지회 등 법인체와 남양주 불암사, 김천 직지사, 태고종 춘천 석왕사, 관음종 흥륜사·보명사, 총화종 수진사 등 20여곳이 실직자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선방**=도심인근의 사찰이나 포교당을 중심으로 개설되어 있다. 군포 개원사, 성북동 길상사, 우이동 도선사, 수선회, 대구 거사림정법회 등 10여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노숙자 구호**=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22일 도시 노숙자 보호소인 '보현의 집' 개설을 시작으로 서울에 3곳, 6개 광역시에 1개씩의 노숙자 구호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경불련 산하 '이웃을 돕는 사람들'도 '실직자 긴급 구호센터'를, 강릉복지관이 노숙자 일시 보호소인 '안심의 방'을 이달 중 개원한다. 진각복지회도 서울 부산 대구 지역에 무료급식소와 함께 노숙자숙소를 개설한다.

▶**무료 점심공양**=경불련 '자비의 집'등 20여개의 무료급식소와 30여개의 지역 사회복지관 경로식당, 여래종 약사사, 관음종 흥법사 등 사찰들이 붐우 노인들과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중.

▶**IMF 수련회**=백양사는 3월 23~27일, 대한불교진흥원은 3월 28~29일 각각 'IMF극복 수련회'를 개최. 태고종 춘천 석왕사는 26~29일 '실직자를 위한 단기출가학교 수련회'를 열었다.

▶**귀농학교**=조계종 불교귀농학교와 실상사는 3월28일~4월26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강의실에서 '불교귀농학교'를 열고 이론교육을 실시했다. 이어 5월 5일~11일 남원 실상사에서 현장교육을 진행, 귀농 예습시간을 갖게할 계획.

▶**IMF 실용강좌**=교계 사회복지관들은 이·미용, 요리기술, 제빵기술, 컴퓨터자격, 꽃꽂이 강좌 등을, 연꽃마을, 불교자원봉사연합회 등 불교사회봉사단체들은 간병인교육을 각각 개설해 실직자와 실직가정의 주부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아나바다운동**=봉은사, 구룡사, 정토포교원 승만회, 경불련 자비의집, '맑고 향기롭게' 등이 중심이 되어 절약운동, '나라 경제 살리기' 알뜰 재활용 장터 및 바자회를 잇달아 열고 있다.

▶**경제살리기 캠페인**=해인승가대총동문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사찰별로 알뜰 생활장터나 바자회 열기 △외제차, 사치성 수입품 사용 자제 계도 등 나라 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동산반야회도 '경제살리기 108가지 실천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실직자 자녀 쉼터**=인천 '청소년 쉼터'는 실직한 가정의 자녀나 생계가 어려워 갈 곳을 잃은 중·고등학생들을 돌보는 한편 가출 청소년 전화상담 서비스 '친구사이'(032-761-7942)도 운영중이다.

신날



ㅡ 중생으로 하여금 편안한 즐거움을 얻게 해주어야 할 것이니, 소위 음(食飮)·거승(車乘)·의복·침대·집·등불을 보시할 때에는 마음에 얽매임이 없어서 탐욕을 내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회향해야 할 것이다.

〈열반경〉

■ 보살은 보시를 행할 때, 모든 사람에 대해 자비심을 평등히 지녀서 마치 자식같이 생각한다. 또 보시를 행할 때, 모든 사람에 대해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일으켜 부모가 병든 자식을 돌보는 것같이 한다. 또 보시할 때, 그 마음에 기뻐하여 부모가 그 자식의 병이 완쾌한 모양을 보는 것같이 한다. 그리고 보시를 끝낸 뒤에는, 그 마음을 너그럽고 고요하게 해서 부모가 그 자식이 커서 자유롭게 살아감을 보는 것같이 한다.

〈열반경〉

■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셨다. "남염부제에 있는 모든 국왕·재상·대신과 큰 부호, 큰 찰리(刹利), 큰 바라문 등으로서, 극도로 가난한 사람이나 지는 곱추·벙어리·귀머거리·소 따위의 갖가지 병신을 만나 보시할 때에, 능히 대자비를 갖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웃음을 띠면서 수 두루 나누어 주거나,혹은 남을 위해 보시하되 부드러운 말로 위로한다면, 이런 국왕 등이 얻는 복리는 백항하사(百恒河沙)의 부처님께서 칭찬한 공덕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지장경〉

■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얼굴을 그리는 자는, 아귀계의 문을 여는 것이 된다.

〈보살본행경〉

홍화마을

홍화씨로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식품 의약품안전국(F.D.A)
품질공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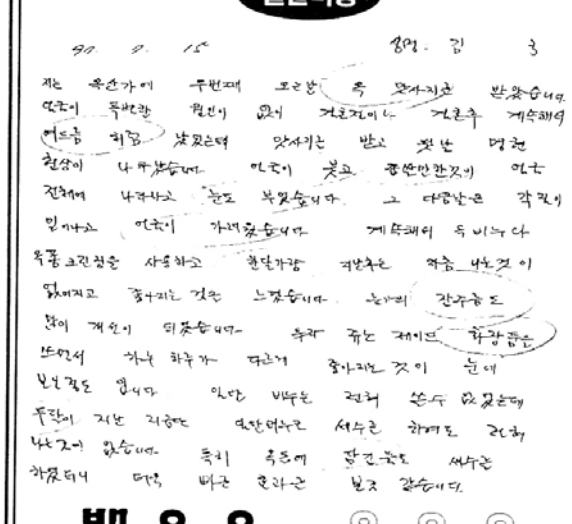
홍화씨의 효능은
이제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속 홍화씨
작목반 박 래 환

TEL 053)943-9371
02)3431-0743/0522)61-4424
FAX 053)943-9371

춘천 옥산가옥의 신비!
아래와 같은 사연 수백통씩의 건강체험 사례집이 4권에 이릅니다. 성인병 난치병에는 꼬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십시요.
얼굴미용



백팔염주 옥지 옥반지 옥목걸이 옥팔찌
※ 춘천옥이라는 제품은 수입 유사품옥입니다 진옥은 玉山家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50번지 玉山家 是空 合掌
쁘렝땅백화점 지하상가 을지로쪽입구 777-0105(우편판매가)

손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운장법사의 神筆(眞品) 佛了體의 神秘를 최초로 공개!

- 신기·영기를 발하는 달마그림, 龍자그림 특별보시 -

※ 정통으로 배우는 사경예술 실습, 사군자, 달마도, 용자그림, 전수자 수강생모집.(통신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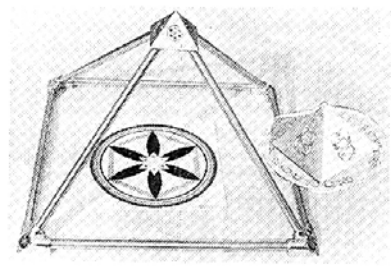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생명의 전화 : ☎ (02)242-0331,242-0255
(야)216-0307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文化藝術院
雲藏法師禪筆研究會

신비한 우주 에너지(기)
발생장치, 명상용
피라밋 허란야!



〈특허청 의장특허 등록 NO.204454〉 피라밋 모자
규격 : 사방 2M, 높이 130Cm

◆ 피라밋 안에서 명상이나 취침시는 원인불명의 신체 정신적 증상과 영적 문제가 해결된다.
◆ 만성적인 두통과 불면증이 해소되며 급격히 체질개선 및 정신의 안정이 온다.
◆ 인체에 유해한 수맥을 차단하며 컴퓨터 TV등 전자제품의 인체유해전파를 차단한다.

우주문명과 피라밋 허란야
문덕 출판사

한국 피라밋 체질개선 연구회
부 설 문덕출판사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305-1 보리B/D 303호
TEL. 792-0960, 0966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 함께 하는

불·자·정·보

최소규격 및 가격 :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지국 에서도 접수 가능 합니다.

• 건강 •

치아사랑은
잇몸건강에서!
시린이 · 풍치 · 잇몸염증에 치약으로 개선~!
012)
8361-5998

암·간경화·완치 보장

성인 백혈병 · AIDS
만성 신장병 · 암 · 神病
정신질환 · 원인모를 病

보상금제도도입
치료후 병원 검사결과 현저한 호전이나 완치가 아니면 보상금(치료비+1천만원)을 드립니다.

제3의학 · 심요법

TEL : 0552-585-8118 · 8128
H.P. : 011-559-8118/812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우계동

보은암

※치료사례 비디오 테잎 무료로 드립니다.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34-1115~6
012)598-1015

수맥(水脈)을
바로 알면 건강해지고
집안이 흥해집니다!
- 공부 잘하던 아이가 성적이 떨어지고
- 원인도 없이 시름시름 앓고
- 매사 의욕이 없고 우환이 찾으시며
- 집안에 중풍이나 치매환자가 있다면…

※ 수맥상담 및 출장 탐사

실로암수맥연구회
02)362-8466/392-8621
FAX 02)392-8621
※ 수맥연구원 약간명 모집

밀교 수행자
연락처 015-8487-3674
당뇨 · 간경화 · 비만관리
※ 3~7일간 치료 지도 ※
能仁 看病會
서울 금천구 시흥본동 883-16
011-337-0353
02-809-1831

• 강좌 •

지장경 독송모임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현대불교신문
강릉지사
0391)43-5599

현정 심성개발·상담센터
Tel. (02)583-0041
(지하철 사당역앞)

▷ 본 상담센터는 개인상담을 통해 마음이 아파 홀로서기 힘든 시람들과 마음나누기 하는 곳입니다
▷ 오전 전화상담, 오후 면접상담
▷ 적성 인성 등 각종 심리 TEST
▷ 심성개발 및 감수성 훈련(ST)
소그룹 지도(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8시 반까지 강좌
▷ 단전호흡을 통한 심신건강 및 집중력 기르기

▣ 신경성, 집중곤란, 대인불안등 스트레스 적응법 지도

氣明緣屮子 ↔ 禪
현실적인 아픔이나 정신적인 고통 밝고 쉽게 선으로 풀어드립니다
철저한 생활위주 방법과 방편,
심리상담, 성격교정, 삶에 의욕을 잃으신 분들 대사에 기가 없으시고 지치신분, 허약한 정신과 마음,
생활속에서의 선, 살아있는 선으로 기를 찾아 드립니다
02)897-7731 ●●
016)340-4459 ●●
(167+021111+02+034)

사주 · 명리학 배우실 분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작명, 진로선택등을 자신있게 풀이할 수 있도록 책임지도합니다.
■ 개강일 : 월.목요일반(5월 4일부터)
수.토요일반(5월 6일부터)
■ 강의기간: 3개월 주2회(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3시간씩)
■ 수강료: 교재대 포함 월 10만원
■ 장 소: 서울 마포구 대흥동 801-57
한국명리연구원
T. (02)713-4852~3
(개강일전 월, 목요일은 무료 공개강의를 합니다)

동양철학 학인모집중
- 자격 및 년령 제한없음
- 3개월 졸업
- 철학관 개관시 적극지원
- 통신생도 모집
- 명리, 작명, 풍수 중심으로 교육

■ 강사 : 철학박사 학장스님 직접강의(동양철학, 침술)
◐ 포교의 방편으로 활용가능
◐ 풍수지리 운세도 직접 전문 감정
◐ 장소 : **혜능선원 강동포교당**
※ 극빈불자는 수강료 무료 보시함.
강동구 길동 458번지 길동시장통(지하철5호선 길동역)
혜능불교대학 內 학장석일관 합장
☎ 02)482-4550, 488-1569

해외허가 제 745호
중국 베이징 해외유학 및 연수안내
기공속성반
침술속성반
한방속성반
※ 전화 주시면 안내서 발송해 드립니다.
서울 사무소 대표전화 02)737-0437
북경 사무소 6594-9401~3

• 구인구직 •

보살님이 창건한 사찰로서 정법을 수호하는 조용한 도량이 있다면 (**부전스님**으로서) 기도하고저 합니다. 연락주시면 찾아뵙겠습니다.
※경남북도 이남지역
011)807-6725
탄 휴 스님

투자하실 분
◆저희는 설악산 가는 길에 위치한 홍천소재의 공공개발지역 근거리에 자리한 넓은 주차마당이 있는 휴게소와 울타리하는 **큰시설을 갖춘 주유소**입니다.
◆자본투자능력을 갖추신 분으로 공사직 퇴직이후 새로운 인생을 미래의 땅인 강원도에서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실 분 방문상담 환영!
0366)435-8451
소장 정,회 성

부전스님 및 공양주보살 모심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성북리 393-1
대원사
0331)262-0606

공양주보살님을
모십니다.
(연령 제한없음)
⊙ 천년고찰
천마산 **중화사**
0414-42-2057
중화사 주지

평생을 모십니다.
절 신축불사(지장·명부시왕단)에 동참하실 재정능력있는 보살님 모십니다.
※동참하실 분은 평생 절에 모시며 사후의 장의일체 49재 및 제사를 봉행해 드립니다.
02)888-1642
011)686-9925

• 수련원 •

도원불교수련원
(智庵精舍)
⊙ 개인 및 각 신행단체 수련 대환영 ⊙
본 수련원은 산세수려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불교전문 수련원으로서 일반 불자, 각 신행단체 및 가족단위의 불자등이 기도, 수련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갖춰 놓은 도량입니다.
수련을 원하시는 불자등은 언제라도 전화주시고 오시면 친정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院長 性 潭 合掌
전화:0374-32-7464 F:0374-33-7464
※ 명퇴자 대환영 ※

• 인쇄 •

다모인기획
각종 고급인쇄
특수인쇄
명함, 스티커,
마스타, 옵셋
T. 02)275-2650
F. 02)268-7421

• 법회·공연 •

● 무료담선법회
:월~금 오전10~12시까지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 금강경
● 심신건강상담소
-개인상담: 월~금 오후 1~6시
-직장인 · 대학생: 월·수·금오후 7시~9시
-방문상담: 토 · 일요일
강남구 역삼동 제일생명 4거리 부근
02)539-1478
015)8312-5478

마정수기법회
이번 초파일에는 남방의 큰 징로이신 위말라리라(74세)스님이 오셔서 마정수기법회를 개최합니다.
성불의 수기와 삶의 축복을 통하여 불자들의 원성취 정진을 이루며 뜻하는 일 원만하여 나라에 헌신하는 보살의 삶이 되도록 용기와 지혜를 북돋우어 줍니다.
아울러 남북방의 교류를 통해 부처님 구세대비 원력이 세계평화달성에 힘쓰는 불자의 시명을 깨닫게 합니다.
가족모두, 친지들, 이웃들 함께 오시어 뜻깊은 초파일에 수기와 축복과 삶법을 통해 심불 지기 일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들의 꿋꿋한 신심은 나라를 든든하게 하며 세계를 평화롭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하반야바라밀(특히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우선 인도합니다.)
■ 때 : 2542년 5월 3일 10시 - 부처님오신날
■ 곳 : 도솔산 도안사 (0334-676-8700)
대한불교조계종 반야바라밀겁사 **보현도량**
주지 송암 · 법사 홍교 합장

• 불교미술 •

국악 전통무용 공연
경로·환갑
각종 공연행사
기획·상담·공연
02)925-1303
서울예술공연기획
신 상 철

탁자,단집,법상,문짝,불교조각
◇ 주 요 불 사 업 적 ◇
- 현천(해인사) 대적광전 법상 경상
- 의왕시(대원사) 대웅전 수미단 단집 문짝
- 서울(백화사) 법당 수미단 응작 복전함
- 울성(삼보사) 대웅전 문짝
- 회천(법장사) 대웅전 명부전 문짝
- 충무(삼덕사)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다
- 마산(진관사) 대웅전 문짝 단집
- 포천(약천사) 대웅전 문짝 단집
- 단양(천진사) 대웅전 수미단 단집 경다 경상
- 서울(학림사) 회관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趙貴玉 합장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불교 조각원
02)
732-7326

• 필방 •

대흥당필방
02)
732-7326

대신당 필방
인사동
02)
732-2830

• 불교용품 •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 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 장의·납골당 •

21C 장묘문화를 열어갑니다.
★ **종합납골당** '영묘각'
개인단/부부단/기족단/문중단/불당/합동봉안/영구위패봉안
★ **종합장례서비스** '백팔(108)상조회'
아직도 타종교인의 손으로 장례를 치르십니까? 석왕사 직영 108장의사에서는 전국 어디나 출장 장례를 올려 드립니다 상조회에 가입하시면 더욱 편리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보운산 석왕사 직영
백팔(108)상조회 / 장의부 / 영묘각 사무국
24시간365일상담/출장비가 032)6128-108/032)6673-404

「부다피아 포교기금」
PCS 016 핸드폰 특가판매
- 삼성 애니콜 2000 ₩130,000 (한정판매수량 300대)
- LG LGP 1300 ₩120,000 (한정판매수량 100대)
- 현대 HGP 1100 ₩90,000 (한정판매수량 100대)

(※ 각 기종 가입비 포함)
문의처 02)732-1522 「부다피아 포교기금」

• 기타 •



어떤 것이 영원한 현실인가?
햇빛은 뜰위에 조는데
처마끝 제비의 노래여!
대천도 자취혼적 없는데
꽃동산위 흰구름 한가롭네
도시출판 바른보인 ☎597-2460
전등록, 무문관, 벽암록, 천부경, 금강경, 세월을 북채로 세상을 북삼아에 이은 바로보인 불법시리즈 제 7 탄 !
부처님의 78대손이신 대원 문계현 선사님의 법문집이 드디어 출간되었습니다

목암주나무 묘목 판매
062)222-6003
(주간)
062)234-0095
(야간)

행운결혼상담소
모범허가업소
초혼 · 재혼 전문
만남에서 결혼까지 책임지고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 비밀 보장
(부모님 상담환영)
02)960-4564~5

각국 할인 항공권 및 비자안내
미국비자 · 일본비자
중국비자 그외 각국비자
※ 여권발급 · 각국 할인 항공권 성지순례 상담(24시간 상담가능합니다)
주식회사 **일광여행사**
대표전화 02)736-6272

• 동자상보급 •



011-841-3591

• 승복 •

대성승복	가람승복
02) 739-6287	02) 739-0080

• 사찰안내 •

전국사찰-사정상 운영이 어려운 분이나 새로운 운영을 시작하실 분 전화주셔요.
성실히 연결하여 드립니다.
상담전화 : **02)723-4082**
011)232-4082
광진불사

경남 통영시 청정1급수지역
"나한기도처"
◇ 대지평수 : 1,200평
◇ 건물 : 46평(요사방 2개, 법당 1개)
◇ 가격 : 2억 2천 (조절가능)
012)1067-0108

대구시내 포교당
◇ 급히 양도함
◇ 보증금 : 2 500만원
◇ 법 당 : 60평
053)943-4170
016)586-3669

◇ 위 치 : 서울시내 **북한산 국립공원 안**
◇ 국유지 : 약 3천평
◇ 전통 목조 법당 동굴 산신각 등 건물 6동
◇ 계곡, 기암괴석, 울창한 숲속
◇ 서울 강남까지 조망가능
◇ 가 격 : 6억 5천만
※주직: 02)512-3092

◆ 사찰 양도 안내
⊙ 사찰부지 : 270평 ⊙ 매 가 : 13억
◇ 대웅전 : 20평(완전목조)
◇ 산신각 : 10평(완전목조)
◇ 선 방 15평(완전목조)
◇ 무량수전 : 20평(완전목조)
◇ 지장전 : 20평(완전목조)
◇ 요 사 : 3동×80평(방10개)
◇ 위치 경기 북부지역, 산세와 계곡, 약수, 주위경관이 매우 뛰어난 기도처로 최적지 사찰
※ 사찰 양도하실분 · 구하실분 연락주세요
(주)천운 나강민 합장
0371)762-0101
011)735-4168/012)932-4168

사찰 전세 운영하실 분
◆위 치 : 대전광역시 생활권
◆부 지 : 296평
◆법 당 : 30평 5포 3포 전통목조 단청
◆요 사 : 방 2칸
◆시 설 : 시설일체 무상기증
◆가 액 : 2억 7천만원(10년이상 계약 가능)
◆특 징 : 대전역에서 20분 거리에 소재한 기도 및 포교도량으로 완벽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고 수려한 산세와 계곡물이 접한 도량으로 입주즉시 법회가능함. 정법대로 운영하실 스님께 10년이사아 전세로 드립니다.

※ 전국 사찰 및 포교원 급히 구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 하신 분은 언락주시면 좋은 인연 연결하여 드리고 양도외 **사찰 법률, 세무도 무상상담** 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본 사찰은 정법도량이므로 스님 외 일반인,무속인, 모살및 대리상담은 절대 시험합니다
(주)동국불사
상담전화 : 02)512-4447
※ 출장중이 많습니다 호출을 부탁드립니다
호출상담 : 012)1648-6334
(24시간 호출콜)

◇ 부산시 구서동 선경1차
포교당 45평
◇ 전세 1,500만
◇월세 80만
※ 전세·월세 조정가능
051)517-2080
〈종무소〉

◆ 사찰전세안내
◇ 위치 : 서대문구 북가좌동
◇ 법당 : 부처님삼존불, 약 15평
◇ 요사채 : 주방·거실·화장실 완비
◇ 전세가 : 약간
02)308-0788

◆ 도심포교당 하실 분
◇ 위치 : 서울 송파구 잠실 (석촌호수 부근 대로변)
◇ 평수 : 4층건물에 4층, 법당40평 (옥상 사용가)
◇ 가격 : 보증금 2천만.월세 60만원 (시설비 별도)
◆ 비어있는 상태, 바로 입주가능
011)833-1712, 011)301-1711
0525)33-0705

◆ 기도 정진하실 분을 모십니다.
◇ 소재지 : 전남 광양시 봉광면 조령리 산 47번지 하조암
◇ 대 지 : 50평
- 법당, 방3칸, 부엌, 건평 20평
◇ 백운산에 위치, 경관수려, 전기·전화·교통시설 있음.
◇ 가 격 : 년 10만원
0667)762-6911

■ 아파트 입주(24평)
◇ 위치 : 대구에서 30분거리 (경산)
◇ 대지 : 24평
◇ 완공후 1년
◇ 전세 : 1,500만원
월 4만3천원(주택부금)
◆ 즉시입주가능, 수향·요양하실분 경관수려한 환경
02)720-8113

◇ 위 치 : 강원도 영원 (제천에서 더 가까움)
◇ 평 수 : 730평(종교용지)
◇ 법 당 : 40평
- 산신각, 요사채 4동(총건평 90평), 석등, 석탑,
- 방10개, 화장실
◆ 기도도량으로 적격임
◇ 가 격 : 1억 3천 5백만원 (절충가능)
※ 서울에서 2시간 20분 거리
0373)374-1765

◆ 사찰(포교원) 급히 양도함
◇ 서울 마포구 성산2동 동사무소앞
◇ 건물보증금 : 천만원에 월세 55만원
◇ 시설양도금 : 1,500만원 (고급시설완비)
◇ 총건평 : 35평중 법당 1칸, 방2칸, 부엌 1칸,샤워및 화장실 1칸
◆ 베란다및 옥상 사용가함
02)374-5295
011)742-2955



부처님 오신날

불기 2542년

신림동 고시촌 포교 불모지

국내 최대의 고시촌 신림동에서는 불자 찾기가 힘들다. 타종교가 고시생 복음화를 목표로 조직적인 선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반면 교계의 포교활동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곳 고시생 불자들은 불법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마땅히 의지할 곳이 없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신림동 고시촌의 포교실태를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96년 고시생으로만 결성된 약수사 청년회는 19일 첫 수계법회를 가졌다.

수험생 6만여명 '청운의 꿈' 키워
타종교 개종 늘어…인재불사 대책 시급
전도모임 고시원 직영등 '선교 치열'

19일 오후1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약수사 대웅전. 검은테의 도수 높은 안경, 허름한 운동복 차림의 청년들이 한두명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미리온 청년들은 가부좌를 틀고 앉아 참선을 하거나 사찰경내를 둘러보며 시험준비로 긴장된 마음을 풀고있다. 이들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약수사 청년회(회장 최민철)가 창립이후 처음으로 마련한 수계법회에 참석하는 불자 고시생들. 광명선원 초격스님을 계사로 봉행된 이날 수계법회에는 사법 행정 외무고시를 비롯 각종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고시생 18명이 5계를 받고 새 불자로 탄생했다. 다른 청년회에 비해 조촐한 수계법회였지만 수계자, 계사 모두 진지했다. 타종교의 치열한 선교활동 속에서도 고시촌 불교활성화를 위해 고시생 스스로 신심을 다지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각종 고시 서적이 가득한 좁은 방에서 눈뜨면서 책상에 앉고 책을 보다 쓰러져 잠드는 것이 고시생들의 하루 일과다. 활동범위도 좁다. 고시원과 학원 그리고 식당을 오가는것이 고작이다. 특히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동경으로 고시생들은 자칫하면 방황하거나 술과 환락 도박 등의 유혹에 빠져 들기 쉽다. 때문에 고시생들에겐 편안함을 얻을 수 있는 문화환경이 큰 활력소가 된다. 이날 수계법회를 마친 고시생 불자들은 "사찰이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해방구다"며 고시촌을 향해 발길을 옮겼다.

신림9동은 5백여개의 고시원이 밀집해 있는 국내 최대의 고시촌이다. 돌아눕기도 힘들만큼 좁은 고시원 골방에는 4만여명의 고시생들이 자신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 하숙, 자취를 하거나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고시생, 고시학원 수강생까지 합하면 6만여명 이상이 신림동 일대에 몰려 있다. 고시생이 10만여명이라는 총무처의 집계에 따르면 60%이상이 신림동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에 직장을 그만둔 직장인과 여성고시생까지 합세, 고시촌 인구는 해마다 1천명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신림동 고시촌은 10여년 전부터 고시의 중심지로 자리잡아오고 있다. 사법·행정·외무고시 등 주요 고시합격자 가운데 70% 이상이 이곳에서 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상은 최근 4~5년간 더욱 극명해지고 있다. 고시 준비생들은 '예비 사회지도층'이기도 하다. 때문에 이들에 대한 종교 단체의 전도 열기는 대단하다.

그러나 불교계는 이같은 포교의 황금지대를 방치하고 있다. 불법을 갈망하는 불자 고시생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현실이다. 단지 고시생 불자들이 자체적으로 법회를 보며 불교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지만 점점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이 일대에는 연화정사와 약수사에 각각 2백여명의 고시생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하지만 매주 일요법회 참석인원은 20~30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갈 수록 회원수가 줄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신림동 고시촌 포교는 '그림에 떡'에 불과하다.

최근에는 몇몇 고시생과 불자들이 인재불사연구원을 설립해 문서포교 등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지원이 전무해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다. 반면 개신교 천주교 증산도 등 타종교는 고시생 이상의 치열한 '전도작전'을 펼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고시원을 통한 선교활동이다. 이들 종교단체들은 최신 편의시설을 갖춘 고시원을 개설, 실비(15만원) 또는 무료로 운영하면서 고시촌 선교를 앞다투고 있다.

고시생들 사이에선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고시원이 저렴해 훨씬 효율적이라는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다. 할렐루야 고시원의 경우 70여명이 합격의 꿈을 키우고 있으며 방학이면 지방에서 온 수험생들로 더욱 붐빈다. 타종교에서 직영하는 고시원은 할렐루야고시원 금강고시원 예벤에셀고시원 등. 고시생 선교를 위한 전문 전도모임도 활발하다. 서울대 전도모임 고시생기도전도모임 예수전도단 등을 비롯 각종 선교단체들이 주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고시생들을 대상으로 맨투맨 선교활동을 펼친다. 증산도의 경우는 불교청년회 회원으로 위장 가입해 불자청년을 중점적으로 교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적이다.

또 30여곳에 이르는 각 교회에서는 고시가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이란 점을 감안 각종 정기기도회 부흥회 등도 마련하고 있다.

매년 여름에는 이 지역 교회연합으로 '고시생을 위한 축제'를 3일간 개최하기도 한다. 이 축제에는 수험가의 '족집게' 강사, 현직 판·검사, 법학자 등 유명세를 타고 있는 강사를 초청해 최신 정보제공은 물론 신앙간증의 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 축제에서 각종 정보를 손쉽게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시생들이 참여한다. 이에따라 축제가 끝나면 불자가 줄어들 정도로 선교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것이 이 지역 불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신림동 일대 고시원 서점 학원 음식점 등의 90%이상이 독실한 타종교인들이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지역은 '선교의 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에따라 불자 고시생들은 이곳 저곳 옮겨다니는가 하면 개종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타종교에서는 복지관 도서관 교회 법률센터 등을 설립해 고시생 선교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신축중인 시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갈수록 이같은 상황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각 종교단체가 이처럼 고시촌 선교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교단의 부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교계는 인재불사를 무엇보다 강조해왔다. 이는 인재불사가 곧 호법신장을 양성하는 대표적 포교활동이기 때문이다. 이런점에서 고시촌은 인재불사의 최대 거점이다.

고시촌 포교는 전국규모의 인재를 양성해 직접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어떤 불사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범종단적 과제다.

하루가 다르게 타종계에 잠식되고 있는 고시촌. 교계가 고시촌 포교를 강건너 불보듯 한다면 한국불교의 내일은 기대하기 어렵다. 지식층 불자 빈곤 현상을 우리는 지금도 겪고 있지 않는가.

김중근 기자



◇신림9동 고시촌에는 5백여곳의 고시원이 밀집돼 있다.



◇국내 최대의 고시촌인 신림동 전경.



◇공부에 열중하고 있는 고시생들.

이종오 변호사가 본 고시촌



"시험의 중압감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고시생들은 고시병를 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들에겐 불교적 정서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산사에서 고시공부를 했다는 이종오 변호사는 정신이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고시생들에게 불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전통적인 사찰의 분위기가 고시공부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예전에는 산사에서의 고시공부를 선호했지만 이제는 정보수집을 위해 밀집 고시촌이 선호되고 있다"며 "시대적 변화추이에 맞게 불교계가 고시생 곁으로 찾아가 포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가 중요시되는 시대에 산사에서 혼자 공부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게다가 예상문제와 함께 연구하고 그 해답을 찾는 그룹스터디가 효과를 거두고 있는 현실에서 오히려 위험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고시생들은 고시원, 고시학원 서점 등 최적의 요건을 갖춘 신림동 고시촌을 찾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험 스트레스 '고시병'
불교정서가 치료약
불교 고시원등 시설 필요

이종오 변호사는 "고시촌에 전통적인 산사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시설을 설립, 참선강좌를 비롯 각 고시별 기본강좌와 특별강좌 등을 마련한다면 학원강의보다 더 효율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고시생들의 불안을 해소해 줄뿐만 아니라 합격이후 포교사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시촌 포교는 최단기간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포교의 잇점이 있다"는 이 변호사는 불교계가 하루속히 보다 조직적이고 효과적인 고시촌 포교의 틀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시촌에서 띄우는 편지

"고시생 포교 외면 하시렵니까"

교계 대덕스님과 사부대중에 호소합니다.

한국 사회의 지도층은 철저한 불교적 소양과 신행을 동반하는 사람들로 교체되어야 합니다. 역사적 격동기에 서구의 기독교적 교육과 물질만능사상에 전통적 가치관을 빼앗기고 출세의 수단으로 유학하고 온 기독교인이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적 소양을 갖춘 인재의 육성, 발굴은 시대적 사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시생 불자는 종교적 갈등과 대립의 대가를 사전에 극복해야 할 중차대한 임무를 부여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 첫 작업으로 고시촌 포교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사회의 지도층으로 성장하게 될 고시촌 포교야말로 한국불교사의 획기적인 불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불자고시생의 합격은 곧바로 불교와 신도와 사회를 위한 호법신장이 되어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힘있는 불자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10년전 완전 불모지나 다름없던 군포교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열정, 그 정성, 그 원력이 이제는 인재불사라는 더 크고 절실한 불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0년전의 외로운 길을 다시 걷고자 합니다. 이제는 오직 인재불사, 고시생 집중포교가 '화두'가 되어야 합니다.

허리까지 쌓인 눈을 헤치며 길을 만드는 기분입니다. 고시공부하면서도 쉬지 않고 포교했던 까닭에 모든 경험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다시 발원하여 서원을 세우고 시작했습니다. 이 큰 불사가 원만성취될 수 있도록 시방삼세 부처님전에 발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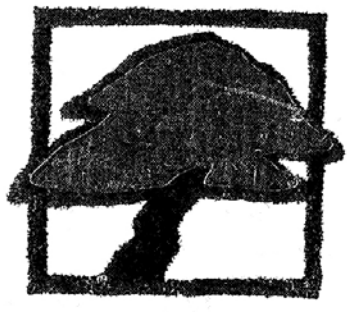
〈고시준비불자 무염합장〉

건강보조식품허가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솔선식(松仙食) 시판개시!

선(仙 神仙)자를 파자(破字)하면 '山人', 즉 산에 사는 사람이다. 예로부터 산에 사는 사람인 장생불사(長生不死)하는 신선의 주식(主食)이 사계절에 추드름(常綠)을 자랑하는 소나무이니 소나무의 효능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으랴. 그러므로 소나무는 나무중의 나무이다.
오행상생(五行相生)은 오행이 서로 생(生)한다는 말인데, 생한다는 것은 도와준다는 뜻이다.
동양의학은 오행상생 원리로 도와주도록 하여 병을 다스려 고친다.
오행중에 물(水)·불(火)·흙(土)·쇠(金), 네 가지는 상생하면서 자기 몸을 희생 소멸하지 않지만 나무(木)는 자기 몸을 완전히 불태움으로써 희생 소멸하여 자식격인 불을 생하기 때문에 나무가 거룩한 어머니 사랑의 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일찍이 한민족은 오행으로 38목(木)인 동방(東方)에 살았던 덕분에 나무처럼 원래 마음이 어질고 자질(資質)이 뛰어나 동방의 예의를 숭상하는 나라(東方禮儀之國)로 세상의 우러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무중의 나무인 소나무가 우리 나라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나무이다.

우리나라 4대명산(四大名山)의 하나이고 신선들이 사는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方丈山)인 지리산(智異山)은 우리 민족과 인류의 거룩한 어머니가 사시는 사랑의 성모산(聖母山)이다. 어머니의 거룩한 사랑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든다
사찰과 민간의 비전(秘傳)된 처방을 많이 아는 여래(如來) 한방진료병원장 시연스님과 성모 지리산에서 공해(公害)가 하나도 없는 6백미터 이상 고지(高地)의 소나무 자생군락(自生群落) 청정지역에서 30년간 소나무연구의 오직 한 길을 걸어온 토송자 소나무농장주가 이번에 힘을 합해서 거룩한 어머니 마음으로 소나무 종합영양강정(强精) 식품인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과 「솔선식(松仙食)」을 만들었다.



「솔효소정액」은 솔잎·솔순·솔씨방·솔마디·송화가루·송진·송근백피·송목피·송이버섯·백복령·적복령·백복신 등 지리산의 정기(精氣) 덩어리인 조선소나무의 열두 가지 원료에다 당귀·감초·표고버섯·흙설탕 기타 여러가지 첨가식품을 배합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발효 숙성시켜 수천종류의 식물성 효소와 미생물 효소 뿐만 아니라 비타민·미네랄 기타 고단위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원활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자연치유의 힘을 길러줌으로써 성인병을 비롯하여 난치병도 낫게 하며 병의 예방도 하여 정(精)·기(氣)·신(神)이 왕성하게 하는 기적의 솔 종합영양강장식품이다.

「솔선식」은 곡식종류는 한 톨도 들어감이 없이 「솔효소정액」과 똑같은 솔의 열두 가지 원료에다 여러가지 영양물질을 배합하여 만들었으므로 속세의 사람들이 하루 세끼 먹는 음식 대신에 신선이 먹는 작은 알갱이로 된 음식이다. 그래서 일체의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 「솔선식」만 먹고도 살 수 있는 기적의 솔음식으로 3개월만 복용하여도 비만의 몸은 체중이 10Kg이상이 빠지고 당뇨에 특효가 있고 성인병과 난치병도 치료되며 몸이 날아갈듯이 가벼워지는 기적의 어떤 후유증도 없는 다이어트 솔음식이다.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서 솔은 심장, 혈관계통의 질환뿐 아니라 신경통, 관절염, 간염, 기관지 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솔효소정액」과 「솔선식」은 한국식품연구소에서 품질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특허출원번호 96.57796호(솔효소정액)96.5587(솔선식), 98.3.31(건강보조식품 허가) 앞으로 기적의 우리 소나무 종합강정 건강식품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여 많은 외화획득을 할 작정이다.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
원액 2,800㎖(700㎖ 4병분량 2개월분)
정가 ₩700,000원(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7796호



솔선식(松仙食)
환약 1개월분
정가 ₩700,000원(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587호

◐ 구입문의 (대구) : 053)628-9145 / 053)655-2227 / 011)808-8880

◆ 입금구좌 : 대구은행 033-07-172508 대구여래한방

부처님의 자비로 이웃과 함께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 장 조계종 송월주

이사 박원우 감 사 김성관
이사 김능관 감 사 편백운
이사 이지성 감 사 손수성
이사 김국성 사무차장 윤자월
이 사 김회정

이사 법륜 종 이혜우
이사 본원 종 이대화
이사 일붕선교 종 김무찰
이사 조동 종 윤송정
이사 염불 종 이청봉
이사 대승 종 윤일오
이사 삼론 종 이혜공
이사 열반 종 김해곡
이사 미타 종 권성우
이 사 여래 종 신혜안

이사 일승 종 김혜정
이사 보문 종 정혜일
이사 대한법화 종 김대호
이사 법상 유식 종 정법륜
이사 원종 지효 종 배일공
이사 원종 화엄 종 송지화
이사 진용 화 종 전무진
이 사 종 손금광
이 사 종 이법덕

수석부회장 태고종 홍인곡
부 회 장 천태종 전운덕
부 회 장 진각종 김성초
부 회 장 조계종 김월서
부 회 장 조계종 방지하
부 회 장 관음종 이홍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19 원당B/D 4층
TEL : 02)732-4885 / FAx : 02)737-7872

韓國佛教 太古宗

宗正 寶城
司書室長 宋宗演

總務院長 洪印谷
副院長 金普眼·金智庵

■ 總務部長 李智性
■ 敎務部長 片白雲
■ 財務部長 禹慧空
■ 社會部長 林虎溟
■ 糾察部長 玄守悅

中央宗會
副議長 金大雲·柳南坡

中央司正院長 金蓮雲
副院長 李白牛

■ 우 540-800 전남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802
TEL : 0661-54-5247 FAX : 0661-54-5043
■ 서울종무처 : 서울 성북2동 TEL: 02)745-2030 FAX: 02)745-6364

大韓佛教 眞覺宗

總印 覺海
總印司書室長 惠淨

【統理院】
統理院長 省超
總務部長 悔淨
局長 觀天
財務部長 守性
局長 證光
文化社會部長 孝庵
局長 圓明
建設部長 惠明

【宗議會】
議長 烋明
副議長 修淨
副議長 一成和

【查監院】
查監院長 眞堂
查監部長 義玄

【教育院】
教育院長 一靜
敎法部長 惠淨
局長 悔省
教育部長 觀證

【眞覺大學】
學長 碩峯
敎務局長 浩堂

■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22번지
TEL : 02)913-0751~4 FAX : 02)913-0755

財團法人 大韓佛教 觀音宗

宗正 金大天
司書 金性眞
元老院長 李慧雄

總務院長 李泓坡
總務部長 金智攝 敎務部長 黃法明
財務部長 金鏡徹 社會部長 尹法虛
監察部長 金和嚴 組織部長 李法炫
布敎部長 柳牛耕 敎育部長 金性哲

宗會議長 鄭法輪
副議長 金法華 事務局長 池法項

敎育院長 金東靈
修敎部長 洪智默 譯經部長 吳慧圓

■ 서울 종로구 숭인동 178-3
TEL : 02)763-3345,3109 FAX : 02)763-5851

大韓佛教 普門宗

宗正 千慧眼
元老院長 崔慧月

總務院長 鄭慧日
宗會議長 李智環
護戒院長 曺法綜
總務院副院長 崔智性
總務部長 李法善
敎務部長 金眞雨
財務部長 吳仁太
布敎部長 李明浩

宗徒一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 3가 168
TEL : 02)928-3797, 926-9752

佛教總指宗

宗領 祿靜

統理院長 總持華
總務部長 知性
財務部長 善導願
敎政部長 圓滿願

法藏院長 曉岡
查監院長 圓峰
查監委員 法靜
查監委員 法成

宗會議長 松霞
副議長 法靜

서울·경기 敎區長 圓松 충청·전라 敎區長 法水願
대구·경북 敎區長 修成 부산·경남 敎區長 義剛

■ 서울 강남구 역삼2동 776-2
전화 : 02)552-1080~3 FAX : 02)552-1082

大韓佛教眞言宗 宗理院

종정 육자(六字)
원로 재산(霽山)
석암(石庵)
종리원장 금광(金光)
재무부장 종밀(宗密)
종회의장 법륜(法輪)
호법원장 국복(菊馥)
감사원장 혜공(慧空)

■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52-3(용두진광원내)
TEL : 02)960-3552 FAX : 02)968-3350

韓國佛教 法華宗

法主 金惠洽

僧政院長 金妙宣
宗會議長 崔爲佛
總務院長 鄭坡南
敎育院長 朴惠耕
布敎院長 咸仁成
糾正院長 尹慧正

財團法人 韓國佛教 法華宗維持財團
理事長 朴本基

■ 서울市 城北區 三仙洞 2街 233 總務院(法華寺內)
TEL : 02)763-8061 FAX : 02)763-8327

대한불교삼론종

종정 혜암 석학암

승정원장 석정원
총무원장 석마정
부원장 석진공
종회의장 석죽산
사정원장 석성종

■ 총무원 : 경기 이천시 율면 월포리 80
TEL : 0336)643-8254, 643-8515 FAX : 0336)643-7254
■ 서울사무소 : 광진구 중곡동 124-7
TEL : 02)456-1963 FAX : 02)456-1963

대한불교해동종

사단법인 해동자비원

종정 석봉
원로원원장 인현
중앙종회의장 성타
사정원장 능선
포교원장 대원
복지봉사원장 대경
불교예술원장 원표
연수원장 백담
총무원장 송산
부원장 법성
총무부장 경신
교무부장 진웅
사회부장 혜월
재무부장 보성
사정부장 상호
포교부장 법운
연수부장 담원

■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성복리 393-1
■ 전화 : 0331)262-1577·263-1353